

# 서울시 창조계층 특성과 정책방향

김범식 김묵한

Analysis on Employment and its Characteristics of Creative Class in Seoul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시 창조계층  
특성과 정책방향**

## 연구책임

김범식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연구진

김묵한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장윤희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 창조 관련 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으로 서울시 창조계층의 양적·질적 확대 도모

## 창조경제 이끄는 창조계층이 국가발전 핵심 추진세력으로 부상

21세기 들어서도 성장잠재력 약화가 지속되면서 국가나 도시 모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상상력, 아이디어 등 창조성에 기인한 무형자산이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적 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창조계층’이 국가나 지역발전의 핵심 추진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는 도시의 경제성장이 단지 인적자본의 밀집에서 생기는 생산효과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창조계층이 보유한 창의적 능력인 창조자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창조계층, 즉 창조전문인력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기업이 입지한 곳에 인력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계층이 정착한 곳에 기업도 따라 오기 때문이다. 창조계층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창조계층의 고용상태와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 창조계층, 직업특성에 따라 창조적 전문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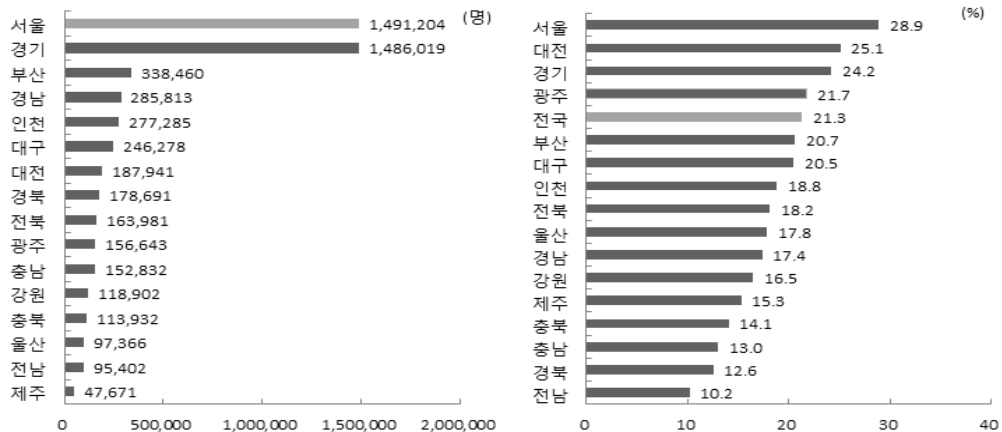
창조계층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조계층의 분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창조계층의 분류 방법은 직업 또는 산업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직업기반 분류, 산업기반 분류, 직업·산업 혼합 분류 등 3가지로 구분되며, 보편적으로는 직업기반 분류가 사용된다. 직업기반 분류는 산업기반 분류와 달리 사람 중심으로 창조계층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직업에 기초하기 때문에 산업기반 분류보다 정확하게 창조계층을 파악할 수 있다.

창조계층은 직업특성에 따라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핵심 창조계층’은 대학교수, 과학자, 연구원, 분석가 등 쉽게 전파되고 유용하게 쓰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 등을 만들어 내는 계층이다. ‘창조적 전문가’는 경영, 금융서비스, 법률, 보건·의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복잡한 지식체계에 의존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계층이다. ‘보헤미안’은 작가, 디자이너, 배우 등 문화·예술 및 미디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도시의 관용문화를 대표한다.

## 서울시 창조계층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149만 명으로 전국 1위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규모는 149만 1,204명으로 전국의 27.4%를 점유하고 있다. 서울시 창조계층 규모는 16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입지상(LQ)으로 본 창조계층의 집중도도 1.4로 기준치 1을 상회한다. 16개 시·도의 창조계층 규모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2강(強) 14약(弱)’ 구조이다. 또한 서울시 전체 취업자 중 창조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8.9%로 전국 평균을 7.6%p 상회한다. 그러나 54개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한 서울시 창조계층 비중 순위는 36위로 낮다. 오슬로의 창조계층 비중은 46.8%로 54개 해외도시 중 가장 높고, 상위 9개 도시의 비중도 모두 40%대에 달한다.



[그림 1] 시·도별 창조계층 종사자 수 및 비중(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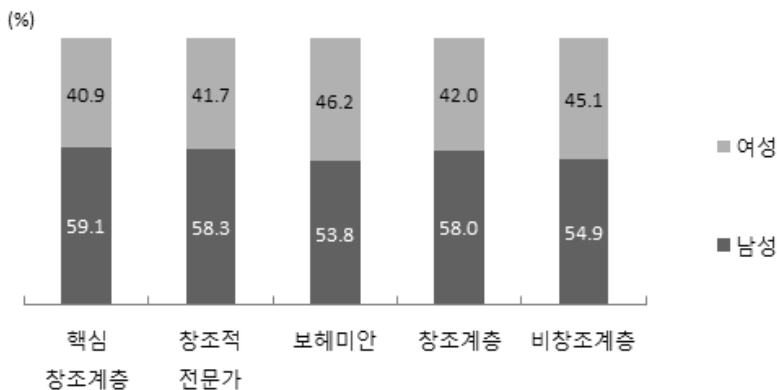
## 54개 해외 주요도시 중에서 서울시 창조계층 비중 순위는 36위

한편 창조계층을 유형별로 보면, 서울시는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가 각각 44.1%, 40.6%, 보헤미안이 15.2%로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보헤미안 인력은 서울 내 비중은 낮지만, 전국 보헤미안 인력의 41.6%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시·도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서울시 창조계층은 2008년 133만 647명에서 2013년 149만 1,204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취업자 증가율(1.0%)을 1.3%p 상회하는 수준이다. 창조계층 유형별로는 핵심 창조계층(1.2%), 창조적 전문가(2.5%)보다 보헤미안(5.2%)의 인력 증가세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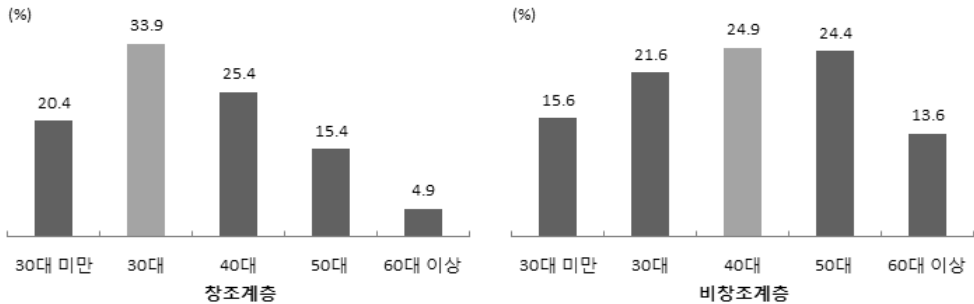
## 창조계층, 남성이 58%, 30대가 34%, 고학력자가 90% 차지

서울시 창조계층의 58.0%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비창조계층의 남성 비중을 3.1%p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보헤미안보다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에서 남성 우위적 구조가 더 뚜렷하다. 그러나 2008~2013년 중 서울시 여성 창조계층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남성(1.2%)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여성 창조계층은 주로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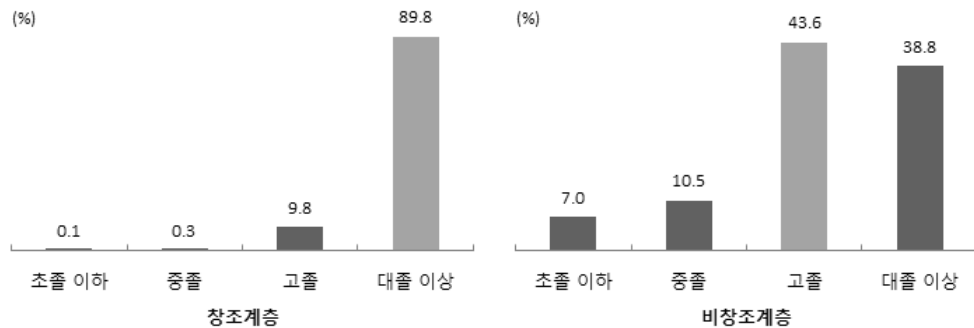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창조계층 및 비창조계층의 성별 구조(2013)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30대가 33.9%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다음은 40대 25.4%, 30대 미만 20.4% 등의 순이다. 이러한 연령별 구조는 비창조계층과 대조적이다. 비창조계층에서는 40대가 24.9%로 가장 많고, 50대 24.4%, 30대 21.6% 순으로 나타났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은 30대가, 창조적 전문가는 40대가 많은 구조이다.



[그림 3] 서울시 창조계층 및 비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조(2013)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비창조계층(38.8%)의 2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비창조계층의 학력별 구조는 고졸이 43.6%로 가장 많고, 중졸도 10.5%에 달한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에서 대졸 이상 비중이 92.7%로 가장 높고,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은 각각 88.0%, 85.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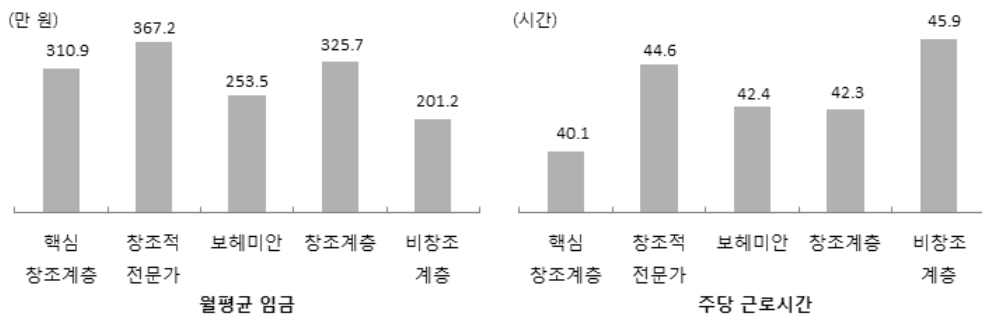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시 창조계층 및 비창조계층의 학력별 구조(2013)

## 창조계층, 비창조계층보다 임금·고용안정성 높고 근로시간 적어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중 83.1%가 상용직으로 비창조계층(54.5%)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창조계층의 고용안정성은 창조계층 유형별로 차별적이다. 상용직 비중은 창조적 전문가가 90.2%로 가장 높고,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의 상용직 비중은 각각 79.6%, 73.9%로 상대적으로 낮다. 창조계층의 상용직 비중은 2008년 84.6%에서 2013년 83.1%로 1.5%p 하락했다. 특히 보헤미안 인력은 지난 5년간 임시직 종사자가 연평균 13.2%나 증가해 임시직 비중이 6.2%p나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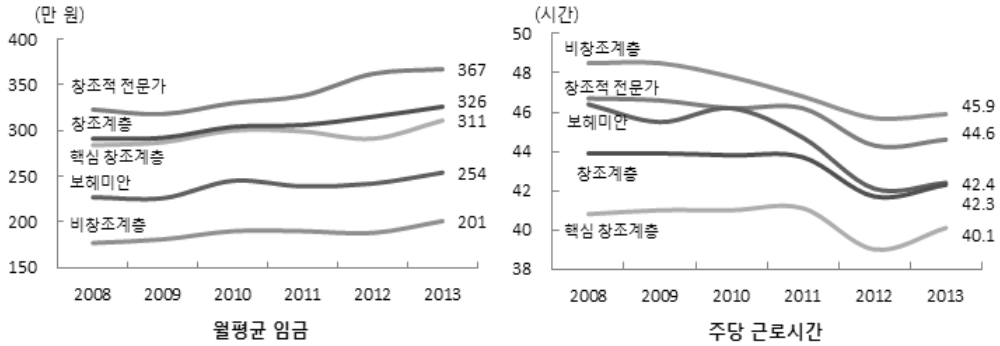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은 325.7만 원으로 전국(300만 원)보다 8.6% 높고, 서울시 비창조계층(201.2만 원)에 비해서는 1.6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창조계층이 높은 경제적 기회를 가진다는 플로리다 이론과 부합한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창조적 전문가가 367.2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핵심 창조계층은 310.9만 원이고, 보헤미안은 253.5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2008~2013년 중 연평균 임금증가율은 창조적 전문가 2.6%, 보헤미안 2.3%, 핵심 창조계층 1.9%로 나타났다.



[그림 5]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2013)

월평균 임금과 달리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은 42.3시간으로 비창조계층(45.9시간)에 비해 3.6시간 짧다. 플로리다 이론과 달리 창조계층의 근로시간이 비창조계층보다 짧은 것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창조계층 유형별로는 창조적 전문가가 44.6시간으로 가장 길고, 보헤미안은 42.4시간이고, 핵심 창조계층은 가장 짧은 40.1시간이다. 창조계층의 근로시간은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단축되는 추세이다.





[그림 6]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 추이

## 창조계층의 45%가 교육서비스·보건·출판·전문서비스업에 종사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총 75개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 전문서비스업 등 4개 산업에 전체 창조계층 인력의 44.9%가 밀집되어 있다. 창조계층의 산업 밀집도가 1% 이상인 산업은 총 75개 산업 중 24개이고, 이 중 10% 이상은 2개, 2% 이상은 16개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 산업에 밀집되어 있다. 전국은 서울에 비해 출판업 밀집도가 매우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그림 7]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2013)

창조계층 유형별로 살펴보면, 3~5개 산업에 집중된 형태이나 밀집된 산업은 창조계층 유형별로 상이하다. 핵심 창조계층은 교육 서비스업에만 44.4%가 밀집되어 2위인 출판업(12.2%)과 32.2%p의 격차를 보였고, 창조적 전문가는 보건업이 23.8%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전문서비스업도 10% 내외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헤미안은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밀집도가 17.3%로 가장 높지만, 출판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도 10% 이상으로 특정 산업에 집중된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창조계층의 산업 밀집도 순위 변화를 보면,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이 각각 6년 연속 1, 2위를 유지했다. 출판업은 2008년 4위에서 2013년 3위로, 전문서비스업은 6위에서 4위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0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4위에서 5위로 급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 등에 창조계층이 많이 몰린 가운데 전문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으로도 창조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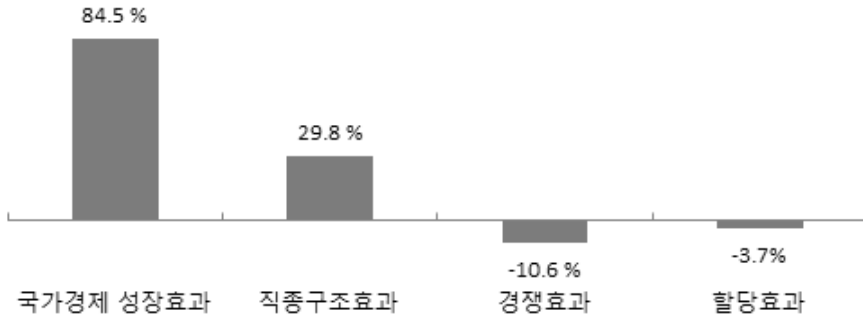
서울시 전 산업의 창조계층 평균 비중(28.9%)과 산업 특화도를 이용해 75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방송업,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등 14개 산업이 서울형 창조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창조계층 고용증가의 80% 이상이 국가경제 성장효과

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을 변이할당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증가는 80% 이상이 국가경제 성장효과이고, 29.8%는 직종구조효과로 나타나 해당 직종의 비교 우위나 전문화 등을 보여주는 경쟁효과와 할당효과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만 경쟁효과와 할당효과가 정(+)의 효과를 보이고,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은 경쟁효과와 할당효과 모두 부(-)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창조적 전문가는 경쟁효과와 할당효과가 각각 -41.3%, -14.3%로, 지역 경쟁력에 의한 고용증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조적 전문가와 핵심 창조계층은 국가경제 성장효과가 가

장 컸으며, 보헤미안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직종에 집중된 효과를 보여주는 직종구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 변이할당 모형에 의한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2008~2013)

## 서울시, 기업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인력 양성해야

서울시 창조계층의 규모는 국내에서는 1위 수준이지만,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서울시 창조계층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요인이 주로 국가경제 성장효과 및 직종구조효과로 서울 고유의 비교우위 및 전문화 등에 기인한 경쟁력 요인은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인력양성 등을 통한 직접 확대 전략과 산업육성 등을 통한 간접 확대 전략을 통해 창조계층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창조계층의 직접 확대 전략의 하나로 비창조계층 인력을 창조계층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서울에 특화되어 있지만, 창조계층 비중이 낮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창조계층 비중과 산업 특화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 도심형 제조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해온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 확산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 보완 여부, 신규 사업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 교육기관 주도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창조계층의 간접 확대 전략의 하나로 창조계층의 밀집도가 높고 특화도도 높은 산업을 산업정책과 연계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 어메니티의 개선을 통해 창조계층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창조계층의 주된 활동 무대는 자연자원이나 세금우대 조치 등과 같은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창조계층이 필요로 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인프라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조계층은 박물관, 전시관 같은 전통적 문화공간보다 카페나 레스토랑 등 캐주얼한 도시 내 시설을 더 선호한다. 또한 다문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이를 축제나 행사와 결합하는 방식도 유용하며, 홍대, 이태원 등의 공간은 창조계층을 유인하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곳이다.

## 목차

01 연구의 개요	2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02 창조계층의 개념과 통계적 분류	12
1_주요 선행연구 및 분석사례	12
2_창조계층의 유형과 통계적 분류	19
03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실태와 특성 분석	28
1_창조계층의 고용수준 및 추이 분석	28
2_창조계층의 인구통계적·노동행태적 특성 분석	44
3_창조계층의 산업별 특성 분석	67
4_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 분석	81
04 정책적 시사점	86
1_분석결과의 요약	86
2_향후 정책방향	90
참고문헌	97
부록	100
Abstract	122

## 표

[표 1-1]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2
[표 2-1] 창조계층의 분류방식	13
[표 2-2] 글로벌 시티 종합점수(2013)	16
[표 2-3] 해외 주요도시의 창조계층 비중 및 순위(2013)	18
[표 2-4] 창조계층의 유형과 개념	19
[표 2-5] 국제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창조계층 인력 분류	20
[표 2-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창조계층 인력 분류	21
[표 2-7] 국내 선행연구의 창조계층 분류	23
[표 2-8] 창조계층 분석에 사용된 측정지표	24
[표 2-9] 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분류	25
[표 2-10]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취업자 수	25
[표 3-1] 시도별 창조계층 및 유형별 종사자 수(2013)	28
[표 3-2]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전국 창조계층 산출의 소분류와 중분류 기준 비교	29
[표 3-3] 창조계층의 각 유형 내 시도별 종사자 수 비중(2013)	31
[표 3-4] 시도별 창조계층의 입지상(2008)	33
[표 3-5] 시도별 창조계층의 입지상(2013)	33
[표 3-6] 각 시도 내 전체 취업자 중 창조계층 및 유형별 비중(2013)	34
[표 3-7] 각 시도 내 창조계층의 구성비(2013)	36
[표 3-8] 시도별 창조계층의 임금근로자 규모(2013)	37
[표 3-9] 시도별 창조계층의 각 유형 내 임금근로자 비중(2013)	38

[표 3-10] 시·도별 창조계층의 규모 추이(2008~2013)	39
[표 3-11] 서울과 전국의 창조계층 증가세와 전체 취업자 증가세 비교(2008~2013)	40
[표 3-12] 시·도별 핵심 창조계층의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42
[표 3-13] 시·도별 창조적 전문가의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43
[표 3-14] 시·도별 보헤미안의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43
[표 3-15]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성별 종사자 수(2013)	45
[표 3-16]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성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45
[표 3-17]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의 성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46
[표 3-18]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연령별 종사자 수와 비중(2013)	49
[표 3-19]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연령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50
[표 3-20]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의 연령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51
[표 3-21]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의 학력별 종사자 수와 비중(2013)	54
[표 3-22]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학력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55
[표 3-23]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의 학력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56
[표 3-24]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과 상대적 임금수준(2013)	58
[표 3-25]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추이(2008~2013)	59
[표 3-26]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과 상대적 근로시간 수준(2013)	60
[표 3-27]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 추이(2008~2013)	62
[표 3-28]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와 비중(2013)	63
[표 3-29]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64
[표 3-30]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65
[표 3-31] 산업 밀집도 상위 10대 대분류 산업의 창조계층 인력 연평균 증가율(2008~2013)	70
[표 3-32] 산업 밀집도 상위 10대 중분류 산업의 창조계층 인력 연평균 증가율(2008~2013)	75
[표 3-33] 주요 기관의 창조산업 범위	77
[표 3-34] 서울형 창조산업 탐색을 위한 유형화	78

[표 3-35] 창조계층 비중과 산업 특화도에 따른 서울시 산업 유형	80
[표 3-36] 변이할당 모형에 의한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고용변화 분석(2008~2013)	84
[표 4-1] 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주요 양성사업	92
[표 4-2] 도시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조성방안	94



## 그림

[그림 1-1] 창의성의 3가지 측면과 기술적 창의성의 관계	4
[그림 1-2] 5C의 상호작용 : 창조성과 4 Capital의 성과	4
[그림 1-3] 서울의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추이	5
[그림 1-4] 서울과 전국의 취업자 장기추세치 증가율 추이	5
[그림 1-5] 연구흐름도	8
[그림 1-6] 연구방법	9
[그림 2-1] 해외 주요도시의 창조계급 비중 및 등급	17
[그림 3-1] 16개 시·도별 창조계층의 종사자 수 비교(2013)	30
[그림 3-2] 전국 내 창조계층의 시·도별 종사자 수 비중(2013)	30
[그림 3-3] 각 시·도 내 창조계층 종사자 수 비중(2013)	35
[그림 3-4]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별 구성비(2013)	36
[그림 3-5] 서울과 경기의 전국 창조계층 내 비중 추이	41
[그림 3-6]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성별 구성(2013)	44
[그림 3-7]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종사자의 성별 비중 추이(2008~2013)	46
[그림 3-8]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 종사자의 성별 비중 추이(2008~2013)	47
[그림 3-9]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 종사자의 성별 비중 추이(2008~2013)	47
[그림 3-10]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 종사자의 성별 비중 추이(2008~2013)	47
[그림 3-11]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성(2013)	48
[그림 3-12] 전국 및 서울시 비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성(2013)	48
[그림 3-13]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종사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2008~2013)	50

[그림 3-14]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 종사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2008~2013)	52
[그림 3-15]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 종사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2008~2013)	52
[그림 3-16]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 종사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2008~2013)	52
[그림 3-17]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학력별 비중(2013)	53
[그림 3-18] 전국 및 서울시 비창조계층의 학력별 비중(2013)	53
[그림 3-19]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종사자의 학력별 비중 추이(2008~2013)	55
[그림 3-20]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 종사자의 학력별 비중 추이(2008~2013)	57
[그림 3-21]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 종사자의 학력별 비중 추이(2008~2013)	57
[그림 3-22]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 종사자의 학력별 비중 추이(2008~2013)	57
[그림 3-23]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2013)	58
[그림 3-24]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2013)	60
[그림 3-25]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2013)	63
[그림 3-26]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2008~2013)	64
[그림 3-27]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2008~2013)	66
[그림 3-28]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2008~2013)	66
[그림 3-29]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2008~2013)	66
[그림 3-30] 대분류 기준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밀집도(2013)	67
[그림 3-31]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의 산업 대분류별 밀집도(2013)	68
[그림 3-32]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의 산업 대분류별 밀집도(2013)	68
[그림 3-33]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의 산업 대분류별 밀집도(2013)	68
[그림 3-34]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대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2008~2013)	71
[그림 3-35] 전국 창조계층 인력의 대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2008~2013)	71
[그림 3-36]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2013)	72
[그림 3-37]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2013)	73
[그림 3-38]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의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2013)	74

[그림 3-39]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의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2013)	74
[그림 3-40]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2008~2013)	76
[그림 3-41] 전국 창조계층 인력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2008~2013)	76
[그림 3-42] 창조계층 비중과 산업 특화도에 따른 서울시 산업 분포도	79

# 01

---

## 연구의 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 01 | 연구의 개요

##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창조경제

과거 도시 지역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환경은 마샬(Marshall)<sup>1)</sup> 등이 주장한 기업에 기반을 둔 산업의 집적이었다.<sup>2)</sup> 산업경제 패러다임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 핵심 성장동력이었으며,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중화학공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들어 경제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면서 지식과 정보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각되었다. 주로 가전, 반도체, 정보통신 등 IT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등장하였으며, 기술과 지식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부를 축적했다. 특히 지식과 정보 등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과 물리적 자산(raw materials)의 가치(book value) 비율이 1950년대 20 대 80에서 1990년대에는 70 대 30으로 전환되었다.<sup>3)</sup>

[표 1-1]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산업경제	지식기반경제	창조경제
시기 (주요 사건)	1970~80년대 (오일쇼크)	1990년대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성장 패러다임	산업화	정보화	창조화
생산요소	노동, 자본	지식, 정보	상상력, 창의성
주력산업	중화학공업	IT 및 디지털산업	융합 및 창조산업

자료 : 이장우, 2013, “창조경제에서 융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1) Marshall, A., 1920, Industry and Trade, Macmillan, London.

2) 김홍주박기풍, 2010, “도시의 창조적 계급 기술 관용의 공간적 집중과 클러스터”, 『국토계획』 제45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 Cooke, P. and Delaurentis, C., 2002, The Index of Knowledge Economies in the European Union : Performance Rankings of Cities and Regions, Regional Industrial Research Report 41, Centre for Advanced Studies, Cardiff University.

2000년대 들어 경제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넘어 창조경제<sup>4)</sup>로 이행되고 있다. 창조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sup>5)</sup> 호킨스(Howkins)는 그의 저서<sup>6)</sup>에서 창조경제를 창조적 인간, 창조적 산업, 창조적 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를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로 정의했다.<sup>7)</sup> UNDP & UNCTAD는 2008년에 이어 2010년에 발표한 Creative Economy Report를 통해 창조경제란 잠재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창조적 자산에 기반한 진화론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창조경제는 기술, 지적재산권, 관광 대상 등과 상호작용하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다.

창조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은 창의성이며, 융합 및 예술, 콘텐츠 등 창조산업이 주력산업의 역할을 담당한다. UNDP & UNCTAD(2010)는 “아이디어가 가치 있는 사물로 생성되고, 연결되며, 전환되는 과정”으로 창의성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성의 특성을 문화적 창의성, 과학적 창의성, 경제적 창의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적 창의성(cultural creativity)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식을 생성하는 능력 및 상상력과 관련되어 있고, 주로 문자, 소리, 이미지 등으로 표현된다. 과학적 창의성(scientific creativity)은 호기심,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의지와 새로운 연결(connection)과 관련되어 있다. 경제적 창의성(economic creativity)은 기술, 사업관행, 마케팅 등에서 혁신으로 유도하는 역동적 과정이며, 경제에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획득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창의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적 창의성(technological creativity)과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2000년 8월 피터 코이(Peter Coy)가 ‘비즈니스위크’를 통해 개인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핵심이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 출현을 강조하면서 등장했고, 2001년 호킨스(Howkins)가 창조(creativity)와 경제(economics)의 관계를 다룬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으로 이론적인 정립을 시도하였다(김대호, 2014, 창조경제정책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5) UNDP & UNCTAD, 2010,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6) Howkins, John, 2001, The Creative Economy :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London, Pengu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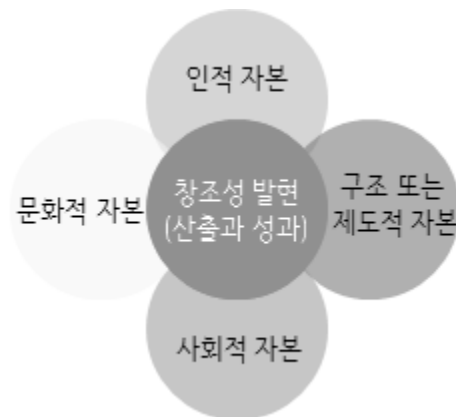
7) 차두원유지연, 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분석”, 「ISSUE PAPER 2013-0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 : KEA European Affairs, 2006; UNDP & UNCTAD, 2010에서 재인용

**[그림 1-1]** 창의성의 3가지 측면과 기술적 창의성의 관계

또한 UNDP & UNCTAD(2010)는 창의성을 측정가능한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으로 보기도 한다. 창의성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때는 단순히 경제적 산출(outcome)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인적 자본(human capital), 구조 또는 제도적 자본(structural/institutional capital) 등 4가지 자본의 상호작용을 통한 창조활동의 순환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자본은 창조자본(creativity capital)의 결정요인이며, 이러한 결정요인들의 축적된 영향이 창의성의 성과(outcome)로 발현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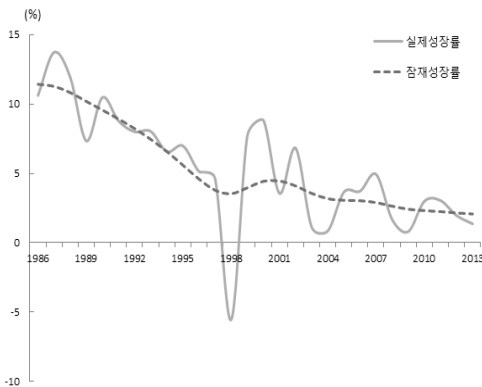


**[그림 1-2]** 5C의 상호작용 : 창조성과 4 Capital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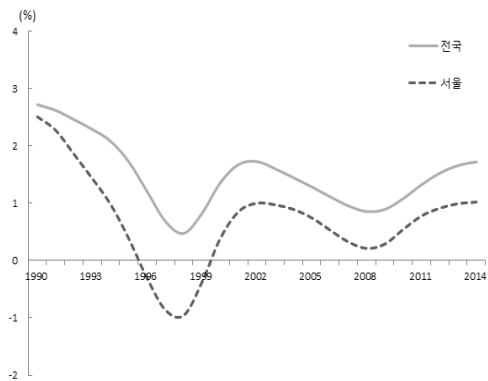
자료 :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 Government, Home Affairs Bureau, 2005, A Study on Creativity Index.; UNDP & UNCTAD, 2010에서 재인용

## 2) 창조경제의 부상은 지속된 성장잠재력 약화가 주요인

자본과 노동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자 혁신과 지식이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주도형 경제가 대안으로 부상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도 성장잠재력 약화는 지속되었다. 특히 국가나 도시 모두 전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고용 없는 성장, 청년실업 문제 등이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평균 잠재성장률<sup>8)</sup>은 1990~1999년 6.2%에서 2000~2013년 3.0%로 크게 하락했다. 서울과 전국의 취업자 장기추세치<sup>9)</sup> 증가율 평균은 1990~1999년 각각 0.7%, 1.7%에서 2000~2014년 0.7%, 1.3%로 답보 내지는 하락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고용창출력 개선도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장방식이나 개발방식에 한계를 느낀 국가나 도시들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림 1-3] 서울의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추이



[그림 1-4] 서울과 전국의 취업자 장기추세치 증가율 추이

8) 서울의 잠재성장률은 시계열자료 분석기법인 HP필터를 이용했다. HP필터는 1980년에 Hodrick과 Prescott이 경제의 장기추세와 순환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으로 경기변동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추계하여 발표하는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을 사용했다.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은 연간자료만 제공되므로 시계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해 연간자료를 분기로 전환하고 계절조정을 한 다음 추세치를 구하여 이를 다시 연간으로 환산했다.

9) 서울과 전국의 취업자 장기추세치 증가율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되는 취업자를 활용하여 구했다. 1989년 이후 분기별 취업자 수를 U.S. Census Bureau의 X12-ARIMA로 계절조정 후 HP필터를 이용해 취업자 수의 분기별 장기추세치를 구한 다음 이를 연간으로 환산했다.



저성장의 늪에서 탈피하고, 고용창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창조경제 부상의 주요인이지만, 무형자산의 중요성 확대, 혁신적 기술의 중요성 증대 등 경제환경 변화도 또 다른 요인이다. 차두원·유지연(2013)<sup>10)</sup>이 지적했듯이 상상력, 아이디어 등 창조성에 기인한 무형자산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가치로서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지식경제사회의 정보와 지식을 넘는 경제성장 동인으로 혁신적 창조성과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애플과 페이스북의 성공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품질 중심에서 창의적인 경험과 환경 등 새로운 가치 중심 경제체제로의 진입을 보여주는 사례이다.<sup>11)</sup> 또한 주요국의 과학기술 경쟁 심화와 자국 기술 보호정책 강화로 인해 혁신적 창의성의 중요성이 높아졌다.<sup>12)</sup> 이처럼 변화된 경제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은 저임금이나 단순 지식의 활용을 넘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 제품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sup>13)</sup> 국가나 도시도 새로운 돌파구로 창조경제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 3) 창조계층은 도시 및 지역발전의 핵심 추진 세력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에서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에 이르기까지 도시는 다양성과 이질성의 기마술으로, 창의성과 혁신의 세련반(font)으로 인식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지역발전과 개발은 도시에서 기업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을 어떻게 도시에 유치하고, 클러스터와 같은 형태로 얼마나 집적시키는가에 관심이 모아졌다.<sup>14)</sup>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이 창조경제로 변화되면서 창조계층이 도시 및 지역발전의 핵심 추

10) 차두원·유지연, 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분석”, 「ISSUE PAPER 2013-0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 차두원·유지연, 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분석”, 「ISSUE PAPER 2013-0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 차두원·유지연, 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분석”, 「ISSUE PAPER 2013-0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 박정수·김홍석 외, 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과제”, 「ISSUE PAPER 2013-313」, 산업연구원.

14) Florida, R., 2003,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City & Community, vol.2, no.1

진 세력(key driver)<sup>15)</sup>으로 부상하고 있다. 창조계층(creative class)은 플로리다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는 21세기에 전개되는 공간과 장소의 새로운 분화과정에서 도시의 경제성장이 단지 인적자본의 밀집에서 생기는 생산효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창조계층이 만들어 내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도시 경제성장의 열쇠가 창조계층이 보유한 창의적 능력인 창조자본(creative capital)이기 때문이다.<sup>16)</sup>

플로리다는 도시의 경제발전이 다양하고, 관대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인 곳을 선호하는 창조계층에 의해 촉진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 창조계층이 정착하고, 혁신과 경제성장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3T, 즉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볼티모어,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등은 세계 수준의 대학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인재를 유인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용과 개방성이 부족해 성장에 실패했다. 마이애미와 뉴올리언스는 다양한 생활양식(lifestyle)의 중심지지만, 취약한 기술기반으로 인해 성공에 실패했다. 대조적으로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보스턴, 워싱턴 DC, 오스틴과 시애틀 등은 3T를 모두 갖추면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로 발전했다.<sup>17)</sup>

최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수도 창조경제 달성을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면서 창조계층, 즉 창조인력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기업이 입지한 곳에 인력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계층이 정착한 곳에 기업도 따라오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8년까지 창의적 혁신역량을 가진 창조인력을 10만 명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창조인력 또는 창조계층의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창조계층의 고용 실태와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sup>15)</sup>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Luigi Fusco Girard, Tüzün Baycan and Peter Nijkamp, 2011, Sustainable City and Creativity, Ashgate.

<sup>16)</sup> 이철호, 2011, “창조계급과 창조자본 : 리처드 플로리다 이론의 비판적 이해”,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9집 제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sup>17)</sup> Florida, R., 2003,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City & Community, vol.2, no.1

## 2\_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서울시 창조계층의 규모와 특성 분석에 초점

이 연구의 초점은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상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그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16개 시·도 또는 전국과 비교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별 밀집도와 특화도를 이용해 서울형 창조산업을 탐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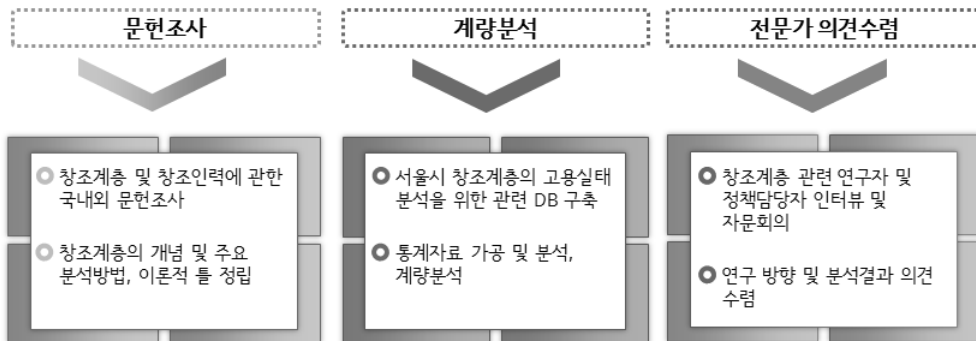
이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연구의 개요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서술했다. 2장은 창조계층의 개념과 통계적 분류로, 창조계층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고찰한 후 창조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통계적 분류 방법을 논의했다. 3장은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상태와 특성 분석이다. 이 장에서는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수준 및 추이 분석, 서울시 창조계층 고용의 인구통계적·노동행태적 특성 분석,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별 특성 분석, 그리고 지난 5년간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 등을 다루었다. 4장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정책적 함의를 다루었다.

<b>1장 서론</b> 1. 연구배경 및 목적 · 창조계층의 부상과 배경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b>3장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상태와 특성 분석</b> 1. 창조계층의 고용수준 및 추이 분석 · 창조계층 및 유형별 고용수준 및 추이 분석 (16개 시·도 비교 분석) · 입지상(LQ)으로 본 창조계층 집중도 분석 2. 창조계층의 인구통계학적·노동행태적 특성 분석 ·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 :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분석 · 노동행태적 특성 분석 : 임금수준,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등 3. 창조계층의 산업별 특성 분석 · 창조계층의 산업별 밀집도와 추이 분석 · 창조계층의 비중과 특화도를 이용한 서울형 창조산업 탐색 4. 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 분석 · 변이할당모형을 이용한 고용변화 요인 분석
<b>2장 창조계층의 개념과 통계적 분류</b> 1. 주요 선행연구 및 분석사례 · 창조계층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검토 · 해외 주요 도시의 창조계층 비중 비교 2. 창조계층의 유형과 통계적 분류 · 창조계층의 유형과 개념 · 창조계층의 통계적 분류	<b>4장 정책적 시사점</b> 1. 분석결과와 요약 2. 향후 정책방향

[그림 1-5] 연구흐름도

## 2) 문헌조사, 통계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

이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 통계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창조계층 및 창조인력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등을 통해 창조계층의 개념, 주요 분석방법, 이론적 틀을 정립했다.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실태 분석을 위한 관련 DB를 구축하고, 통계자료의 가공 및 분석, 계량분석에 의한 산출 등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그리고 창조계층의 고용실태 분석 관련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과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연구방향과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림 1-6] 연구방법

# 02

---

## 창조계층의 개념과 통계적 분류

1\_주요 선행연구 및 분석사례

2\_창조계층의 유형과 통계적 분류

## 02 창조계층의 개념과 통계적 분류

### 1\_주요 선행연구 및 분석사례

창조계층(creative class)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창조계층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창조계층 인력은 어떻게 산출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 1) 창조계층은 미국의 도시경제학자 플로리다가 주창

창조계층은 미국의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sup>18)</sup>가 “도시의 경제적 성장은 창조계층에서 만들어진다”는 이론을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주창되었다. 이에 따르면 창조계층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도시의 성장이 단순히 인적자본(human capital)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계층의 창의적 능력인 창조자본(creative capital)에서 생성된다고 본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존 이론이 “기업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이동한다(People-to-Job)”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창조계층론은 “창조인력이 풍부한 곳으로 기업이 이동한다(Job-to-People)”는 점에서 시각의 차이를 보인다.

창조계층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 창조도시론이다. 창조도시론의 핵심은 도시의 창조성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 환경을 조성하여 창조적 인재를 유인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도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해 창조자본을 보유한 창조계층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 창조계층이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2) 창조계층의 측정은 주로 직업기반과 산업기반 분류를 활용

창조계층 인력의 측정을 위해서는 창조계층의 분류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조계층

<sup>18)</sup>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의 분류방법은 직업기준인가, 산업기준인가에 따라 ‘직업기반’ 분류, ‘산업기반’ 분류, ‘직업·산업 혼합’ 분류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분류방식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플로리다의 직업기반 분류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산업기반 분류는 1998년 영국의 레저·창조산업을 관장하는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 Sport)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창조계층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분류방법은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창조산업을 정의한 후,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창조계층으로 파악하므로 창조계층을 산출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이 분류방법은 청소, 용역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창조산업에 속하면 모두 창조계층으로 보고, 특히 창조산업이 아닌 산업에서 창조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비창조계층으로 간주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직업기반 분류는 2002년 플로리다가 주창한 것으로 산업기반 분류와 달리 사람 중심으로 창조계층을 파악하고 있다. 그의 분류방법에 따르면, 창조계층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플로리다(2002)는 창조계층을 직업특성에 따라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직업기반 분류는 산업특성이 아닌 직업에 기초하기 때문에 산업기반 분류보다 정확하게 창조계층을 파악할 수 있지만, 창조계층의 직업 선별에 어려움이 따른다. 직업·산업 혼합 분류방식은 표준직업분류와 표준산업분류를 혼합해서 창조계층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Higgs et al.(2008) 등이 고안하였으나, 산업기반과 혼합기반의 단점이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표 2-1] 창조계층의 분류방식

분류 방식	대표 연구	분류 방법
직업기반 분류	Florida(2002, 2004)	창조계층을 직업특성에 따라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등으로 분류
	McGranahan & Wojan(2007)	지역별로 각 분야의 직업군을 세분화해 창조계층 분류
산업기반 분류	DCMS(1998, 2001)	창조계층을 영화, 방송, 출판, 광고, 건축 등 13개 핵심 창조산업의 전체 종사자로 정의
직업·산업 혼합 분류	Higgs et al.(2008)	DCMS의 분류방식을 이용해 비창조산업에 있는 창조직업을 포함

자료 : 김필수·오준범·이부영, 2013, “한국의 창조직업 현황과 시사점”, 『VIP 리포트』, 544호, 현대경제연구원.

창조계층 인력 산출에 대한 국내 주요 연구도 주로 직업기반 분류와 산업기반 분류로 대별된다. 초기에는 산업기반 분류에 따른 창조계층 인력 산출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직업기반 분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산업기반 분류방식을 적용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성희(2006)는 창조계층 전체를 다루지 않고 IT산업과 문화산업 종사자 중심으로 7대 광역시의 분포를 파악했다. 이훈·오동훈(2011)은 노동패널의 소분류 산업 코드를 이용해 하이테크산업, 문화산업, 생산자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분석했다. 박수정(2013)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수준에서 플로리다의 창조계층에 부합하는 152개 산업을 선정한 후, 산업별 종사자 수를 중분류 수준에서 서로 관련 있는 산업끼리 묶어 창조계층을 파악했다.

직업기반 분류방식을 적용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흥주·박기풍(2010)은 통계청의 2008년 ‘직업별·산업별 고용조사’ 자료를 사용해 창조계층 인력을 추출했다. 이훈·이동훈(2011)은 노동패널의 직업코드를 이용해 예술직종, 기술직종, 창조적 전문가 등의 임금수준을 분석했다. 이대창(2013)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해 163개 시·군에서 창조직종 종사자의 분포와 지역발전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김필수 등(2013)은 구체적인 자료집합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플로리다 방법을 차용해 창조계층(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과 비창조계층의 추이를 파악했다. 김영수(2013)는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10% 표본조사를 활용해 창조계층을 창의핵심인력, 창의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으로 구분해 그 추이와 특성을 분석했다. 구문모·박정수(2014)는 창조계층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로 구분한 후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해 창조계층의 인력 수를 산출했다. 황수경(2014)은 영국 NESTA(2013)가 제시한 5가지 창의역량 기준<sup>19)</sup>을 기반으로 창의직업을 문화창의직업, 기술창의직업, 창의숙련직업으로 나눈 후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해 그 수준과 특징을 분석했다. 이경선(2014)도 NESTA의 창의역량 관련 항목을 기반으로 직업별로 창의역량 수준을 5점 척도로 정량화하고, 그 수준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해 일자리 추이를 분석했다.

19) NESTA가 제시한 5가지 창의역량은 단순한 변환이 아닌 해석, 새로운 과정을 통한 문제해결 또는 목표달성, 비반복적 결과물 산출, 가치사슬에 창의 기여, 기계에 의해 대체 불가능한 기능 수행 등을 말한다.



### 3) MPI는 세계 주요 도시의 창조적 경제활동 순위를 발표

MPI(Martin Prosperity Institute)는 해외 주요 도시들이 얼마나 창조적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Global Cities’<sup>20)</sup>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대상 도시는 전 세계 GDP에 기초해 63개 도시를 선정했다. 각 도시의 창조적 경제활동의 평가는 플로리다가 제시한 인재(Talent), 기술(Technology), 관용(Tolerance) 등 경제발전의 3T와 장소의 질(quality of place)과 같은 4가지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최종적으로 각 도시의 인재, 기술, 관용, 장소의 질 등 4가지 부문별 점수와 등급, 그리고 각 부문을 종합한 종합점수와 종합등급이 산정된다. 이때 인재 점수와 등급은 교육수준별 인구, 대학 교육기관, 교육지출예산, 창조계층 비중 등으로 구성되었고, 기술 점수와 등급은 특허권, 혁신, 첨단기술 지수(High-Tech Index) 등으로 구성되었다. 관용 점수와 등급은 다양성, 이민자 수, 성소수자 인구, 종교적 다양성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여메니티와 삶의 질(Amenities and Quality of Life) 점수와 등급은 박물관, 범죄율, 오락시설, 대중교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글로벌 시티 종합점수를 보면, 오티와-가티노가 종합점수 87.8점으로 창조적 경제활동 점수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시애틀(87.5점), 오슬로(86.8점), 암스테르담(85.8점), 컬럼비아 특별구(85.8점), 코펜하겐(85.5점), 런던(85.5점), 텔아비브-야파(85.5점) 등이 85점 이상으로 A등급을 기록했다. 아시아 도시 중 도쿄와 싱가포르가 각각 81.4점으로 21위, 베이징은 80.4점으로 25위, 오사카-고베가 80.1점으로 27위를 차지해 A-등급을 기록했다. 한편, 서울은 79.8점(B+등급)으로 30위, 수원(B등급)은 76.5점으로 37위, 부산(B등급)은 73.8점으로 49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부문별 점수와 등급을 보면, 상대적으로 여메니티와 삶의 질 부문은 높은 반면, 관용 부문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메니티와 삶의 질 부문의 점수는 87점으로 A등급인 반면, 관용 부문의 점수는 68점으로 C+등급에 그치고 있다. 인재 부문과 기술 부문의 점수는 모두 82점으로 A-등급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sup>20)</sup> Martin Prosperity Institute, 2013, Creative and Diverse: Ranking Global Cities.

[표 2-2] 글로벌 시티 종합점수(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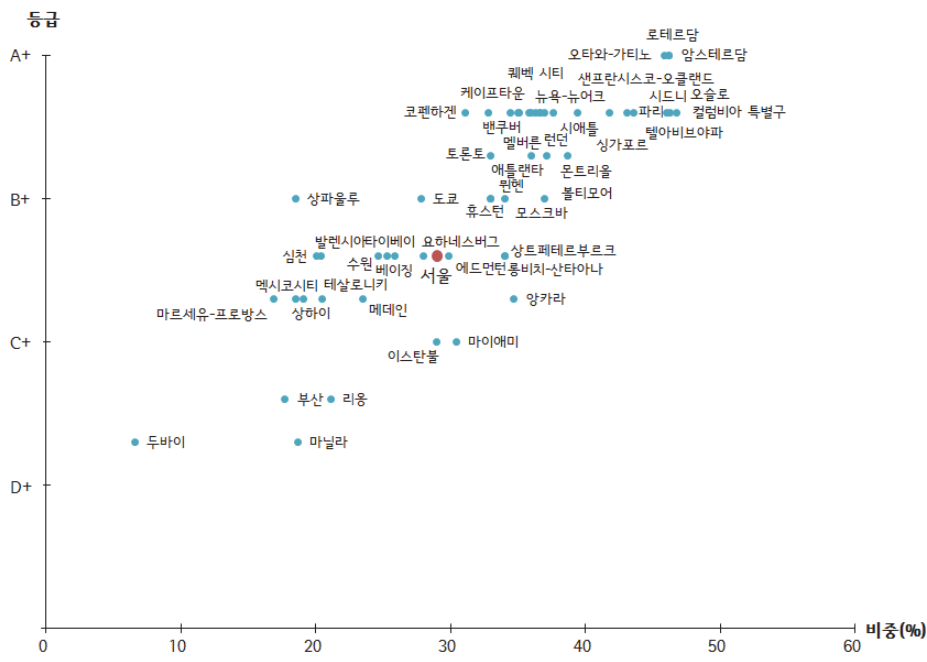
순 위	도시	종합 등급	종합 점수	순 위	도시	종합 등급	종합 점수
1	오타와-가티노	A	87.8	31	케이프타운	B+	79.0
2	시애틀	A	87.5	32	마이애미	B+	78.6
3	오슬로	A	86.8	33	마르세유-프로방스	B+	78.1
4	암스테르담	A	85.8	34	허파	B+	77.6
4	컬럼비아 특별구	A	85.8	35	볼티모어	B+	77.3
6	코펜하겐	A	85.5	35	휴스턴	B+	77.3
6	런던	A	85.5	37	수원	B	76.5
6	텔아비브야파	A	85.5	38	댈러스	B	76.4
9	캘거리	A-	84.8	38	글래스고	B	76.4
9	뉴욕-뉴어크	A-	84.8	38	타이베이	B	76.4
11	멜버른	A-	84.5	41	리옹	B	76.3
11	몬트리올	A-	84.5	41	리우데자네이루	B	76.3
13	샌디에이고	A-	83.3	43	밀라노	B	76.1
13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A-	83.3	44	심천(深圳)	B	75.6
15	퀘벡 시티	A-	82.6	45	바르셀로나	B	75.5
16	LA-롱비치-산타아나	A-	82.5	46	상하이	B	74.8
17	시카고	A-	82.3	47	멕시코시티	B	74.6
17	에드먼턴	A-	82.3	48	요하네스버그	B	74.5
17	밴쿠버	A-	82.3	49	부산	B	73.8
20	뮌헨	A-	81.8	49	메데인	B	73.8
21	싱가포르	A-	81.4	51	로마	B	73.5
21	도쿄	A-	81.4	52	예루살렘	B	73.0
23	로테르담	A-	81.3	53	두바이	B-	72.9
24	파리	A-	80.5	53	발렌시아	B-	72.9
25	베이징	A-	80.4	55	앙카라	C+	68.8
25	토론토	A-	80.4	56	상파울루	C+	68.6
27	오사카-고베	A-	80.1	57	이스탄불	C	66.9
27	시드니	A-	80.1	58	모스크바	C	66.3
29	애틀랜타	A-	80.0	58	상트페테르부르크	C	66.3
30	서울	B+	79.8	60	테살로니키	C	66.1
				61	마닐라	C	64.4

자료 : Martin Prosperity Institute, 2013, Creative and Diverse: Ranking Global Cities.

4) 주요 도시와 비교한 서울의 창조계층 비중은 중하위권

MPI는 인재 점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창조계층 비중을 도시별로 발표하고 있다. 다만 창조계층 비중이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해당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 수치도 사용되었으며, 비교 연도가 통일되지 않고 도시별로 다양하게 사용된 점은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창조계층 비중을 국가 간 비교가 아닌 도시별로 비교하여 수치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의 창조계층 비중은 플로리다의 직업기반 분류에 의해 작성되었으나, 시점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MPI에서 조사해 발표한 서울의 창조계층 비중은 29.0%로 B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창조계층 비중이 누락된 7개 도시를 제외하고 창조계층 비중만으로 순위를 다시 구해보면, 서울은 54개 도시 중 36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1위인 오슬로의 창조계층 비중은 46.8%로 나타났으며, 9위까지가 모두 40%대의 수치를 보여 서울의 창조계층 비중은 상위권 도시들과 큰 격차를 보인다.



[그림 2-1] 해외 주요도시의 창조계급 비중 및 등급

[표 2-3] 해외 주요도시의 창조계층 비중 및 순위(2013)

순 위	도시	창조계층 비중	순 위	도시	창조계층 비중
1	오슬로	46.8%	28	모스크바	34.0%
2	시드니	46.3%	29	토론토	33.0%
3	암스테르담	46.2%	30	빈헨	33.0%
4	로테르담	46.2%	31	휴스턴	33.0%
5	컬럼비아 특별구	46.0%	32	케이프타운	32.8%
6	오타와-가티노	45.9%	33	코펜하겐	31.1%
7	텔아비브야파	43.6%	34	마이애미	30.4%
8	파리	43.1%	35	에드먼턴	29.9%
9	싱가포르	41.8%	36	서울	29.0%
10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39.4%	37	이스탄불	29.0%
11	헤파	38.7%	38	요하네스버그	28.0%
12	시애틀	37.6%	39	도쿄	27.8%
13	몬트리올	37.1%	40	베이징	25.9%
14	런던	37.0%	41	타이베이	25.3%
15	볼티모어	37.0%	42	수원	24.6%
16	글래스고	36.6%	43	메데인	23.5%
17	예루살렘	36.6%	44	리옹	21.1%
18	캘거리	36.3%	45	테살로니키	20.5%
19	샌디에이고	36.0%	46	발렌시아	20.4%
20	애틀랜타	36.0%	47	심천(深圳)	20.1%
21	뉴욕-뉴어크	35.8%	48	상하이	19.1%
22	퀘벡 시티	35.1%	49	마닐라	18.7%
23	멜버른	35.0%	50	멕시코시티	18.5%
24	양카라	34.7%	51	상파울루	18.5%
25	밴쿠버	34.4%	52	부산	17.7%
26	LA-롱비치-산타아나	34.0%	53	마르세유-프로방스	16.9%
27	상트페테르부르크	34.0%	54	두바이	6.6%

자료 : Martin Prosperity Institute, 2013, Creative and Diverse: Ranking Global Cities에서 재구성

## 2\_창조계층의 유형과 통계적 분류

### 1) 창조계층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플로리다(2002)는 원래 창조계층을 슈퍼 창조핵심(super-creative core)과 창조적 전문가(creative professional)의 두 가지로 구분했으나, 슈퍼 창조핵심에 해당하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헤미안(bohemian)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구분한 후 보헤미안 지수를 작성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조계층은 일반적으로 슈퍼 창조핵심 계층 중 보헤미안을 제외한 핵심 창조계층(creative core), 창조적 전문가(creative professionals), 보헤미안(bohemian) 등 3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창조계층을 분류한 대표적인 연구는 Boschma and Fritsch(2009), Fritsch and Stuetzner(2012) 등을 들 수 있다.

핵심 창조계층은 기본적으로 과학자 등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쉽게 전파되고 유용하게 쓰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 등을 만들어 내는 계층이다. 창조적 전문가가는 법률, 의료 관련 직종 등에 종사하며,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지식체계에 의존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계층이다. 보헤미안은 작가, 디자이너, 배우 등 문화와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한 도시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력을 보여준다.

[표 2-4] 창조계층의 유형과 개념

구분	개념	종사분야
핵심 창조계층	쉽게 전파되고 유용하게 쓰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 등을 창출하는 계층	과학자, 엔지니어, 대학교수, 연구원, 분석가, 논평가 등
창조적 전문가	복합적인 지식을 다루며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계층	경영, 금융서비스, 법률, 보건·의료 관련 직종 등
보헤미안	문화와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도시의 관용문화를 대표	문화·예술, 연예, 미디어 관련 직종 등

자료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Basic Books; Boschma, R. A. and Fritsch, M., 2009, "Creative class and regional growth : Empirical evidence from seven European countries", Economic Geography, vol.85, no.4

## 2) 창조계층의 통계적 분류

Boschma and Fritsch(2009), Fritsch and Stuetzer(2012) 등은 플로리다의 개념에 따라 3가지 창조계층 유형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표 2-5]와 같이 각 그룹에 해당되는 직업을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1988)에 맞추어 분류했다.

[표 2-5] 국제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창조계층 인력 분류

분류	분야	국제표준직업분류(ISCO_88)
핵심 창조계층	컴퓨터, 수학 관련 직업, 건축가 및 엔지니어링, 생명과학, 물리, 사회과학, 교육 분야 관련 직업	컴퓨터서비스관리자(1236), 연구개발관리자(1237), 물리학 및 화학 관련 전문가(211), 수학 및 통계관련 전문가(212), 컴퓨터 전문가(213), 건축가 및 엔지니어(214), 생명과학자(221), 전문대, 대학 등 고등교육 교수 전문가(231), 중등교육 교사 전문가(232), 초등교육 및 취학전 교육 교사 전문가(233), 특수 교육 교사 전문가(234), 기타 교육 전문가(235), 기록원, 사서 및 관련 정보 전문가(243), 사회과학 및 관련 전문가(244), 초등교육 및 취학 전 교육 준전문가(331, 3320), 특수교육 준전문가(3330), 기타 교육 준전문가(3340), 통계, 수학 관련 준전문가(3434), 귀금속 관련 기술공(7313), 유리, 자기 관련 기술공(732), 양복, 양장 및 모자 제조원(7433)
창조적 전문가	경영, 관리, 법률, 금융, 의료 관련 직업	입법가, 고위 공무원 및 관리자(1, 1236, 1237 제외), 보건 의료 전문가(222), 비즈니스전문가(241), 법률전문가(242), 공공서비스행정전문가(247), 물리 및 공학 준전문가(31), 방송통신 장비 기술가(3132), 생명과학 및 보건의료 준전문가(32), 금융 및 판매 준전문가(341), 사업서비스 대리인 및 중개인(342), 법률 및 비즈니스관련 준전문가(3432), 운동선수 및 체육계관련 준전문가(3475), 악기제작 및 조율사(7312), 목재 제품 제작 기술자(7331), 섬유, 가죽관련 제품 제작 기술사(7332)
보헤미안	문화·예술, 연예, 미디어 관련 직업	작가, 창작 및 공연예술가(245), 사진사, 이미지 음향 녹음 장비 기술자(3131), 예술, 연예 및 스포츠 준전문가(347), 패션 및 기타모델(521)

주 : ( ) 안은 국제표준직업분류 코드

자료 : Florida, R., 2004, Cities and Creative class, Routledge; Fritsch, M., and Stuetzer, M., 2012, The geography of creative people in Germany revisited, Jena Economic Research papers.

이 연구에서 창조계층 분류는 Fritsch and Stuetzer(2012)의 방식을 활용했다. Fritsch and Stuetzer(2012)가 제시한 [표 2-5]는 1987년에 개정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ISCO-88을 2007년 12월 기준으로 적용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와 연계한 다음, 이를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와 다시 연계했다. 뒤에 서술된 자료집합의 특성상 지역단위에서는 직업코드가 중분류까지만 제공되므로 이 연구에서 사용할 창조계층 전체와 유형별 직업코드는 중분류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지역별고용조사 A형은 직업 및 산업 중분류로 시도별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세분류로 정의된 국제표준직업분류를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연계한 후 중분류 수준에서 다시 선별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창조계층의 직업코드는 [표 2-6]에 제시하였다.

[표 2-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창조계층 인력 분류

분류	직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기준)	
핵심 창조계층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5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창조적 전문가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보헤미안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창조계층의 최종 분류결과를 보면, 핵심 창조계층은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21),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23),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25)으로 정의된다. Fritsch and Stuetzer(2012)의 창조계층 직업분류를 KSCO 세세분류와 연계하면,

핵심 창조계층에 연구관리자(1311), 조사전문가(2734), 통역가(2813),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2821),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2822), 통계관련 사무원(3910), 결혼상담원 및 웨딩 플래너(4231), 기타 의복 제조원(7229), 간판 제작 및 설치원(7034)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을 핵심 창조계층으로 포함시킬 경우 해당 중분류가 모두 포함되어 통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플로리다의 정의에 부합하는 직업코드를 중심으로 중분류 차원에서 선별했다.

창조적 전문가는 공공 및 기업 고위직(11),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12), 전문서비스 관리직(13),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14),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15),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4), 법률 및 행정 전문직(26),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27)으로 정의된다. Fritsch and Stuetzer(2012)의 창조계층 직업분류를 KSCO 세세분류와 연계하면 포함되지만, 중분류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직종은 제외되었다.<sup>21)</sup>

그리고 보헤미안 계층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으로 정의된다. 세세분류 차원에서 보면, 보헤미안 계층도 광고 및 홍보전문가(2733), 제품 및 광고 영업원(5102) 등의 직업분류가 포함되지만 중분류 기준으로 코드를 선별하면서 제외되었다.

기존 선행연구도 창조계층의 유형분류는 달라도 중분류상으로는 동일한 직업코드를 선정하여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영수(2013)와 구문모·박정수(2013, 2014)의 연구에서도 이 연구와 유사한 분류로 정의되고 있다. 차이점은 김영수(2013)에서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4)’이 핵심 창조계층에 포함되어 있고, 구문모·박정수(2013, 2014)에서는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을 보헤미안이 아닌 핵심 창조계층으로 분류했다는 점이다.

21) 제외된 직종은 생명과학 연구원(2111), 생명과학 시험원(2131), 농림어업관련 시험원(2132), 정보시스템 운영자(2230),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2240), 건설자재 시험원(2316), 금속·재료공학 시험원(2332),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시험원(2354),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2362), 항공기 조정사(2371),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2372), 관제사(2373), 식품·섬유공학 및 에너지 시험원(2395), 캐드원(2396), 무역사무원(3125), 금융관련 사무원(3203), 법률관련 사무원(3301), 감사사무원(3302), 여행사무원(3921), 기타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원(4291), 자동차 영업원(5101), 보험 설계사 및 간접 투자증권 판매인(5103), 목제품 제조관련 조사원(7301),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기타 건설관련 기능 종사원(7729), 공예원(7911),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7912), 기타 기능관련 종사원(7999),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8530) 등이다.



[표 2-7] 국내 선행연구의 창조계층 분류

김영수(2013)			구문모·박정수(2013, 2014)		
핵심 창조계층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핵심 창조계층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25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창조적 전문가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창조적 전문가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보헤미안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 3) 통계분석 자료

서울시 창조계층의 통계적 산출을 위한 자료집합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고용조사(A형)’를 사용했다. 지역별고용조사 A형 자료는 행정구역은 시군 단위, 산업코드 및 직업코드는 중분류 수준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되는 직업분류 기준은 중분류 단위이며, 산업별 분석은 중분류와 함께 이를 토대로 재분류해 대분류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창조계층의 선별을 위해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의 ‘직업코드’ 지표를 기준으로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등 3가지 창조계층 유형을 구분하고, 이 3개 유형을 합해 전체 ‘창조계층’을 구했다.

분석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고용조사에서 분기 자료는 3분기가, 반기 자료는 하반기 자료가 연간 자료의 대표성을 가진다. 따라서 2008~2012년<sup>22)</sup>은 3분기 자료를, 2013년은 하반기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에 사

22) 예외적으로 2011년은 노동행태적 특성에서 근로시간을 분석할 때 2분기 자료를 사용했다. 2011년 3분기 자료는 조사기간과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전국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전년에 비해 17시간 적은 28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활용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용된 지표는 크게 행정구역, 4주 내 구직활동 여부, 성별, 연령, 학력수준, 근로시간, 직업 코드, 종사상 지위, 임금, 사·도 및 전국 가중치,<sup>23)</sup> 산업코드 등 11개 지표이며, 이 11개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에 필요한 추가 지표를 생성하여 사용했다.

[표 2-8] 창조계층 분석에 사용된 측정지표

사용지표	분석 항목
행정구역	- 고용수준 및 추이(16개 시·도별)
4주 내 구직활동 여부	- 취업자 구분
성별	-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
연령	-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
학력수준	-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
근로시간	- 노동행태적 특성 분석
직업코드	- 고용수준 및 추이(16개 시·도별) -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 - 노동행태적 특성 분석 - 산업별 특성 분석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 구분
월평균 임금	- 노동행태적 특성 분석
사·도 및 전국 가중치	- 고용수준 및 추이(16개 시·도별) - 인구통계적 특성 분석 - 노동행태적 특성 분석 - 산업별 특성 분석
산업코드	- 산업별 특성 분석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이 연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취업자 수는 ‘사·도 및 전국 가중치’와 ‘4주 내 구직활동 여부’를 통해 추정 가능하다. ‘사·도 및 전국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경제활동인구와 동일한 수치가 구해지며,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의 집계기준에 따라 ‘4주 내 구직활동 여부’가 0인 경우를 활용해 취업자를 판별할 수 있다.

23)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16개 시·도 및 전국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전국 가중치를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표 2-9] 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분류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실업자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는 월별 수치를 제공하고 있기에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의 시점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 기준도 달라진다. 이에 따라 지역별고용조사에서 2010년과 2011년은 9월, 나머지 해는 10월이 조사 기준이 된다.

이 연구의 모집단이 되는 2013년 10월 전국의 취업자 수는 2,554만여 명이고, 서울의 취업자 수는 515만여 명이다. 2008년부터 2013년 중 전국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4%였으나 서울의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취업자 수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23,846,760	23,856,302	24,053,712	24,317,525	25,003,052	25,544,845
서울	4,908,144	4,840,407	4,960,295	4,979,369	5,056,493	5,155,512
기준 월	2008. 10	2009. 10	2010. 09	2011. 09	2012. 10	2013. 10

# 03

---

##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실태와 특성 분석

- 1\_창조계층의 고용수준 및 추이 분석
- 2\_창조계층의 인구통계적·노동행태적 특성 분석
- 3\_창조계층의 산업별 특성 분석
- 4\_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 분석

## 03 |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실태와 특성 분석

### 1\_창조계층의 고용수준 및 추이 분석

1) 서울의 창조계층 규모는 16개 시·도 중 1위

(1) 전국의 창조계층 종사자 수는 약 544만 명 수준

2013년 전국의 창조계층 종사자 수는 543만 8,419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창조계층 중에서는 핵심 창조계층이 256만 3,313명으로 가장 많고, 창조적 전문가는 232만 9,710명, 보헤미안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54만 5,39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핵심 창조계층이 10.0%이며, 창조적 전문가는 9.1%, 보헤미안은 2.1% 수준이다.

[표 3-1] 시도별 창조계층 및 유형별 종사자 수(2013)

(단위 : 명)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전국	2,563,313	2,329,710	545,395	5,438,419	20,106,427	25,544,845
서울	658,133	606,034	227,036	1,491,204	3,664,309	5,155,512
부산	159,618	156,655	22,187	338,460	1,299,921	1,638,382
대구	117,295	112,773	16,210	246,278	953,208	1,199,486
인천	128,445	116,739	32,101	277,285	1,194,526	1,471,811
광주	78,852	67,112	10,679	156,643	564,359	721,002
대전	95,319	82,634	9,987	187,941	560,522	748,462
울산	53,487	39,484	4,395	97,366	449,053	546,420
경기	739,843	590,886	155,290	1,486,019	4,654,513	6,140,532
강원	53,054	59,534	6,313	118,902	603,147	722,048
충북	49,041	54,670	10,222	113,932	695,968	809,900
충남	72,610	71,185	9,038	152,832	1,024,032	1,176,864
전북	64,965	87,799	11,216	163,981	738,657	902,638
전남	40,947	49,605	4,850	95,402	838,730	934,132
경북	90,951	80,129	7,610	178,691	1,244,473	1,423,164
경남	139,310	132,057	14,446	285,813	1,357,412	1,643,225
제주	21,441	22,415	3,815	47,671	263,597	311,267

주 : 합계는 가중치 적용으로 끝자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

창조계층 산출에 사용한 ‘지역별고용조사 A형’은 직업코드를 중분류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분류나 세분류 단위로 구분해 산출할 때보다 과대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sup>24)</sup> 소분류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창조계층 규모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단위에서 직업코드를 소분류로 제공하는 ‘지역별고용조사 B형’과 ‘지역별고용조사 A형’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국의 창조계층 규모는 중분류 기준(A형) 543만 8,419명, 소분류 기준(B형) 542만 6,161명으로 중분류 기준이 12,258명 더 많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볼 때,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은 동일하고, 핵심 창조계층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분류 기준과 소분류 기준 모두 21.3%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창조계층을 중분류 기준으로 재분류해 분석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전국 창조계층 산출의 소분류와 중분류 기준 비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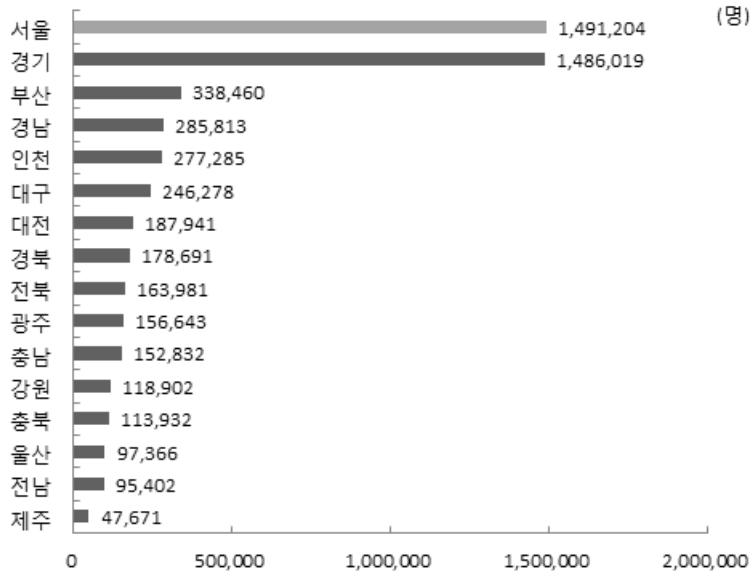
중분류(지역별고용조사 A형)			소분류(지역별고용조사 B형)		
구분	종사자 수	비중	구분	종사자 수	비중
핵심 창조계층	2,563,313	10.0	핵심 창조계층	2,551,056	10.0
창조적 전문가	2,329,710	9.1	창조적 전문가	2,329,710	9.1
보헤미안	545,395	2.1	보헤미안	545,395	2.1
창조계층	5,438,419	21.3	창조계층	5,426,161	21.3
비창조계층	20,106,427	78.7	비창조계층	20,106,427	78.7
합계	25,544,845	100.0	합계	25,532,588	100.0

주 : 합계는 가중치 적용으로 끝자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

## (2) 서울의 창조계층은 약 149만 명으로 전국의 27%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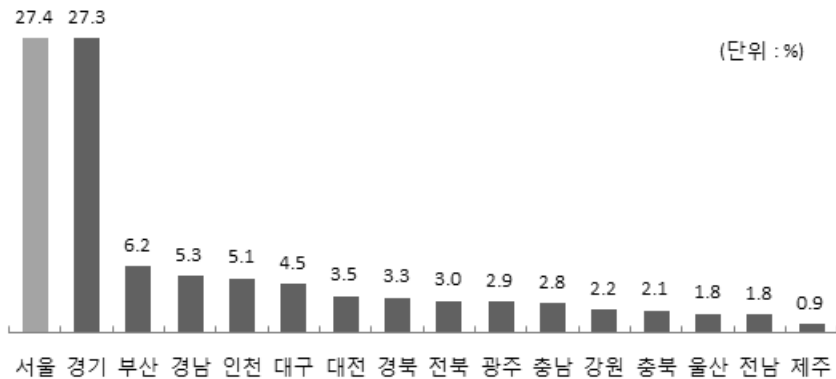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종사자 수는 149만 1,204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148만 6,019명으로 서울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고, 부산이 33만 8,460명, 경남이 28만 5,813명 등의 순이며, 제주도가 4만 7,671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규모가 작다. 전반적으로 16개 시도의 창조계층 인력 규모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2강 14약’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sup>24)</sup>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직업분류를 세분류 단위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그림 3-1] 16개 시·도별 창조계층의 종사자 수 비교(2013)

이를 전국에서 각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절반 이상인 54.7%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서울이 전국 창조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1위이고, 경기도는 서울보다 약간 작은 27.3%로 2위를 기록했다. 3위인 부산이 6.2%에 불과할 정도로 두 지역이 전국 창조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16개 시·도 중 제주도의 비중은 0.9%로 유일하게 1% 미만을 기록했고, 울산, 전남 등도 1%대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 전국 내 창조계층의 시·도별 종사자 수 비중(2013)

창조계층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등으로 구분한 이들 각 유형에서 16개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의 비중은 서울이 높은 반면, 핵심 창조계층은 경기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서울의 핵심 창조계층은 65만 8,133명으로 전국의 25.7%를 차지하는 데 비해, 경기도 비중은 28.9%(73만 9,843명)로 서울보다 약 3.2%p 높은 수준이다. 반면 창조적 전문가는 서울이 60만 6,034명으로 전국 내 비중이 26.0%로 경기도(59만 886명)의 25.4%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보헤미안 인력은 22만 7,036명으로 전국 내 비중이 41.6%로 2위인 경기도(15만 5,290명, 28.5%)를 비롯한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표 3-3] 창조계층의 각 유형 내 시·도별 종사자 수 비중(2013)

(단위 : %)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전국	100.0	100.0	100.0	100.0
서울	25.7	26.0	41.6	27.4
부산	6.2	6.7	4.1	6.2
대구	4.6	4.8	3.0	4.5
인천	5.0	5.0	5.9	5.1
광주	3.1	2.9	2.0	2.9
대전	3.7	3.5	1.8	3.5
울산	2.1	1.7	0.8	1.8
경기	28.9	25.4	28.5	27.3
강원	2.1	2.6	1.2	2.2
충북	1.9	2.3	1.9	2.1
충남	2.8	3.1	1.7	2.8
전북	2.5	3.8	2.1	3.0
전남	1.6	2.1	0.9	1.8
경북	3.5	3.4	1.4	3.3
경남	5.4	5.7	2.6	5.3
제주	0.8	1.0	0.7	0.9



### (3) 서울의 창조계층 집중도는 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

창조계층이 전국 평균보다 서울에 더 집중된 것은 입지상(LQ; Location Quotient)<sup>25)</sup>으로도 파악된다. 입지상을 이용해 창조계층의 지역별 집중도를 파악한 연구는 Fritsch and Stuetzer(2012)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입지상을 이용해 독일 내 지역에서 창조계층의 집중도를 파악했다. 입지상이 1보다 크면 특정지역 내 해당 직종이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집중도가 높고, 1보다 작으면 집중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지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LQ_i = \frac{e_i^r / e^r}{E_i^n / E^n},$$

여기서,  $e_i^r$  : 지역  $r$ 의  $i$ 직종 인력 수,  $e^r$  : 지역  $r$ 의 전 직종 인력 수,

$E_i^n$  : 전국의  $i$ 직종 인력 수,  $E^n$  : 전국의 전 직종 인력 수

2008년 서울의 창조계층 집중도는 1.4로 전국 평균에 비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지역 중에 1이 넘는 곳은 대전(1.3), 광주(1.2), 경기(1.1)뿐이고, 부산, 대구, 인천 등은 평균 수준,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모두 집중도가 전국 평균 수준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창조계층 유형별로 모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중 보헤미안의 입지상은 2.1로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경기도는 창조적 전문가의 집중도는 보통 수준이나,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이 모두 1.2로 전국 평균에 비해 집중되어 있다.

시계열적으로 보면,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집중도는 1.4로 2008년과 차이가 없다. 유형별로 보면,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의 집중도는 각각 1.3, 2.1로 2008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핵심 창조계층의 집중도가 1.2에서 1.3으로 다소 높아졌다. 서울 이외의 지역을 보면, 2008년 집중도가 1.3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대전이 1.1로 하락했고, 광주 역시 1.2에서 1.0으로 하락한 반면, 경기도는 1.1에서 1.2로 다소 상승했다.

<sup>25)</sup> 입지상은 원래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 얼마나 강하게 집중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표 3-4] 시·도별 창조계층의 입지상(2008)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서울	1.2	1.3	2.1	1.4
부산	1.0	1.0	0.7	1.0
대구	1.0	1.0	0.6	1.0
인천	0.9	1.0	0.9	1.0
광주	1.2	1.4	0.7	1.2
대전	1.4	1.2	1.1	1.3
울산	0.9	0.7	0.4	0.8
경기	1.2	1.0	1.2	1.1
강원	0.7	0.8	0.5	0.7
충북	0.8	0.7	0.3	0.7
충남	0.6	0.7	0.3	0.6
전북	0.7	0.7	0.5	0.7
전남	0.5	0.6	0.3	0.6
경북	0.7	0.6	0.3	0.6
경남	0.8	0.7	0.3	0.7
제주	0.8	0.7	0.6	0.7

[표 3-5] 시·도별 창조계층의 입지상(2013)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서울	1.3	1.3	2.1	1.4
부산	0.9	1.0	0.6	0.9
대구	0.9	1.0	0.6	0.9
인천	0.9	0.9	1.0	0.9
광주	1.0	1.0	0.7	1.0
대전	1.2	1.2	0.6	1.1
울산	0.9	0.8	0.4	0.8
경기	1.2	1.1	1.2	1.2
강원	0.7	0.9	0.4	0.7
충북	0.6	0.8	0.6	0.7
충남	0.7	0.7	0.4	0.6
전북	0.7	1.1	0.6	0.8
전남	0.5	0.6	0.3	0.5
경북	0.7	0.6	0.3	0.6
경남	0.8	0.9	0.4	0.8
제주	0.8	0.9	0.6	0.8

#### (4) 서울의 전체 취업자 중 28.9%가 창조계층 인력

지금까지는 전국의 창조계층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창조계층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지역별 전체 취업자 중에서 창조계층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창조계층 규모가 작아도 지역 내 비중이 클 경우 지역의 고용구조가 창조계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3년 서울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창조계층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8.9%로 2장에서 분석한 해외 주요도시의 창조계층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도시와 비교해 서울의 고용구조가 아직 창조경제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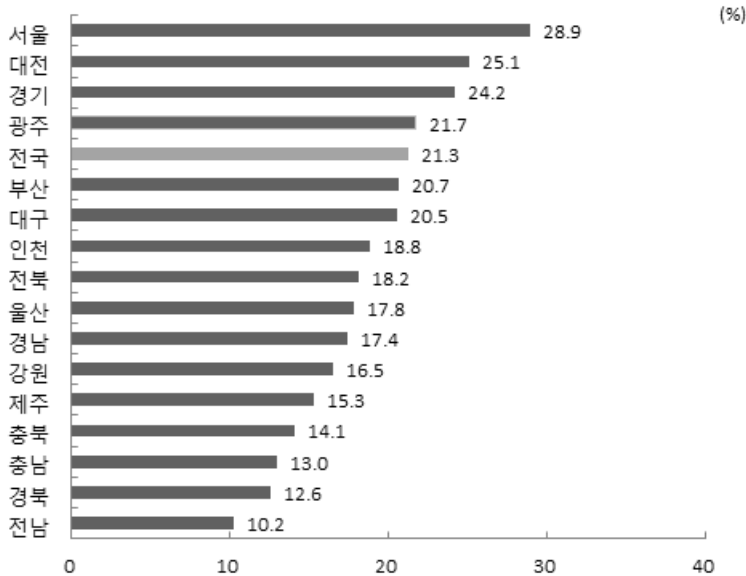
[표 3-6] 각 시·도 내 전체 취업자 중 창조계층 및 유형별 비중(2013)

(단위 : %)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전국	10.0	9.1	2.1	21.3	78.7	100.0
서울	12.8	11.8	4.4	28.9	71.1	100.0
부산	9.7	9.6	1.4	20.7	79.3	100.0
대구	9.8	9.4	1.4	20.5	79.5	100.0
인천	8.7	7.9	2.2	18.8	81.2	100.0
광주	10.9	9.3	1.5	21.7	78.3	100.0
대전	12.7	11.0	1.3	25.1	74.9	100.0
울산	9.8	7.2	0.8	17.8	82.2	100.0
경기	12.0	9.6	2.5	24.2	75.8	100.0
강원	7.3	8.2	0.9	16.5	83.5	100.0
충북	6.1	6.8	1.3	14.1	85.9	100.0
충남	6.2	6.0	0.8	13.0	87.0	100.0
전북	7.2	9.7	1.2	18.2	81.8	100.0
전남	4.4	5.3	0.5	10.2	89.8	100.0
경북	6.4	5.6	0.5	12.6	87.4	100.0
경남	8.5	8.0	0.9	17.4	82.6	100.0
제주	6.9	7.2	1.2	15.3	8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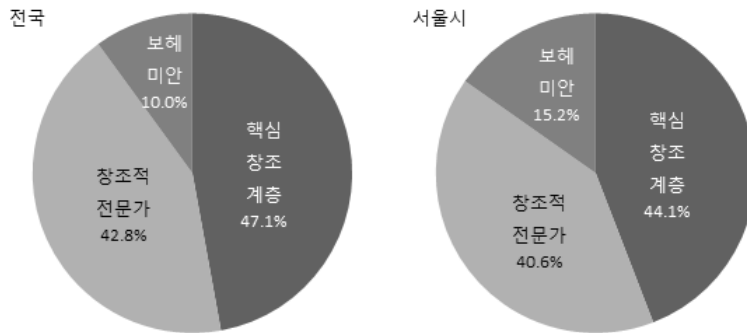
다만, 서울의 창조계층 비중은 16개 시도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이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고용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비중은 전국 평균(21.3%)을 7.6%p 상회할 뿐 아니라 창조계층 규모가 2위인 경기도와 비교해도 4.7%p 높고, 16위인 전남보다 18.7%p나 높은 수준이다. 16개 시도의 창조계층 비중을 보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은 서울, 대전, 경기, 광주 등 단 4개 지역에 불과하고, 다른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분석했던 창조계층 규모와 지역 내 창조계층의 비중 순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창조계층 규모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인천, 대구, 대전, 경북, 전북, 광주, 충남, 강원, 충북, 울산, 전남, 제주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지역 내 창조계층 비중은 서울, 대전, 경기, 광주, 부산, 대구, 인천, 전북,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충북, 충남, 경북, 전남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특히 창조계층 규모가 서울과 유사했던 경기도가 지역 내 창조계층 비중은 24.2%로 3위로 하락했고, 대전의 창조계층 규모는 7위로 중위권이었으나 창조계층 비중은 25.1%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경기도가 전체 취업자 중 비창조계층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창조계층보다는 창조계층에 집중된 고용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3] 각 시도 내 창조계층 종사자 수 비중(2013)

창조계층의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서울은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가 각각 44.1%, 40.6%, 보헤미안이 15.2%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헤미안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시·도를 보면, 창조계층 구조는 대체적으로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의 구성이 비슷하며, 보헤미안 비중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림 3-4]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별 구성비(2013)

[표 3-7] 각 시·도 내 창조계층의 구성비(2013)

(단위 : %)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전국	47.1	42.8	10.0	100.0
서울	44.1	40.6	15.2	100.0
부산	47.2	46.3	6.6	100.0
대구	47.6	45.8	6.6	100.0
인천	46.3	42.1	11.6	100.0
광주	50.3	42.8	6.8	100.0
대전	50.7	44.0	5.3	100.0
울산	54.9	40.6	4.5	100.0
경기	49.8	39.8	10.5	100.0
강원	44.6	50.1	5.3	100.0
충북	43.0	48.0	9.0	100.0
충남	47.5	46.6	5.9	100.0
전북	39.6	53.5	6.8	100.0
전남	42.9	52.0	5.1	100.0
경북	50.9	44.8	4.3	100.0
경남	48.7	46.2	5.1	100.0
제주	45.0	47.0	8.0	100.0

## (5) 서울의 창조계층 중 임금근로자 규모는 약 124만 명

2013년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창조계층 중 임금근로자는 448만 8,390명이며, 이 중 핵심 창조계층이 218만 5,587명으로 가장 많고, 창조적 전문가는 191만 5,816명, 보헤미안은 38만 6,987명에 달한다.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중 임금근로자는 123만 6,146명이며, 이 중 핵심 창조계층이 57만 1,034명으로 전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고, 창조적 전문가 49만 7,336명, 보헤미안 16만 7,776명으로 나타났다.

[표 3-8] 시·도별 창조계층의 임금근로자 규모(2013)

(단위 : 명)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전국	2,185,587	1,915,816	386,987	4,488,390	14,000,965	18,489,355
서울	571,034	497,336	167,776	1,236,146	2,820,424	4,056,570
부산	129,795	123,417	13,894	267,106	948,848	1,215,954
대구	92,718	89,659	11,865	194,241	664,245	858,486
인천	111,717	92,321	22,760	226,798	908,304	1,135,102
광주	65,617	56,525	7,914	130,056	392,670	522,725
대전	81,652	69,476	6,939	158,066	418,421	576,487
울산	46,964	33,257	3,653	83,874	357,544	441,418
경기	640,049	489,724	107,061	1,236,834	3,473,063	4,709,898
강원	44,351	52,061	4,390	100,802	368,131	468,933
충북	40,620	47,079	6,219	93,917	437,893	531,810
충남	59,581	59,344	6,087	125,012	636,572	761,584
전북	52,167	72,657	8,654	133,479	444,985	578,464
전남	34,484	43,106	3,282	80,872	427,683	508,556
경북	76,038	67,300	4,965	148,303	691,186	839,489
경남	121,207	104,707	9,605	235,520	852,607	1,088,127
제주	17,593	17,846	1,923	37,363	158,389	195,752

2013년 전국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2.4%이지만, 창조계층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82.5%로 비창조계층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이 월등히 높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도 유사하다. 2013년 서울의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8.7%인 데 비해 창조계

층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82.9%로 높은 편이다. 이를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보다 보헤미안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서울의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그리고 보헤미안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각각 86.8%, 82.1%, 73.9%이다. [표 3-9]를 보면, 이러한 특징은 울산, 전북 등 다소 수준 차이는 있으나 16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헤미안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북 등 6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70% 미만으로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은 창조적 전문가 중 임금근로자 비중이 전국과 유사한 반면,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은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표 3-9] 시도별 창조계층의 각 유형 내 임금근로자 비중(2013)

(단위 : %)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전체 취업자
전국	85.3	82.2	71.0	82.5	69.6	72.4
서울	86.8	82.1	73.9	82.9	77.0	78.7
부산	81.3	78.8	62.6	78.9	73.0	74.2
대구	79.0	79.5	73.2	78.9	69.7	71.6
인천	87.0	79.1	70.9	81.8	76.0	77.1
광주	83.2	84.2	74.1	83.0	69.6	72.5
대전	85.7	84.1	69.5	84.1	74.6	77.0
울산	87.8	84.2	83.1	86.1	79.6	80.8
경기	86.5	82.9	68.9	83.2	74.6	76.7
강원	83.6	87.4	69.5	84.8	61.0	64.9
충북	82.8	86.1	60.8	82.4	62.9	65.7
충남	82.1	83.4	67.4	81.8	62.2	64.7
전북	80.3	82.8	77.2	81.4	60.2	64.1
전남	84.2	86.9	67.7	84.8	51.0	54.4
경북	83.6	84.0	65.2	83.0	55.5	59.0
경남	87.0	79.3	66.5	82.4	62.8	66.2
제주	82.1	79.6	50.4	78.4	60.1	62.9

## 2) 서울의 창조계층 증가세는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상회

### (1) 지난 5년간 서울의 창조계층은 연평균 2.3% 증가

서울의 창조계층은 2008년 133만 647명에서 2013년 149만 1,204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2.6%)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창조계층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은 전북으로 연평균 7.3% 증가했고, 경남(5.7%), 충남(3.9%), 울산(3.4%), 경기(3.3%), 강원(2.8%) 등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난 5년간 창조계층이 늘어났으나, 광주(-0.2%)와 전남(-1.6%)은 하락세를 기록해 대조적이다.

【표 3-10】 시도별 창조계층의 규모 추이(2008~2013)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4,779,226	4,901,940	4,763,477	5,032,400	5,264,757	5,438,419	2.6
서울	1,330,647	1,323,518	1,275,519	1,375,533	1,413,514	1,491,204	2.3
부산	300,932	287,993	269,033	265,209	312,837	338,460	2.4
대구	220,848	231,922	222,245	227,713	245,639	246,278	2.2
인천	247,939	269,192	246,003	262,641	289,878	277,285	2.3
광주	158,575	157,747	145,695	150,445	147,626	156,643	-0.2
대전	181,541	167,242	160,554	171,973	185,143	187,941	0.7
울산	82,442	84,857	87,737	88,413	94,170	97,366	3.4
경기	1,263,866	1,329,202	1,340,405	1,432,158	1,486,045	1,486,019	3.3
강원	103,441	102,754	101,202	106,175	117,302	118,902	2.8
충북	109,259	118,978	123,111	123,970	108,967	113,932	0.8
충남	125,944	132,085	129,553	127,843	144,591	152,832	3.9
전북	115,229	126,481	116,369	133,512	152,324	163,981	7.3
전남	103,239	105,131	103,032	102,328	105,855	95,402	-1.6
경북	176,313	177,540	170,841	178,155	184,989	178,691	0.3
경남	216,558	242,542	225,807	235,677	231,800	285,813	5.7
제주	42,454	44,756	46,372	50,655	44,077	47,671	2.3



서울의 창조계층 증가세와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창조계층의 증가세가 취업자 증가세를 상회하여 서울의 고용 증가는 창조계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한 해를 제외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창조계층의 고용증가율은 전체 취업자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한다. 특히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증가율은 5.5%로 전체 취업자 증가율을 3.5%p나 상회하였다. 2008~2013년 중 서울의 창조계층 연평균 증가율도 전체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을 1.3%p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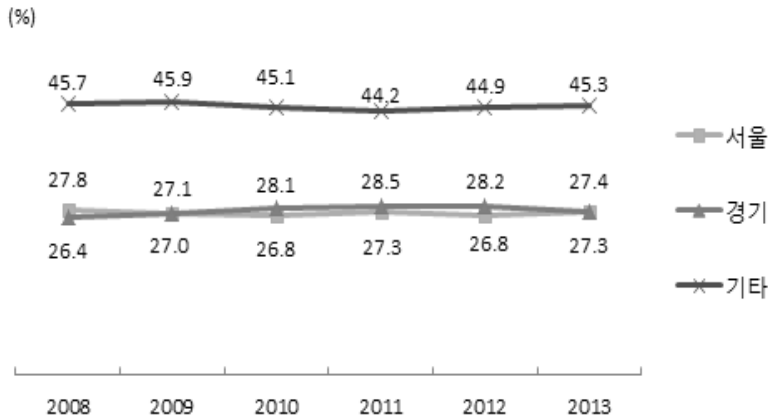
[표 3-11] 서울과 전국의 창조계층 증가세와 전체 취업자 증가세 비교(2008~2013)

(단위 : %, %p)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서울	취업자(A)	-1.4	2.5	0.4	1.5	2.0	1.0
	창조계층(B)	-0.5	-3.6	7.8	2.8	5.5	2.3
전국	취업자(C)	0.0	0.8	1.1	2.8	2.2	1.4
	창조계층(D)	2.6	-2.8	5.6	4.6	3.3	2.6
격차	B-A	0.9	-6.1	7.4	1.3	3.5	1.3
	D-C	2.6	-3.6	4.5	1.8	1.1	1.2

한편, 지난 5년간 전국 창조계층에서 차지하는 서울의 비중 추이를 보면 27%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다. 소폭이지만 전국 창조계층 내 서울의 비중은 2008년 27.8%를 고점으로 2년 연속 축소되다가 2011년부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비중은 27.4%로 2008년 대비 0.4%p 축소된 수준이다.

서울은 경기도와 더불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전국 창조계층 인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서울의 비중이 다소 낮아지면서 2009~2012년 중에는 경기도의 비중이 서울을 상회하였다. 그러다가 2013년에 서울의 창조계층 비중이 다시 경기도를 앞서기 시작하였다. 전반적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지역은 없는 실정이다.



[그림 3-5] 서울과 경기의 전국 창조계층 내 비중 추이

## (2) 창조계층 유형 중에서는 보헤미안의 증가세가 가장 큰 편

서울의 핵심 창조계층은 2008년 62만 401명에서 2013년 65만 8,13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연평균 1.2% 증가했다. 전국의 핵심 창조계층은 2008년 243만 5,347명에서 256만 3,313명으로 연평균 1.0% 증가했다. 16개 시도 중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경남(3.3%), 충남(2.9%), 전북(2.4%), 울산(2.4%), 경기(1.8%) 등 6개 지역이다. 이외에 다른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증가세가 낮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의 창조적 전문가는 2008년 53만 4,424명에서 2013년 60만 6,034명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5% 증가했다. 반면, 전국의 창조적 전문가는 2008년 192만 7,642명에서 2013년 232만 9,710명으로 연평균 3.9% 증가했다. 서울의 창조적 전문가 증가세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다소 낮은 편이다.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전북으로 2008년 5만 99명에서 2013년 8만 7,799명으로 연평균 11.9% 증가했다. 16개 시도 중 서울보다 증가율이 낮은 곳은 인천(2.2%), 경북(1.8%), 전남(0.5%), 광주(-1.2%) 등 4개 지역뿐이다. 서울이 다른 지역과 달리 창조적 전문가의 규모가 큰 점도 있고, 다른 지역은 규모가 워낙 작아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서울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서울의 고용흡수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 보헤미안 인력은 2008년 17만 5,822명에서 2013년 22만 7,036명으로 연평균 5.2% 증가해 창조계층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3년 서울시 보헤미안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6%이고, 지난 5년간 보헤미안 비중도 40% 내외를 유지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서울의 보헤미안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보헤미안 인력 증가세가 5%대로 높은 것은 소득증가에 따른 문화예술의 소비욕구 증대 등으로 이 분야의 고용확대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보헤미안 인력의 높은 증가세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인 점에서도 확인된다. 일부 부진한 지역도 있으나 전국의 보헤미안은 2008년 416,237명에서 2013년 54만 5,395명으로 연평균 5.6% 증가했다. 특히 충북의 보헤미안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0.1%에 달하며, 경남(9.5%), 인천(9.4%), 전북(8.7%), 충남(8.5%) 등도 8~9%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표 3-12] 시도별 핵심 창조계층의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2,435,347	2,511,654	2,400,642	2,463,491	2,486,348	2,563,313	1.0
서울	620,401	619,427	596,112	626,699	610,851	658,133	1.2
부산	157,021	150,663	132,383	126,191	141,491	159,618	0.3
대구	113,692	129,110	118,632	114,692	109,176	117,295	0.6
인천	122,861	139,835	133,082	130,501	141,091	128,445	0.9
광주	79,057	85,843	78,284	72,885	65,471	78,852	-0.1
대전	97,983	90,903	87,218	91,668	96,371	95,319	-0.5
울산	47,544	48,406	47,527	45,633	51,819	53,487	2.4
경기	676,317	694,028	700,148	729,996	748,707	739,843	1.8
강원	52,066	52,321	51,168	48,967	56,540	53,054	0.4
충북	60,884	69,869	69,611	69,276	51,434	49,041	-4.2
충남	63,026	65,203	61,785	61,439	68,556	72,610	2.9
전북	57,731	63,639	55,097	62,688	66,253	64,965	2.4
전남	50,105	53,915	49,018	51,354	46,729	40,947	-4.0
경북	94,767	92,111	81,399	85,175	99,430	90,951	-0.8
경남	118,352	133,107	116,094	121,607	113,227	139,310	3.3
제주	23,540	23,274	23,087	24,721	19,200	21,441	-1.9

[표 3-13] 시·도별 창조적 전문가의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1,927,642	1,972,530	1,902,612	2,072,632	2,280,173	2,329,710	3.9
서울	534,424	534,278	492,689	555,460	606,866	606,034	2.5
부산	124,962	118,995	117,857	119,464	150,288	156,655	4.6
대구	95,205	88,458	86,299	93,902	121,621	112,773	3.4
인천	104,615	108,633	91,106	105,693	121,403	116,739	2.2
광주	71,297	64,844	60,780	67,973	71,066	67,112	-1.2
대전	70,206	65,385	62,865	67,177	76,388	82,634	3.3
울산	31,601	31,425	34,428	36,747	37,976	39,484	4.6
경기	472,638	515,410	501,098	553,624	590,386	590,886	4.6
강원	45,199	44,054	43,173	49,493	53,864	59,534	5.7
충북	44,282	44,195	48,061	48,391	50,501	54,670	4.3
충남	56,914	61,810	61,833	60,108	67,604	71,185	4.6
전북	50,099	55,269	53,493	62,764	75,861	87,799	11.9
전남	48,396	46,116	49,506	46,834	53,675	49,605	0.5
경북	73,130	74,789	79,554	81,298	75,440	80,129	1.8
경남	89,035	100,280	99,734	100,893	105,697	132,057	8.2
제주	15,641	18,589	20,136	22,811	21,537	22,415	7.5

[표 3-14] 시·도별 보헤미안의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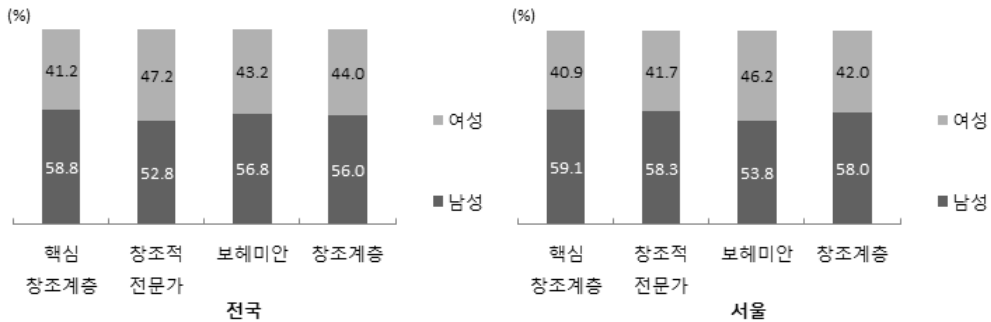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416,237	417,756	460,223	496,277	498,237	545,395	5.6
서울	175,822	169,813	186,718	193,375	195,797	227,036	5.2
부산	18,949	18,335	18,793	19,554	21,059	22,187	3.2
대구	11,951	14,354	17,314	19,119	14,841	16,210	6.3
인천	20,463	20,724	21,815	26,448	27,384	32,101	9.4
광주	8,221	7,060	6,630	9,587	11,089	10,679	5.4
대전	13,353	10,953	10,471	13,128	12,384	9,987	-5.6
울산	3,296	5,026	5,782	6,032	4,375	4,395	5.9
경기	114,911	119,764	139,160	148,539	146,952	155,290	6.2
강원	6,176	6,379	6,861	7,715	6,898	6,313	0.4
충북	4,093	4,914	5,439	6,304	7,031	10,222	20.1
충남	6,004	5,072	5,935	6,296	8,431	9,038	8.5
전북	7,399	7,573	7,779	8,060	10,210	11,216	8.7
전남	4,739	5,100	4,508	4,140	5,451	4,850	0.5
경북	8,416	10,640	9,888	11,682	10,119	7,610	-2.0
경남	9,171	9,155	9,980	13,177	12,876	14,446	9.5
제주	3,273	2,892	3,149	3,123	3,340	3,815	3.1

## 2\_창조계층의 인구통계적·노동행태적 특성 분석

### 1) 성별 특성 : 창조계층 인력구성은 남성 우위적 구조

#### (1)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58%는 남성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을 성별로 보면, 남성 86만 4,182명, 여성 62만 7,02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3만 7,161명 많다. 이를 구성비로 보면, 남성 58.0%, 여성 42.0%로 남녀 간 격차가 16.0%p에 달한다. 2013년 전국 창조계층의 성별 구성은 남성 56.0%, 여성 44.0%로 남녀 간 격차가 12.0%p로 서울보다 작은 편이다. 특히 서울은 전국과 달리 비창조계층보다 창조계층에서 남성 우위적 구조가 더 뚜렷하다. 서울의 창조계층 인력의 남성 비중은 비창조계층의 남성 비중을 3.1%p 상회한다.<sup>26)</sup>



[그림 3-6]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성별 구성(2013)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전국의 창조계층 중 남녀 비율 격차가 가장 큰 유형은 핵심 창조계층으로 17.6%p인 반면, 창조적 전문가는 5.6%p로 가장 작았다. 서울은 전국과 달리 보헤미안의 남녀 비율(남성 53.8%, 여성 46.2%) 격차가 7.6%p로 가장 작고,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의 남녀 비율 격차는 각각 18.2%p, 16.6%p로 거의 유사한 성비를 보였다.

<sup>26)</sup> 이에 비해 전국의 비창조계층 인력의 남성 비중은 57.8%로 창조계층 인력의 남성 비중을 오히려 2.3%p 상회한다.

[표 3-15]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성별 종사자 수(2013)

(단위 : 명)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전국	남성	1,506,261	1,230,543	309,908	3,046,712	11,729,950	14,776,662
	여성	1,057,052	1,099,167	235,487	2,391,707	8,376,476	10,768,183
	합계	2,563,313	2,329,710	545,395	5,438,419	20,106,427	25,544,845
서울	남성	388,632	353,394	122,156	864,182	2,010,119	2,874,302
	여성	269,501	252,639	104,881	627,021	1,654,189	2,281,211
	합계	658,133	606,034	227,036	1,491,204	3,664,309	5,155,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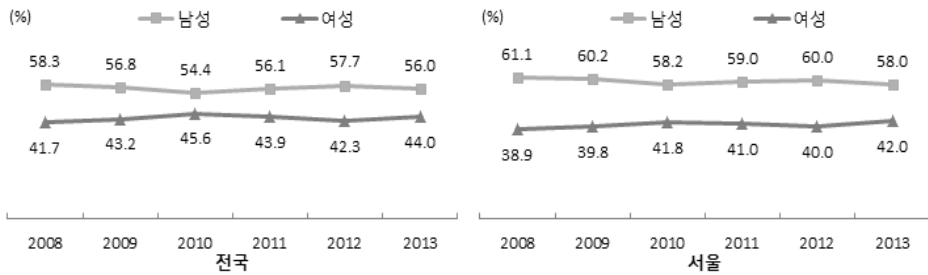
## (2) 지난 5년간 여성 창조계층 인력은 남성의 3배 이상 증가

2008~2013년 중 서울시 창조계층 증가율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3.9%로 남성(1.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여성 창조계층 비중은 2008년 38.9%에서 2013년 42.0%로 3.1%p 확대되었다. 이 기간 중 전국의 여성 창조계층의 연평균 증가율도 3.7%로 남성 창조계층의 연평균 증가율(1.8%)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여성 창조계층 비중도 2008년 41.7%에서 2013년 44.0%로 2.3%p 확대되었다.

[표 3-16]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성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남성	2,786,756	2,786,438	2,593,485	2,822,257	3,040,089	3,046,712	1.8
	여성	1,992,470	2,115,502	2,169,992	2,210,143	2,224,669	2,391,707	3.7
서울	남성	813,433	796,738	742,375	811,787	847,699	864,182	1.2
	여성	517,214	526,780	533,144	563,747	565,815	627,021	3.9



[그림 3-7]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종사자의 성별 비중 추이(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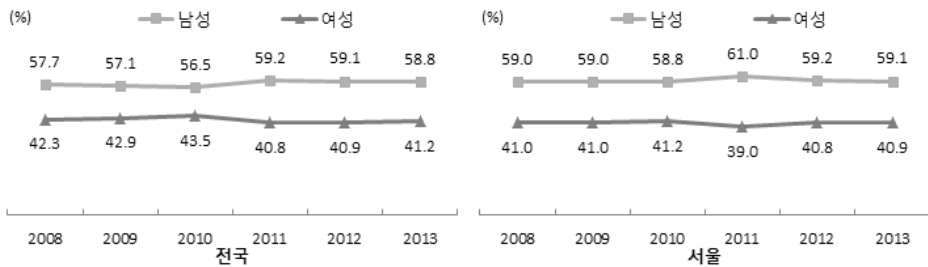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서울의 여성 창조계층 인력 증가는 주로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이 주도했다. 서울의 여성 창조적 전문가 인력은 2008년 18만 1,783명에서 2013년 25만 2,639명으로 연평균 6.8% 증가했고, 여성 보헤미안 인력은 2008년 8만 1,212명에서 2013년 10만 4,881명으로 연평균 5.2% 증가했다. 이에 비해 서울의 여성 핵심 창조계층 인력은 2008년 25만 4,219명에서 2013년 26만 9,501명으로 연평균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창조적 전문가는 여성인력 증가율(6.8%)이 남성(0.04%)을 압도했으며, 보헤미안은 여성인력(5.2%)뿐만 아니라 남성인력(5.2%)도 증가율이 높았다. 전국도 서울과 유사하게 지난 5년간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의 여성인력 증가율이 남성 인력 증가율을 상회했다.

[표 3-17]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의 성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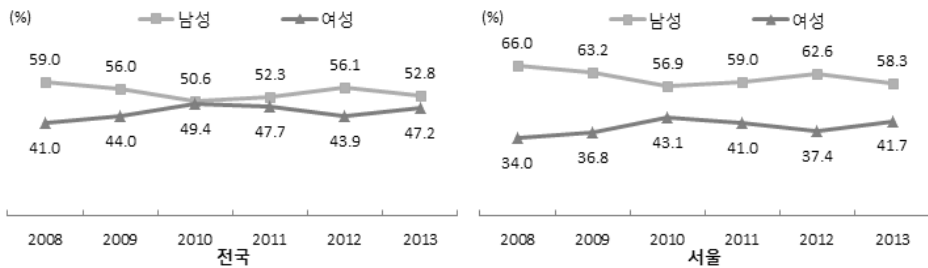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08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핵심 창조계층	남성	1,404,954	1,506,261	1.4
		여성	1,030,393	1,057,052	0.5
	창조적 전문가	남성	1,137,901	1,230,543	1.6
		여성	789,741	1,099,167	6.8
	보헤미안	남성	243,902	309,908	4.9
		여성	172,335	235,487	6.4
서울	핵심 창조계층	남성	366,182	388,632	1.2
		여성	254,219	269,501	1.2
	창조적 전문가	남성	352,641	353,394	0.04
		여성	181,783	252,639	6.8
	보헤미안	남성	94,610	122,156	5.2
		여성	81,212	104,881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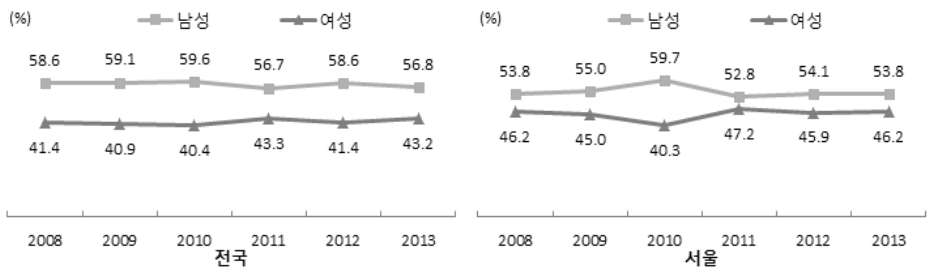
2008년 이후 유형별 성별 구성 추이를 보면, 서울의 핵심 창조계층은 남성은 59% 내외, 여성은 40% 내외에서 유지되었고, 전국도 유사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적 전문가는 서울과 전국 모두 여성인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남녀 간 비중 차이가 크게 축소되었다. 서울과 전국의 창조적 전문가 인력의 남녀 간 비중 격차는 각각 2008년 32.0%p, 18.0%p에서 2013년 16.6%p, 5.6%p로 축소되었다. 서울시 보헤미안 인력의 남녀 간 비중 격차는 지난 5년간 여성과 남성의 증가세가 같아 2008년과 2013년 모두 7.6%p로 변화가 없고, 전국은 2008년 17.2%p에서 2013년 13.6%p로 축소되었다.



[그림 3-8]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 종사자의 성별 비중 추이(2008~2013)



[그림 3-9]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 종사자의 성별 비중 추이(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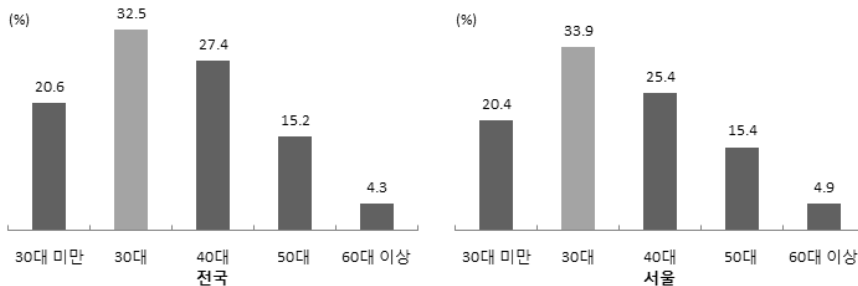
[그림 3-10]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 종사자의 성별 비중 추이(2008~2013)



## 2) 연령별 특성 : 30대가 주된 연령층으로 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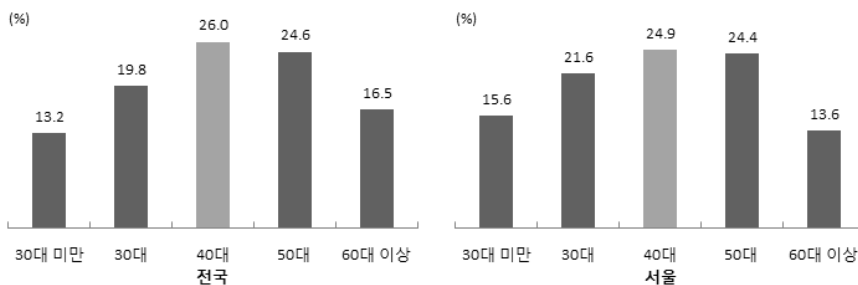
### (1)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33.9%가 30대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50만 4,899명으로 가장 많고, 40대 37만 8,899명, 30대 미만 30만 4,744명, 50대 22만 9,339명, 60대 이상 7만 3,323명 등의 순이다. 이를 구성비로 보면, 30대 33.9%, 40대 25.4%, 30대 미만 20.4%, 50대 15.4%, 60대 이상 4.9%로 40대 이하가 79.7%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성도 30대가 32.5%로 가장 많고, 40대 27.4%, 30대 미만 20.6% 등의 순으로 서울과 유사한 구조이다.



[그림 3-11]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성(2013)

특히 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조는 비창조계층과 대조적이다. 창조계층의 연령구조가 30대 중심이고, 50대 이상은 미미한 반면, 비창조계층은 40대가 주축이고, 50대와 60대 이상도 상당 수준을 차지한다. 2013년 서울의 비창조계층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4.9%로 가장 많고, 50대 24.4%, 30대 21.6%, 30대 미만 15.6%, 60대 이상 13.6%의 순이다.



[그림 3-12] 전국 및 서울시 비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성(2013)

이를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2013년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은 30대가 각각 25만 4,975명, 9만 6,33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창조적 전문가는 40대가 17만 4,49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의 연령별 비중은 30대가 38.7%로 가장 크고, 40대 25.4%, 30대 미만 21.0%, 50대 11.8% 등의 순이며, 보헤미안은 30대 42.4%, 30대 미만 32.2%, 40대 16.5%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창조적 전문가는 40대가 28.8%로 가장 크고, 30대와 50대가 각각 25.3%, 2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8]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연령별 종사자 수와 비중(2013)

(단위 : 명, %)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 계층	합계
전국	30대 미만	521,809 (20.4)	420,399 (18.0)	176,788 (32.4)	1,118,995 (20.6)	2,654,106 (13.2)	3,773,102 (14.8)
	30대	961,018 (37.5)	606,071 (26.0)	202,545 (37.1)	1,769,633 (32.5)	3,976,190 (19.8)	5,745,824 (22.5)
	40대	710,893 (27.7)	671,759 (28.8)	109,500 (20.1)	1,492,153 (27.4)	5,218,627 (26.0)	6,710,780 (26.3)
	50대	308,076 (12.0)	475,867 (20.4)	41,380 (7.6)	825,324 (15.2)	4,941,651 (24.6)	5,766,974 (22.6)
	60대 이상	61,517 (2.4)	155,614 (6.7)	15,183 (2.8)	232,313 (4.3)	3,315,852 (16.5)	3,548,165 (13.9)
	합계	2,563,313 (100.0)	2,329,710 (100.0)	545,395 (100.0)	5,438,419 (100.0)	20,106,427 (100.0)	25,544,845 (100.0)
서울	30대 미만	137,943 (21.0)	93,594 (15.4)	73,207 (32.2)	304,744 (20.4)	569,864 (15.6)	874,608 (17.0)
	30대	254,975 (38.7)	153,587 (25.3)	96,336 (42.4)	504,899 (33.9)	789,802 (21.6)	1,294,700 (25.1)
	40대	166,907 (25.4)	174,494 (28.8)	37,497 (16.5)	378,899 (25.4)	913,160 (24.9)	1,292,059 (25.1)
	50대	77,680 (11.8)	137,786 (22.7)	13,873 (6.1)	229,339 (15.4)	892,567 (24.4)	1,121,906 (21.8)
	60대 이상	20,628 (3.1)	46,571 (7.7)	6,124 (2.7)	73,323 (4.9)	498,916 (13.6)	572,239 (11.1)
	합계	658,133 (100.0)	606,034 (100.0)	227,036 (100.0)	1,491,204 (100.0)	3,664,309 (100.0)	5,155,5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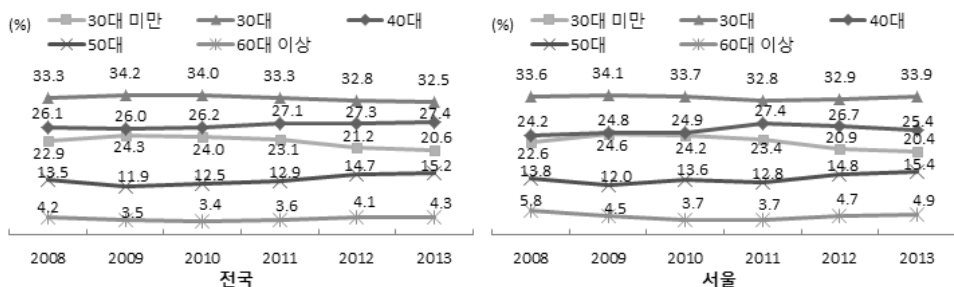
## (2)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은 40~50대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

지난 5년간 서울시 창조계층 증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40대가 각각 연평균 4.5%, 3.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창조계층에서 비중이 가장 큰 30대는 연평균 2.4% 증가했고, 30대 미만도 0.3% 증가에 그쳐 젊은 층의 인력확대는 다소 미흡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유일하게 지난 5년간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국의 창조계층도 지난 5년간 서울과 유사하게 50대와 40대 인력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비중으로 보면, 서울은 30대가 30%대로 6년 연속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은 40대, 30대 미만,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연령별 순위는 6년간 변화가 없다.

[표 3-19]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연령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30대 미만	1,095,189	1,193,580	1,141,804	1,164,498	1,116,000	1,118,995	0.4
	30대	1,591,187	1,675,343	1,617,344	1,674,046	1,724,401	1,769,633	2.1
	40대	1,245,485	1,275,440	1,246,137	1,361,927	1,435,585	1,492,153	3.7
	50대	645,801	585,017	596,135	651,317	771,738	825,324	5.0
	60대 이상	201,565	172,559	162,056	180,612	217,032	232,313	2.9
서울	30대 미만	300,641	325,480	308,615	321,420	295,027	304,744	0.3
	30대	447,640	451,144	429,353	451,070	465,730	504,899	2.4
	40대	321,590	327,772	317,445	376,259	377,324	378,899	3.3
	50대	184,173	159,047	172,991	175,760	209,332	229,339	4.5
	60대 이상	76,602	60,076	47,114	51,025	66,100	73,323	-0.9



[그림 3-13]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종사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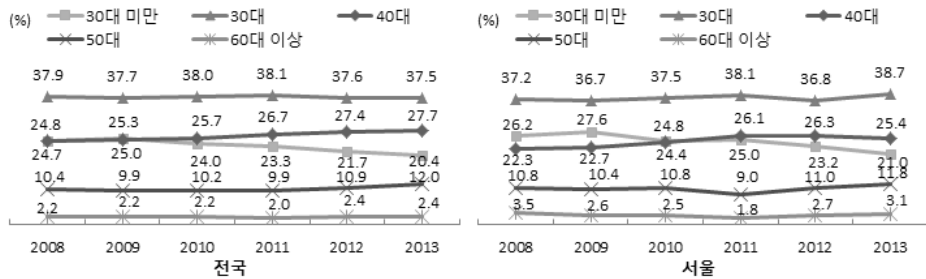
이를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연령층은 40대(3.8%)와 50대(3.0%)이고 30대 미만은 오히려 하락했다. 창조적 전문가에서는 50대의 연평균 증가율이 5.3%로 가장 크고, 30대 미만은 연평균 4.2%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층은 증가세가 미미했다. 이에 비해 보헤미안은 40대가 10.1%로 모든 유형에서 가장 큰 것을 비롯해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3-20]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의 연령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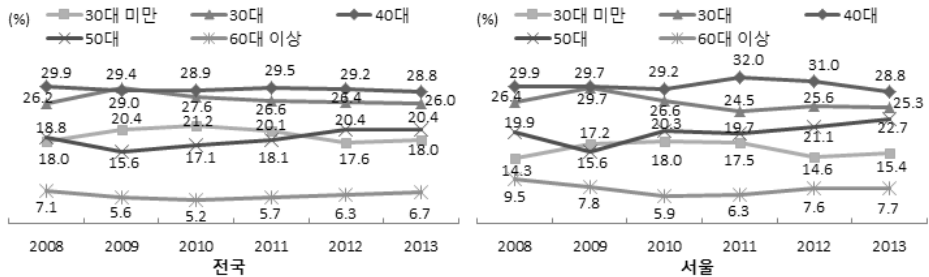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08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핵심 창조계층	30대 미만	603,702	521,809	-2.9
		30대	921,930	961,018	0.8
		40대	601,847	710,893	3.4
		50대	253,367	308,076	4.0
		60대 이상	54,501	61,517	2.5
	창조적 전문가	30대 미만	346,416	420,399	3.9
		30대	505,695	606,071	3.7
		40대	576,280	671,759	3.1
		50대	362,354	475,867	5.6
		60대 이상	136,897	155,614	2.6
	보헤미안	30대 미만	145,071	176,788	4.0
		30대	163,562	202,545	4.4
		40대	67,358	109,500	10.2
		50대	30,080	41,380	6.6
		60대 이상	10,166	15,183	8.4
서울	핵심 창조계층	30대 미만	162,317	137,943	-3.2
		30대	230,947	254,975	2.0
		40대	138,586	166,907	3.8
		50대	67,063	77,680	3.0
		60대 이상	21,488	20,628	-0.8
	창조적 전문가	30대 미만	76,212	93,594	4.2
		30대	140,924	153,587	1.7
		40대	159,867	174,494	1.8
		50대	106,552	137,786	5.3
		60대 이상	50,869	46,571	-1.7
	보헤미안	30대 미만	62,112	73,207	3.3
		30대	75,769	96,336	4.9
		40대	23,137	37,497	10.1
		50대	10,558	13,873	5.6
		60대 이상	4,246	6,124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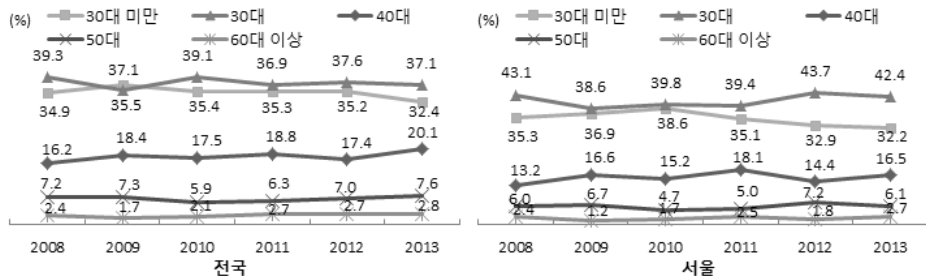
2008년 이후 유형별로 연령별 비중을 보면, 서울의 핵심 창조계층은 30대가 지난 6년간 37% 내외를 유지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는 2008년에 20% 초반에 그쳤으나 2011년부터 20% 중반대로 높아지면서 30대 미만 비중을 상회했다. 이에 비해 창조적 전문가는 40대가 가장 높은 30% 내외의 비중을 6년 연속 유지하고 있고, 다른 유형과 달리 50대 비중도 2008년 19.9%에서 2013년 22.7%로 높아지면서 30대 비중(25.3%)에 근접했다. 한편 보헤미안은 2008년 이후 30대와 30대 미만 비중이 줄곧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40대 비중도 2008년 13.2%에서 2013년 16.5%로 3.3%p 확대되었다.



[그림 3-14]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 종사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2008~2013)



[그림 3-15]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 종사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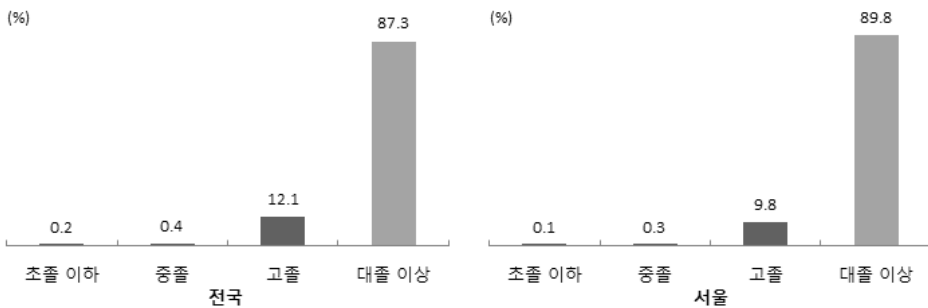


[그림 3-16]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 종사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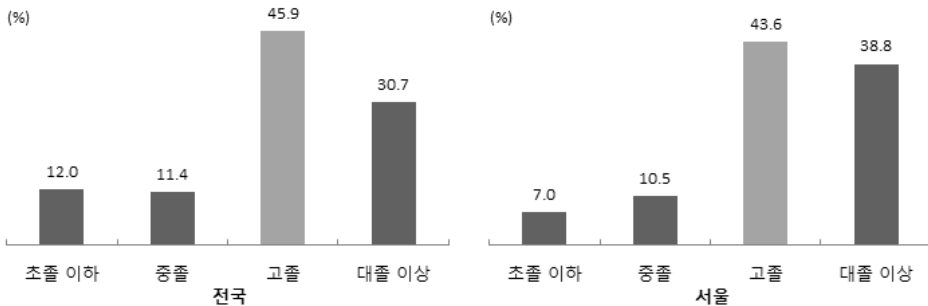
### 3) 학력별 특성 : 고학력 위주로 인력 구성

#### (1) 서울시 창조계층은 대졸 이상 인력이 약 90%로 비창조계층의 2배 이상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을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 인력이 133만 8,405명으로 8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졸 인력은 14만 6,138명으로 9.8%의 비중을 차지했고, 중졸 이하 인력은 6,660명으로 0.4%에 불과하다. 이는 고졸 인력이 40%대로 가장 많은 비창조계층의 학력별 구조와 대조적이다.



[그림 3-17]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학력별 비중(2013)



[그림 3-18] 전국 및 서울시 비창조계층의 학력별 비중(2013)

이를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에서 대졸 이상 인력 비중이 92.7%로 가장 높고,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은 각각 88.0%, 8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고졸 이하 인력의 비중은 핵심 창조계층에서는 7.3%에 불과한 반면, 창조적 전문가(12.0%), 보헤미안(14.1%)으로 갈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다.

[표 3-21]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의 학력별 종사자 수와 비중(2013)

(단위 : 명, %)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 계층	합계
전국	초졸 이하	2,117 (0.1)	6,018 (0.3)	1,007 (0.2)	9,143 (0.2)	2,410,835 (12.0)	2,419,978 (9.5)
	중졸	5,629 (0.2)	15,383 (0.7)	2,633 (0.5)	23,646 (0.4)	2,296,979 (11.4)	2,320,624 (9.1)
	고졸	193,033 (7.5)	366,235 (15.7)	97,708 (17.9)	656,976 (12.1)	9,234,955 (45.9)	9,891,931 (38.7)
	대졸 이상	2,362,533 (92.2)	1,942,074 (83.4)	444,046 (81.4)	4,748,654 (87.3)	6,163,658 (30.7)	10,912,312 (42.7)
	합계	2,563,313 (100.0)	2,329,710 (100.0)	545,395 (100.0)	5,438,419 (100.0)	20,106,427 (100.0)	25,544,845 (100.0)
서울	초졸 이하	0 (0.0)	1,152 (0.2)	494 (0.2)	1,646 (0.1)	256,882 (7.0)	258,528 (5.0)
	중졸	542 (0.1)	3,699 (0.6)	774 (0.3)	5,014 (0.3)	386,448 (10.5)	391,462 (7.6)
	고졸	47,242 (7.2)	67,983 (11.2)	30,912 (13.6)	146,138 (9.8)	1,599,360 (43.6)	1,745,497 (33.9)
	대졸 이상	610,350 (92.7)	533,200 (88.0)	194,856 (85.8)	1,338,405 (89.8)	1,421,619 (38.8)	2,760,025 (53.5)
	합계	658,133 (100.0)	606,034 (100.0)	227,036 (100.0)	1,491,204 (100.0)	3,664,309 (100.0)	5,155,5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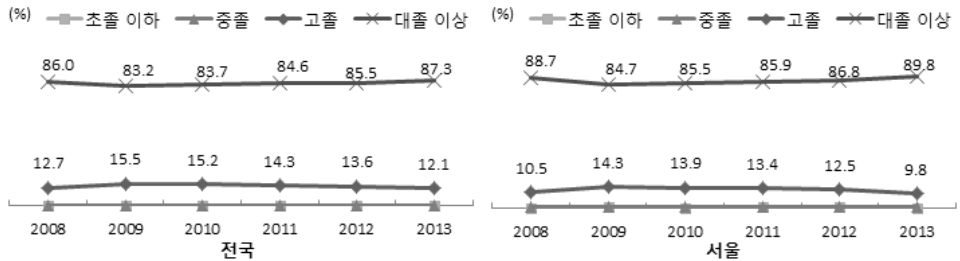
## (2) 지난 5년간 서울시 창조계층 증가는 고학력자가 주도

2008~2013년 중 서울시 창조계층 증가율을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 인력이 연평균 2.6%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고졸 인력은 0.8% 증가에 그쳤고, 중졸과 초졸 이하 인력은 감소했다. 전국도 서울과 유사하게 지난 5년간 대졸 이상 인력과 고졸 인력이 각각 연평균 2.9%, 1.6% 증가한 반면, 중졸과 초졸 이하의 인력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서울 및 전국 창조계층의 학력별 비중 변화를 보면, 대졸 이상 인력만 각각 1.1%p, 1.3%p 확대되었고, 고졸 이하 인력은 모두 축소되었다.

[표 3-22]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학력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 국	초졸 이하	23,514	24,308	21,531	21,357	15,552	9,143	-17.2
	중졸	39,307	38,481	32,206	30,773	31,887	23,646	-9.7
	고졸	606,176	758,967	722,571	721,942	716,244	656,976	1.6
	대졸 이상	4,107,280	4,080,184	3,987,168	4,258,328	4,501,075	4,748,654	2.9
서 울	초졸 이하	2,921	5,737	2,576	3,690	3,465	1,646	-10.8
	중졸	7,734	8,034	5,148	6,050	6,240	5,014	-8.3
	고졸	140,247	189,096	177,120	184,127	176,216	146,138	0.8
	대졸 이상	1,178,851	1,120,651	1,090,676	1,181,667	1,227,593	1,338,405	2.6



[그림 3-19]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종사자의 학력별 비중 추이(2008~2013)

그러나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학력별 인력 증가세는 전체 창조계층과 달리 차별적이다. 핵심 창조계층은 고졸 인력이 가장 높은 반면, 창조적 전문가는 대졸 이상 인력이 가장 컸다. 보헤미안 인력은 모든 학력계층에서 다 증가했지만,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인력 증가율이 더 높았다.

지난 5년간 서울의 핵심 창조계층 중 고졸 인력은 연평균 13.2% 증가해 대졸 이상 인력 (0.6%)은 물론 전국 핵심 창조계층의 고졸 인력 증가율(5.4%)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서울의 창조적 전문가는 대졸 이상 인력만 연평균 4.2% 증가했을 뿐 고졸 이하 인력은 모두 감소했다. 한편, 2008~2013년 중 서울시 보헤미안의 학력별 인력 증가율을 보면, 대졸 이상 인력 5.1%, 고졸 인력 5.9%, 중졸 인력 9.2%, 초졸



이하 인력 25.6%로 학력이 낮을수록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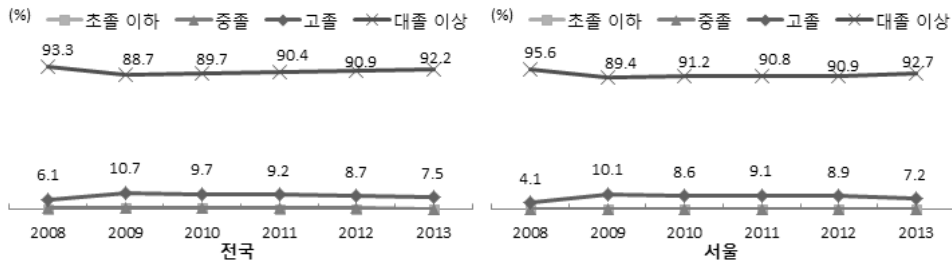
지난 5년간 핵심 창조계층에서 고졸 인력 증가율이 가장 컸던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데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도 작용했지만, 이 유형에 정보통신 기술직과 공학 기술직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졸 출신의 이공계 기술직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술 관련 직종으로 구성된 보헤미안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에 따른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저학력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23]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의 학력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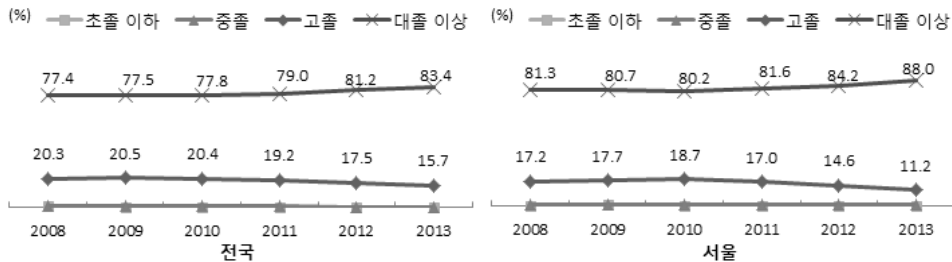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08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핵심 창조계층	초졸 이하	5,082	2,117	-16.1
		중졸	8,812	5,629	-8.6
		고졸	148,412	193,033	5.4
		대졸 이상	2,272,866	2,362,533	0.8
	창조적 전문가	초졸 이하	17,165	6,018	-18.9
		중졸	27,296	15,383	-10.8
		고졸	391,176	366,235	-1.3
		대졸 이상	1,489,255	1,942,074	5.5
	보헤미안	초졸 이하	1,266	1,007	-4.5
		중졸	3,199	2,633	-3.8
		고졸	66,589	97,708	8.0
		대졸 이상	345,159	444,046	5.2
서울	핵심 창조계층	초졸 이하	538	0	-100.0
		중졸	1,080	542	-12.9
		고졸	25,466	47,242	13.2
		대졸 이상	593,317	610,350	0.6
	창조적 전문가	초졸 이하	2,226	1,152	-12.3
		중졸	6,156	3,699	-9.7
		고졸	91,519	67,983	-5.8
		대졸 이상	433,631	533,200	4.2
	보헤미안	초졸 이하	158	494	25.6
		중졸	498	774	9.2
		고졸	23,262	30,912	5.9
		대졸 이상	151,904	194,856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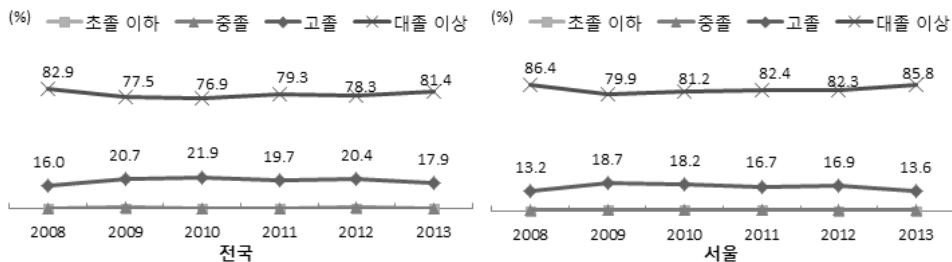
이러한 증가세 차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창조계층 유형의 학력별 인력 비중도 변화되었다. 서울의 핵심 창조계층에서 대졸 이상 인력 비중은 지난 5년간 9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8년 대비 2.9%p 하락했고, 고졸 이하 인력 비중은 3.1%p 확대되었다. 반면, 서울의 창조적 전문가에서 고졸 이하 인력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대졸 이상 인력 비중은 2008년 대비 6.7%p나 확대되었다. 학력별로 지난 5년간 모두 증가한 보헤미안은 다른 유형에 비해 비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졸 이상의 인력 비중은 2008년 대비 0.6%p 축소되고, 고졸 이하의 인력 비중이 소폭 확대되었다.



[그림 3-20]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 종사자의 학력별 비중 추이(2008~2013)



[그림 3-21]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 종사자의 학력별 비중 추이(2008~2013)



[그림 3-22]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 종사자의 학력별 비중 추이(2008~2013)

#### 4) 임금수준 : 창조계층 임금은 비창조계층의 1.6배

##### (1)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은 약 326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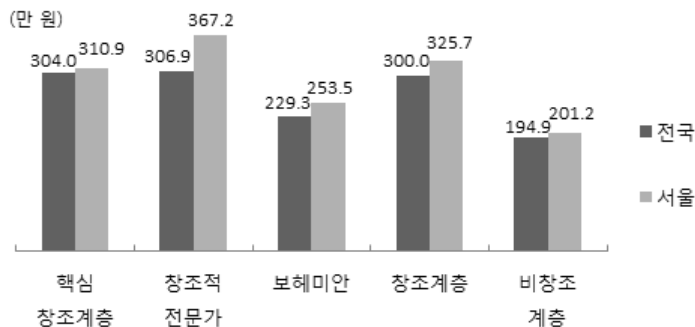
2013년 전국 창조계층의 임금수준<sup>27)</sup>은 월평균 300만 원으로 비창조계층(약 194.9만 원)과 차이가 컸다. 이에 비해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임금수준은 월평균 325.7만 원으로 전국은 물론 서울의 비창조계층(201.2만 원)보다도 1.6배 높았다. 창조계층의 임금수준이 비창조계층을 상회하는 것은 창조계층이 높은 경제적 기회를 가진다는 플로리다 이론에 부합한다. 유형별로 보면, 창조적 전문가의 월평균 임금이 367.2만 원으로 가장 컸고, 핵심 창조계층은 310.9만 원이고, 보헤미안이 253.5만 원으로 가장 작았다. 전국의 창조계층 임금(전국=100)을 기준으로 본 서울시 창조계층의 상대적 임금수준은 108.6으로 약 8.6% 높다. 창조적 전문가는 119.6으로 전국보다 19.6% 높았으며, 보헤미안(110.6)은 10.6%, 핵심 창조계층(102.3)은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과 상대적 임금수준(2013)

(단위 : 만 원, %)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전국	304.0 (100.0)	306.9 (100.0)	229.3 (100.0)	300.0 (100.0)	194.9 (100.0)	494.8 (100.0)
서울	310.9 (102.3)	367.2 (119.6)	253.5 (110.6)	325.7 (108.6)	201.2 (103.3)	526.9 (106.5)

주 : ( )는 전국 기준 상대적 임금수준



[그림 3-23]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2013)

<sup>27)</sup> 임금수준은 분석대상인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 (2)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은 연평균 2.3% 증가

전국 창조계층 인력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264.1만 원에서 2013년 300만 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핵심 창조계층의 임금증가율(2.7%)은 창조계층 평균(2.6%)을 상회하는 반면,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의 임금증가율은 각각 2.5%, 2.0%로 낮았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창조적 전문가였으나, 지난 5년간 임금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핵심 창조계층이고, 창조계층 중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보헤미안은 임금증가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291만 원에서 2013년 325.7만 원으로 연평균 2.3%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서울은 전국과 달리 창조적 전문가의 임금증가율(2.6%)이 가장 높고, 보헤미안의 월평균 임금도 2.3% 증가했으나, 핵심 창조계층은 1.9%로 낮은 편이다. 또한 서울은 전국과 달리 창조적 전문가와 핵심 창조계층의 임금 차이가 2008년 39.4만 원에서 2013년 56.3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서울은 전국과 달리 지난 5년간 창조계층 인력의 임금증가율(2.3%)은 비창조계층의 임금증가율(2.6%)을 하회했다.

[표 3-25]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추이(2008~2013)

(단위 : 만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핵심 창조계층	265.7	266.7	280.1	285.3	290.6	304.0	2.7
	창조적 전문가	271.5	260.6	271.6	276.4	305.3	306.9	2.5
	보헤미안	207.6	207.5	220.6	219.5	217.6	229.3	2.0
	창조계층	264.1	260.5	272.4	276.8	292.3	300.0	2.6
	비창조계층	172.2	171.8	182.1	186.1	186.0	194.9	2.5
서울	핵심 창조계층	283.6	287.0	300.1	299.0	290.7	310.9	1.9
	창조적 전문가	323.0	317.7	329.6	338.3	361.8	367.2	2.6
	보헤미안	226.5	226.3	245.1	238.6	241.6	253.5	2.3
	창조계층	291.0	291.6	303.9	306.3	314.7	325.7	2.3
	비창조계층	176.9	181.5	190.0	189.9	188.3	201.2	2.6

## 5) 근로시간 : 창조계층 근로시간은 비창조계층보다 적은 편

### (1) 서울시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은 약 42시간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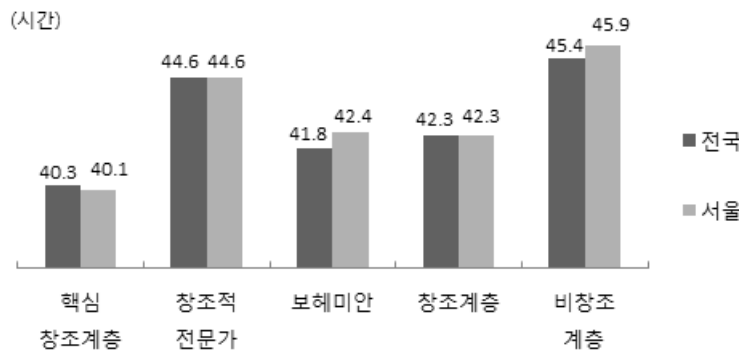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sup>28)</sup>은 42.3시간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창조적 전문가의 근로시간이 44.6시간으로 가장 길고, 보헤미안은 42.4시간, 핵심 창조계층은 가장 짧은 40.1시간이다. 전국의 주당 근로시간을 100으로 놓고 비교하면, 서울시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의 근로시간은 전국과 동일하고, 핵심 창조계층은 다소 낮게, 보헤미안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은 비창조계층(45.9시간)에 비해 3.6시간 짧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다.

[표 3-26]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과 상대적 근로시간 수준(2013)

(단위 : 시간, %)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전국	40.3 (100.0)	44.6 (100.0)	41.8 (100.0)	42.3 (100.0)	45.4 (100.0)
서울	40.1 (99.5)	44.6 (100.0)	42.4 (101.4)	42.3 (100.0)	45.9 (101.1)

주 : ( )는 전국 기준 상대적 근로시간 수준



[그림 3-24]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2013)

28) 이 보고서에서 2011년 근로시간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2분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1년 3분기 자료는 조사기간과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전국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이 전년에 비해 17시간 적은 28시간으로 집계되어 활용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플로리다 이론과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플로리다(2002)는 근로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단축되는 추세이지만, 창조계층은 장시간 일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창조계층이 비창조계층과 달리 내적인 동기 또는 자신의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며, 그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장시간 근로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플로리다 이론과 달리 서울시 창조계층의 근로시간이 비창조계층보다 적은 것은 소득과 여가 선택에 의한 노동공급곡선<sup>29)</sup>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의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노동과 여가의 선호도 차이로 해석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조계층의 임금수준은 비창조계층의 1.6배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비창조계층은 여가보다 일을 더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창조계층은 일에 대한 창조적 도전이나 욕구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노동보다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

## (2) 2008년 이후 창조계층의 근로시간은 단축되는 추세

2008년 이후 서울과 전국 모두 창조계층의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되는 추세이다. 이는 창조계층 유형별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서울시 창조계층의 근로시간은 2008년 43.9시간에서 2013년 42.3시간으로 연평균 0.8%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보헤미안의 근로시간이 2008년 46.4시간에서 2013년 42.4시간으로 연평균 1.8% 하락해 가장 많이 단축되었다. 그다음은 창조적 전문가로 연평균 0.9% 하락했고, 핵심 창조계층은 연평균 0.4% 하락했다.

<sup>29)</sup> 동일한 임금상승에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노동공급의 증가와 감소가 결정된다. 대체효과는 임금상승으로 여가의 상대가격이 높아져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것이며, 소득효과는 임금상승에 따른 소득증가로 여가소비가 늘어나고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7]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 추이(2008~2013)

(단위 : 시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핵심 창조계층	41.9	41.9	41.8	41.4	40.0	40.3	-0.8
	창조적 전문가	46.9	46.8	46.4	46.0	44.6	44.6	-1.0
	보헤미안	45.0	44.7	44.6	43.7	41.8	41.8	-1.5
	창조계층	44.2	44.2	44.0	43.7	42.2	42.3	-0.9
	비창조계층	48.7	48.3	48.1	46.8	45.2	45.4	-1.4
서울	핵심 창조계층	40.8	41.0	41.0	41.1	39.0	40.1	-0.4
	창조적 전문가	46.7	46.6	46.2	46.2	44.3	44.6	-0.9
	보헤미안	46.4	45.5	46.2	44.7	42.1	42.4	-1.8
	창조계층	43.9	43.9	43.8	43.7	41.7	42.3	-0.8
	비창조계층	48.5	48.5	47.8	46.8	45.7	45.9	-1.1

## 6) 고용안정성 : 창조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높은 수준

### (1) 창조계층의 80% 이상이 상용직으로 높은 고용안정성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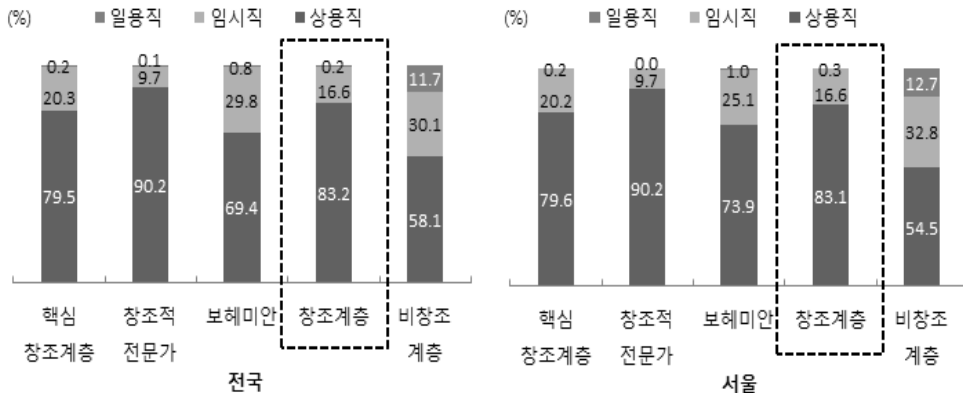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중 임금근로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보면, 상용직은 102만 7,394명, 임시직 20만 5,644명, 일용직 3,109명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창조계층의 83.1%는 상용직으로 고용안정성<sup>30)</sup>이 높은 편이며, 임시직은 16.6%, 일용직은 0.3%를 차지하고 있다. 창조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비창조계층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2013년 서울시 비창조계층의 상용직 비중은 54.5%로 창조계층(83.1%)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안정성은 유형별로 차별화된다. 창조적 전문가에서 상용직 비중은 90.2%로 매우 높았고,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의 상용직 비중은 각각 79.6%, 73.9%로 창조적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30) 고용안정성은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해 고용안정성을 파악한 것이다. 상용직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안정성이 높다고 해석되며,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표 3-28]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와 비중(2013)

(단위 : 명, %)

구분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전국	상용직	1,738,560 (79.5)	1,728,749 (90.2)	268,571 (69.4)	3,735,880 (83.2)	8,139,241 (58.1)	11,875,121 (64.2)
	임시직	442,764 (20.3)	185,343 (9.7)	115,297 (29.8)	743,403 (16.6)	4,217,605 (30.1)	4,961,008 (26.8)
	일용직	4,263 (0.2)	1,725 (0.1)	3,119 (0.8)	9,107 (0.2)	1,644,119 (11.7)	1,653,226 (8.9)
	합계	2,185,587 (100.0)	1,915,816 (100.0)	386,987 (100.0)	4,488,390 (100.0)	14,000,965 (100.0)	18,489,355 (100.0)
서울	상용직	454,808 (79.6)	448,653 (90.2)	123,932 (73.9)	1,027,394 (83.1)	1,537,446 (54.5)	2,564,839 (63.2)
	임시직	115,107 (20.2)	48,444 (9.7)	42,092 (25.1)	205,644 (16.6)	925,394 (32.8)	1,131,038 (27.9)
	일용직	1,119 (0.2)	239 (0.0)	1,752 (1.0)	3,109 (0.3)	357,583 (12.7)	360,692 (8.9)
	합계	571,034 (100.0)	497,336 (100.0)	167,776 (100.0)	1,236,146 (100.0)	2,820,424 (100.0)	4,056,570 (100.0)



[그림 3-25]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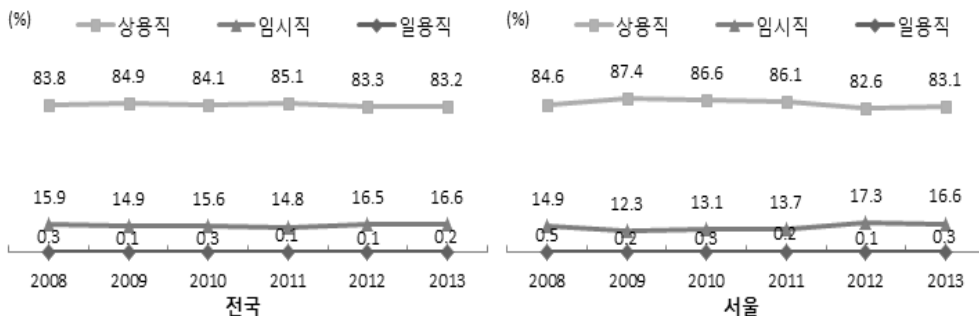
## (2)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안정성은 이전보다 소폭 하락

2008~2013년 중 서울시 창조계층의 종사상 지위별 인력 추이를 보면, 임시직, 상용직, 일용직 순으로 증가했다. 임시직 종사자는 2008년 14만 7,682명에서 2013년 20만 5,644명으로 연평균 6.8% 증가했고, 상용직 종사자는 2008년 83만 8,391명에서 2013년 102만 7,394명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 반면 일용직 종사자는 연평균 8.7% 감소했다. 지난 5년간 임시직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임시직 비중은 2008년 14.9%에서 2013년 16.6%로 1.7%p 확대된 반면, 상용직은 2008년 84.6%에서 2013년 83.1%로 1.5%p 축소되었다. 전국도 서울과 유사하게 임시직 종사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비중도 확대되었다.

[표 3-29]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상용직	3,092,246	3,323,324	3,233,134	3,545,270	3,564,859	3,735,880	3.9
	임시직	586,554	584,894	601,697	615,942	706,941	743,403	4.9
	일용직	10,050	5,846	10,142	4,867	5,219	9,107	-2.0
서울	상용직	838,391	910,188	884,357	977,005	939,682	1,027,394	4.1
	임시직	147,682	128,491	133,794	155,648	196,863	205,644	6.8
	일용직	4,910	2,284	2,694	2,388	1,664	3,109	-8.7



[그림 3-26]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2008~2013)

이를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서울의 핵심 창조계층은 임시직 종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6.0%로 가장 컸고, 상용직 종사자 증가율은 1.8%로 미미했다. 이에 비해 창조적 전문가는 지난 5년간 상용직 종사자 증가율이 6.5%로 가장 큰 가운데 임시직 종사자 증가율도 4%대로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보헤미안은 지난 5년간 임시직 종사자 증가율이 13.2%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고, 상용직 종사자 증가율도 5%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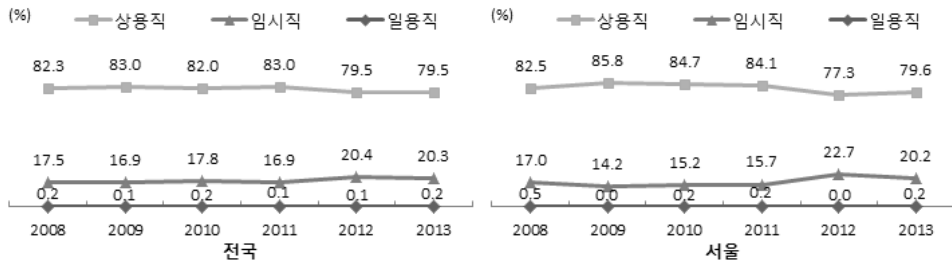
**[표 3-30]**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 유형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추이(2008~2013)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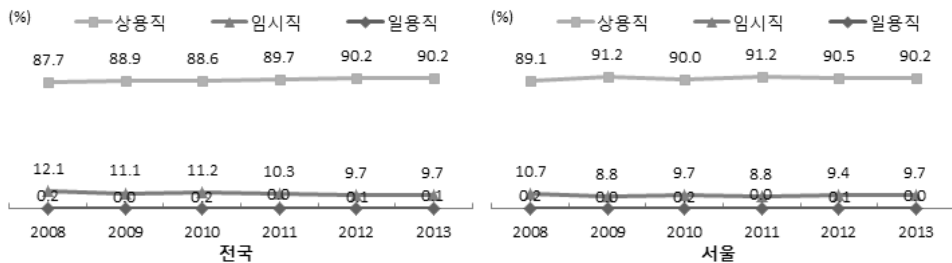
구분			2008	2013	연평균 증가율
전국	핵심 창조계층	상용직	1,664,337	1,738,560	0.9
		임시직	354,714	442,764	4.5
		일용직	4,328	4,263	-0.3
	창조적 전문가	상용직	1,214,015	1,728,749	7.3
		임시직	167,935	185,343	2.0
		일용직	2,176	1,725	-4.5
	보헤미안	상용직	213,893	268,571	4.7
		임시직	63,905	115,297	12.5
		일용직	3,547	3,119	-2.5
서울	핵심 창조계층	상용직	415,713	454,808	1.8
		임시직	85,884	115,107	6.0
		일용직	2,325	1,119	-13.6
	창조적 전문가	상용직	327,282	448,653	6.5
		임시직	39,193	48,444	4.3
		일용직	875	239	-22.9
	보헤미안	상용직	95,397	123,932	5.4
		임시직	22,605	42,092	13.2
		일용직	1,710	1,752	0.5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창조계층 유형의 종사자별 인력 비중도 변화되었다. 서울의 핵심 창조계층에서 상용직 종사자 비중은 2008년 82.5%에서 2013년 79.6%로 2.9%p 하락한 반면 임시직 종사자 비중은 2008년에 17.0%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0.2%로 3.2%p 나 확대되었다. 특히 보헤미안에서 임시직 비중은 2008년 18.9%에서 2013년 25.1%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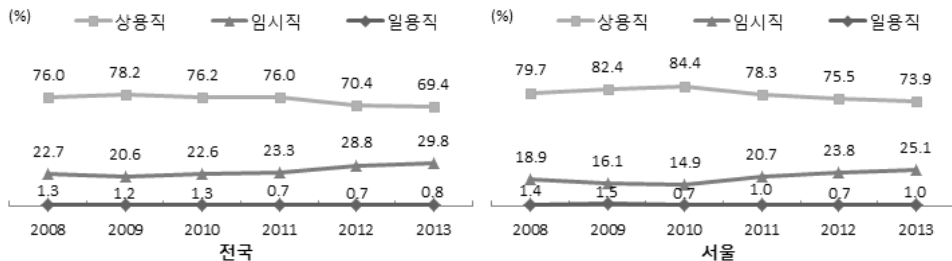
6.2%p나 확대되었다. 예외적으로 창조적 전문가에서만 임시직 비중이 2008년 10.7%에서 2013년 9.7%로 1.0%p 축소되고 상용직 비중이 2008년 89.1%에서 2013년 90.2%로 소폭 확대되었다. 즉,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창조적 전문가를 제외한 보헤미안과 핵심 창조계층에서 고용안정성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헤미안의 고용안정성은 창조계층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3-27]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2008~2013)



[그림 3-28]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2008~2013)



[그림 3-29]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추이(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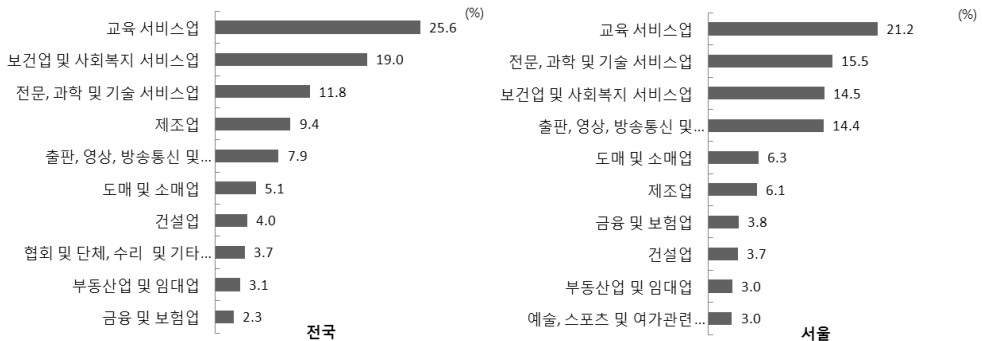
### 3\_창조계층의 산업별 특성 분석

#### 1) 대분류 특성 : 창조계층은 교육 서비스업에 가장 많이 밀집

##### (1) 서울시 창조계층 중 21.2%가 교육 서비스업에 포진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sup>31)</sup>를 보면,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4개 산업에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65.6%가 포진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업에 가장 많은 21.2%가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4% 등의 순으로 창조인력이 밀집되어 있다. 전국 창조계층 인력이 밀집된 상위 4대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2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9.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8%), 제조업(9.4%) 등으로 나타난다.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상위 4대 밀집 산업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동일하지만,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서울이 제조업 기능이 약한 반면, 문화·콘텐츠 및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산업구조상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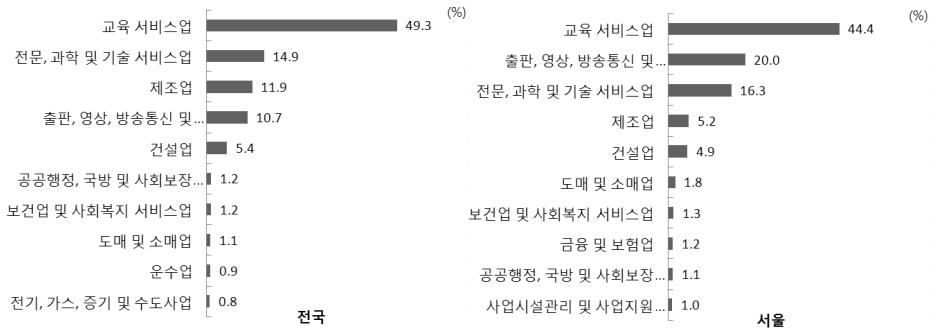


[그림 3-30] 대분류 기준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밀집도(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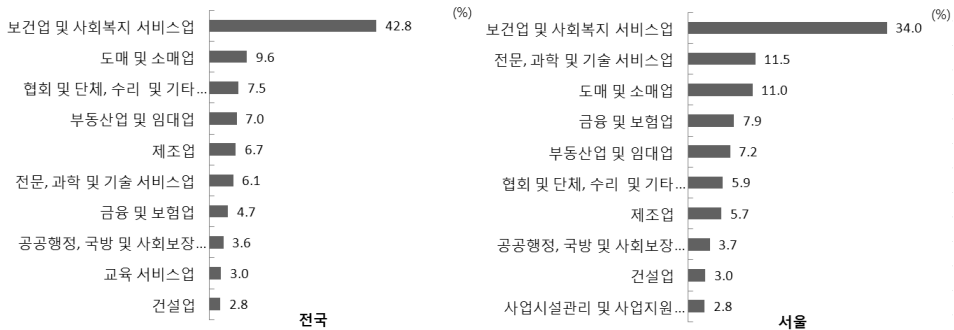
31)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는 전체 창조계층 인력이 어느 산업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산업별 밀집도의 합은 100이 된다.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는 각 산업의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창조계층 인력 비중과는 차이가 있다.

## (2)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밀집도는 유형별로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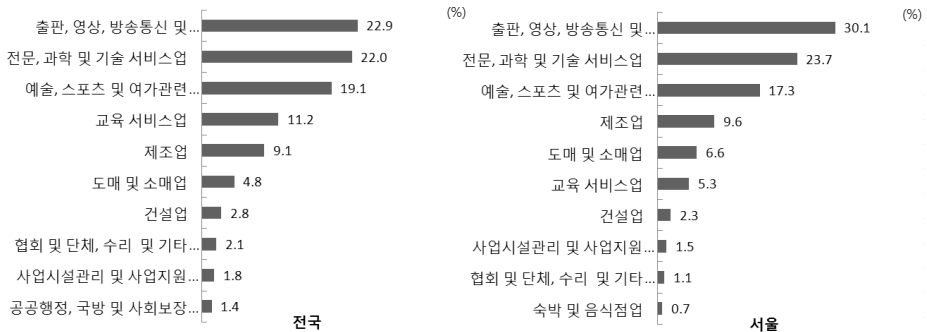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유형별로 보면, [그림 3-31], [그림 3-32], [그림 3-33]에서 알 수 있듯이 창조계층 유형별로 차별화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도 창조계층 전체보다 높은 편이다.



[그림 3-31]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의 산업 대분류별 밀집도(2013)



[그림 3-32]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의 산업 대분류별 밀집도(2013)



[그림 3-33]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의 산업 대분류별 밀집도(2013)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창조계층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창조계층 인력 밀집도 상위 4대 산업은 창조계층 유형별로 상이하다. 핵심 창조계층에서 상위 4대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44.4%),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0.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6.3%), 제조업(5.2%) 등이다. 창조적 전문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4.0%)을 비롯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5%), 도매 및 소매업(11.0%), 금융 및 보험업(7.9%) 등이다. 그리고 보헤미안은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30.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7.3%), 제조업(9.6%) 등으로 나타난다.

서울의 창조계층 밀집도 상위 4대 산업이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인 것과 비교하면 창조계층 유형별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창조계층 유형별로 특화된 업종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창조계층 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서울 지역의 산업구조와 더불어 창조계층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향후 창조경제적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업을 육성할 때는 창조적 전문가나 보헤미안보다는 핵심 창조계층<sup>32)</sup>을 우선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창조계층 유형별로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창조계층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창조계층 전체에서 상위 4대 산업에 대한 집중도는 65.6%였다. 창조적 전문가는 상위 4대 산업의 집중도가 64.4%로 창조계층 전체와 유사하지만,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에서 상위 4대 산업에 대한 집중도는 각각 85.9%, 80.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은 상대적으로 창조적 전문가보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창조적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넓은 산업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지만,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의 창의적 역량은 상대적으로 범용성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교육 서비스업은 핵심 창조계층에서 44.4%의 높은 밀집도를 보였으나, 창조적 전문가에서는 1.9%, 보헤미안에서는 5.3%에 불과했다.

### (3)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 1위는 6년 연속 교육 서비스업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살펴보면, 산업 밀집도 상위 10대 산업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9.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4%)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가 가장 높았던 교육 서비스업에서는 창조계층 인력이 오히려 1.8%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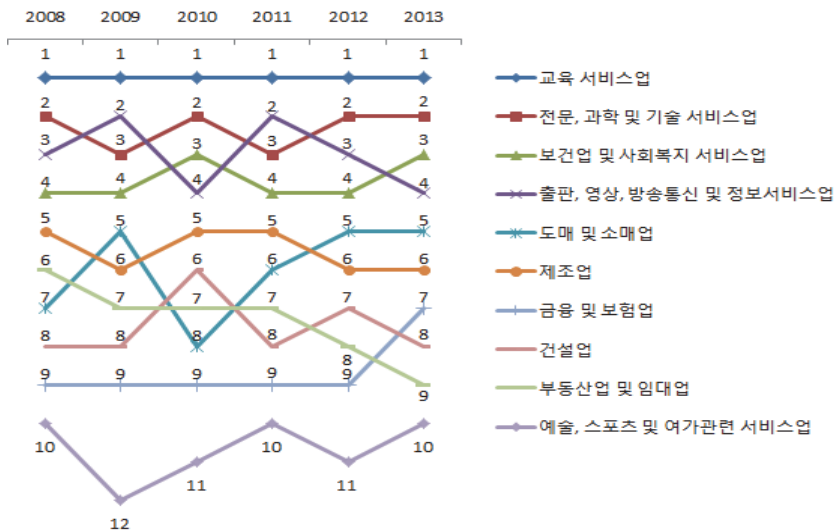
전국 상위 10대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보면, 서울과 유사하게 교육 서비스업의 창조계층 인력은 연평균 0.8% 하락했고,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1%) 등에서 창조계층 인력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31] 산업 밀집도 상위 10대 대분류 산업의 창조계층 인력 연평균 증가율(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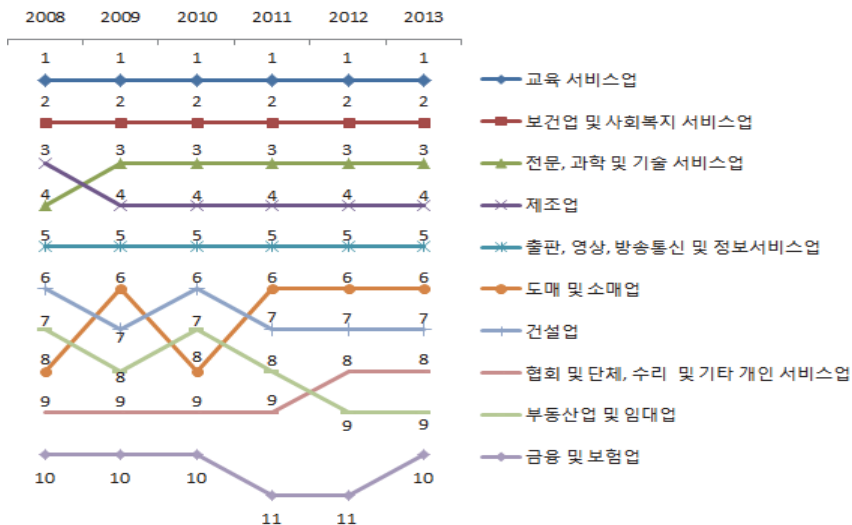
전국		서울	
산업명	연평균 증가율	산업명	연평균 증가율
교육 서비스업	-0.8	교육 서비스업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2
제조업	0.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1	도매 및 소매업	3.9
도매 및 소매업	3.9	제조업	-4.3
건설업	-4.1	금융 및 보험업	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5	건설업	-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8.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6
금융 및 보험업	2.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

한편, 2008~2013년 중 서울의 산업 밀집도 순위 변화를 보면, 교육 서비스업은 6년 연속 1위를 유지했으나, 다른 산업들은 매년 순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2위였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09년 3위로 하락했다가 2010년 다시 2위로 상승하는 등 2~3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8년 3위였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도 2~4위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3년 4위로 하락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08년 4위에서 2013년 3위로 상승했고,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은 각각

2008년 7위, 9위에서 2013년 5위, 7위로 상승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2008년 10위에서 2009년 12위까지 하락했으나, 2013년에 10위로 다시 상승했다. 반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2008년 6위에서 2013년 9위로 가장 많이 순위가 하락했다. 이에 비해 전국은 교육 서비스업이 6년 연속 산업 밀집도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5위 내의 산업들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등 서울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4]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대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2008~2013)



[그림 3-35] 전국 창조계층 인력의 대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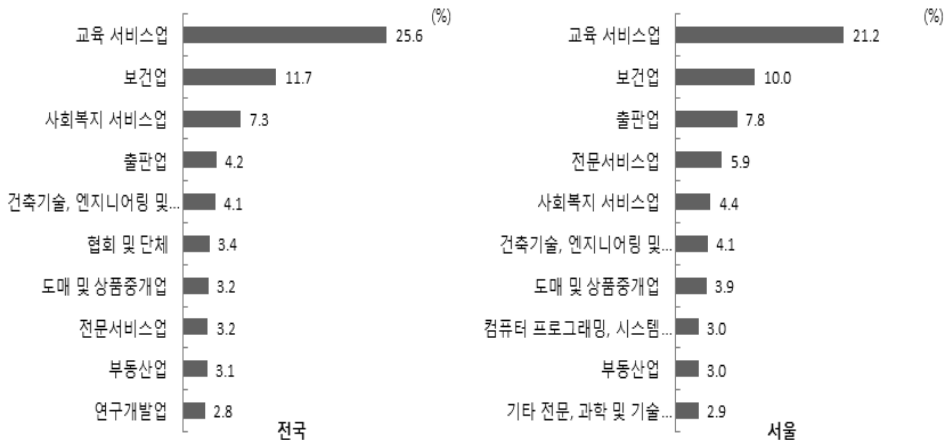


## 2) 중분류 특성 :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 전문서비스업에 밀집

### (1)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약 45%가 4개 업종에 밀집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총 75개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 전문서비스업 등 4개 산업에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44.9%가 밀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서비스업 21.2%,<sup>33)</sup> 보건업 10.0%, 출판업 7.8%, 전문서비스업 5.9% 등의 순으로 창조계층 인력이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가 1% 이상인 산업은 총 75개 산업 중 24개 산업이다. 이 중 10% 이상은 단 2개, 2% 이상인 산업도 16개에 불과할 정도로 창조계층 인력은 소수 산업에 밀집되어 있다.

2013년 전국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보면, 교육 서비스업 25.6%, 보건업 11.7%, 사회복지 서비스업 7.3%, 출판업 4.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상위 4개 산업의 밀집도는 48.8%로 서울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서울에 비해 출판업의 밀집도가 매우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밀집도는 높은 편이다. 또한 전국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가 1% 이상인 산업은 총 75개 산업 중 20개, 2% 이상인 산업도 12개로 서울보다 특정 산업에 대한 밀집도가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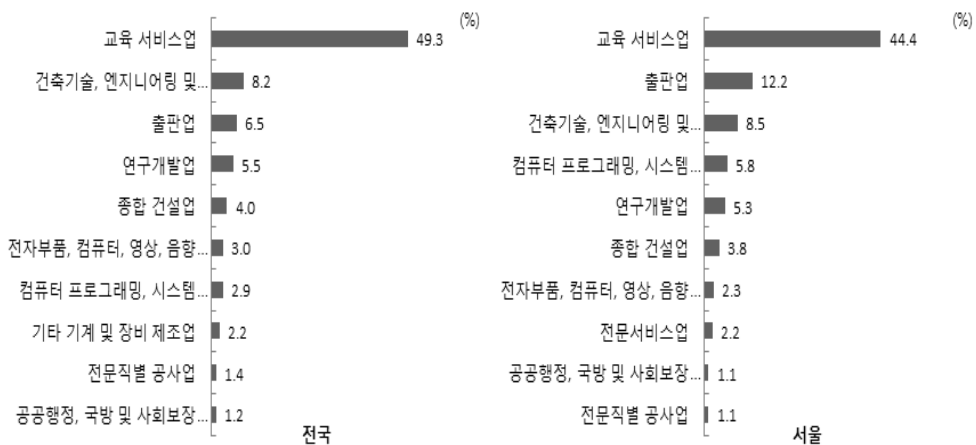


[그림 3-36] 전국 및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2013)

33) 교육 서비스업은 산업분류상 대분류와 중분류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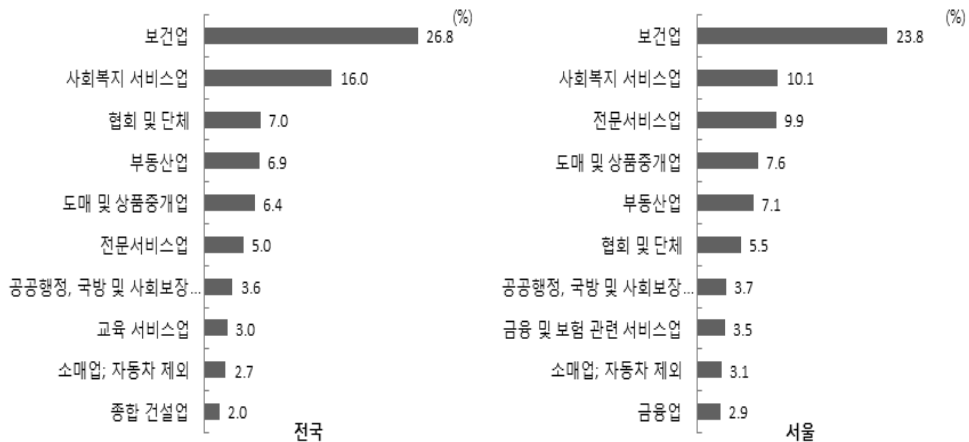
## (2) 창조계층 유형별로는 3~5개 업종에 집중된 형태이나 유형별로 상이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은 모든 유형 가운데 교육 서비스업에 대한 밀집도가 가장 높다. 창조계층 인력은 교육 서비스업에만 44.4%가 밀집되어 2위인 출판업(12.2%)과 32.2%p의 밀집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8.5%),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5.8%), 연구개발업(5.3%) 등이 5% 이상의 창조계층 인력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과 비교해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은 출판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밀집도가 각각 전국의 1.9배, 2.0배 수준에 달했다.



[그림 3-37] 전국 및 서울시 핵심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2013)

2013년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의 산업별 밀집도를 보면, 보건업이 23.8%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 서비스업(10.1%), 전문서비스업(9.9%) 등의 순이며, 도매 및 상품중개업(7.6%), 부동산업(7.1%), 협회 및 단체(5.5%) 등도 5% 이상의 밀집도를 보였다. 창조적 전문가는 전국과 서울시 모두 보건업에서 밀집도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밀집도는 서울시 전국보다 크게 낮은 반면, 전문서비스업에서의 밀집도는 서울시 전국 수준을 약 2배 정도 상회하고 있다.



[그림 3-38] 전국 및 서울시 창조적 전문가의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2013)

다른 유형과 달리 보헤미안은 특별히 한 산업에 밀집된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보헤미안 인력의 산업 밀집도는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7.3%로 가장 높았으나, 출판업(13.6%),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2.0%) 등도 10% 이상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과 비교하여 서울은 상대적으로 출판업과 방송업 밀집도가 높고, 교육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의 밀집도는 낮은 편이다.



[그림 3-39] 전국 및 서울시 보헤미안의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2013)

### (3) 지난 5년간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 추이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살펴보면, 산업 밀집도 상위 10대 산업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2.1%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전문서비스업(12.8%), 출판업(9.9%),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가 2.6%로 12위인 연구개발업도 지난 5년간 19.4%라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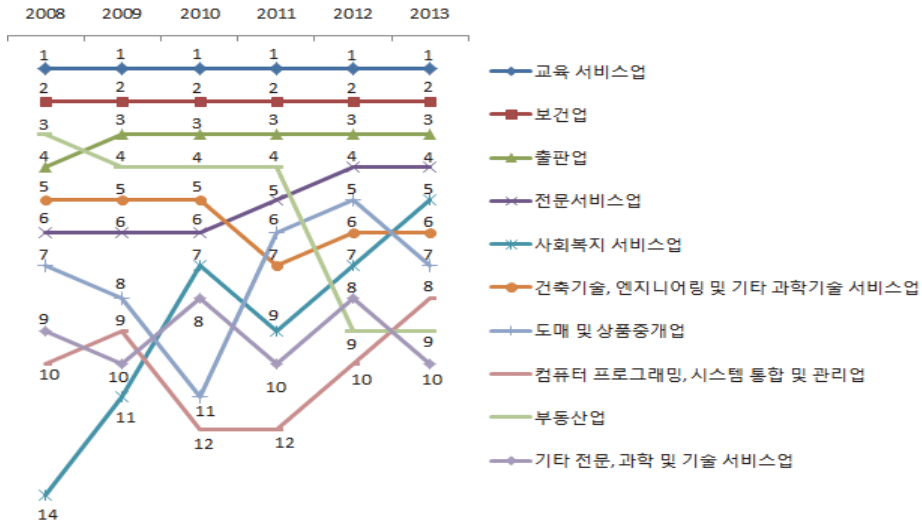
전국 상위 10대 산업에서 창조계층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7.5%로 가장 높고, 그다음 연구개발업(15.1%), 전문서비스업(12.2%), 출판업(9.8%), 보건업(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2]** 산업 밀집도 상위 10대 중분류 산업의 창조계층 인력 연평균 증가율(20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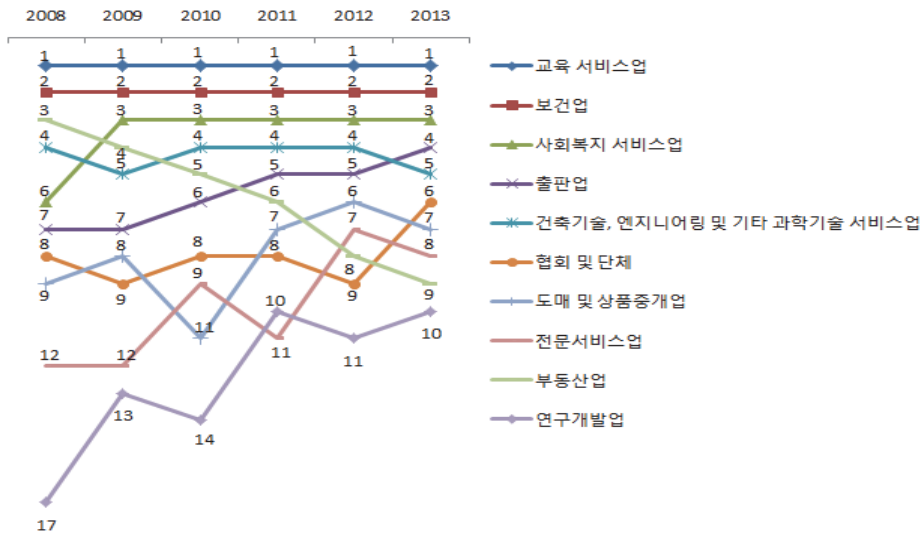
전국		서울	
산업명	연평균 증가율	산업명	연평균 증가율
교육 서비스업	-0.8	교육 서비스업	-1.8
보건업	6.3	보건업	5.5
사회복지 서비스업	17.5	출판업	9.9
출판업	9.8	전문서비스업	12.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2.3	사회복지 서비스업	22.1
협회 및 단체	5.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9
도매 및 상품중개업	5.7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문서비스업	12.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1
부동산업	-8.3	부동산업	-12.8
연구개발업	15.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

한편, 2008~2013년 중 서울의 중분류 기준 산업 밀집도 순위 변화를 보면,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이 각각 6년 연속 1, 2위를 유지했다. 출판업이 2008년 4위에서 2013년 3위로 상승했고, 전문서비스업도 2008년 6위에서 2013년 4위,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2008년 10위에서 2013년 8위로 상승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08년 14위였으나 2013년 5위로 급등한 반면, 부동산업은 2008년 3위에서 2013년 9위로 급락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에 창조계층 인력이 많이 몰

린 가운데, 전문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에 창조계층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전국은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이 각각 6년 연속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008년 6위에서 2009년 이후로 3위를 유지하고 있고, 출판업과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그림 3-40]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2008~2013)



[그림 3-41] 전국 창조계층 인력의 중분류 산업 밀집도 순위 추이(2008~2013)

### 3) 창조계층론 관점에서 본 서울형 창조산업 탐색

#### (1) 창조산업 정의는 국가나 기관마다 다양

창조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 구성요소이지만, 이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국가나 기관마다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DCMS(2001)는 광고, 음악, 출판 등 13개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정의했다. UNDP & UNCTAD(2010)는 문화유산, 예술, 미디어, 기능적 창조 등 4개 그룹의 9개 분야를, WIPO(2003)는 주로 저작권과 관련된 20개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제시했다. 창조산업의 범위는 초기에 문화산업에 국한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를 벗어나 창조계층론 관점에서 서울형 창조산업을 탐색한다. 이는 창조산업 근간에 창조계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존 창조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창조산업의 후보군이 될 수 있고, 창조계층 집중도를 통해 창조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표 3-33] 주요 기관의 창조산업 범위

UK DCMS	UNCTAD	WIPO
① 광고 ② 건축 ③ 예술·공동품시장 ④ 공예 ⑤ 디자인 ⑥ 패션 ⑦ 인터랙티브 레저 소프트웨어 ⑧ 비디오·영화 ⑨ 음악 ⑩ 공연예술 ⑪ 출판 ⑫ 소프트웨어·컴퓨터 서비스 ⑬ 텔레비전·라디오	1. 문화유산 ① 전통문화 ② 문화장소 2. 예술 ③ 시각예술 ④ 공연예술 3. 미디어 ⑤ 출판, 인쇄매체 ⑥ 음향영상 4. 기능적 창조 ⑦ 디자인 ⑧ 뉴 미디어 ⑨ 창조적 서비스	1. 핵심 저작권산업 ① 광고, ② 저작권관리 단체, ③ 비디오·영화, ④ 음악, ⑤ 공연예술, ⑥ 출판, ⑦ 소프트웨어, ⑧ 텔레비전·라디오, ⑨ 비주얼·그래픽 아트 2. 상호의존적 저작권산업 ⑩ 레코딩 재료, ⑪ 가전제품, ⑫ 악기, ⑬ 논문, ⑭ 복사기, 사진장비 3. 부분적 저작권 산업 ⑮ 건축, ⑯ 의류, 신발, ⑰ 디자인, ⑱ 패션, ⑲ 가사용품, ⑳ 장난감

자료 : UNDP & UNCTAD, 2010,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DCMS, 2001, 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2001, London, HMSO

## (2) 정보서비스업 등 14개 산업이 서울형 창조산업으로 발전 가능

이 연구에서는 서울형 창조산업 탐색을 위해 두 가지 지표를 사용했다. 첫 번째 지표는 산업별 창조계층의 비중이다. 특정 산업의 창조계층 비중은 해당 산업의 창조계층 인력 수를 해당 산업의 전체 취업자 수로 나누어 구했다. 분석 대상은 총 75개 중분류 기준 산업이다. 두 번째 지표는 산업의 서울 특화도이다. 특정 산업의 서울 특화도는 입지상(LQ)을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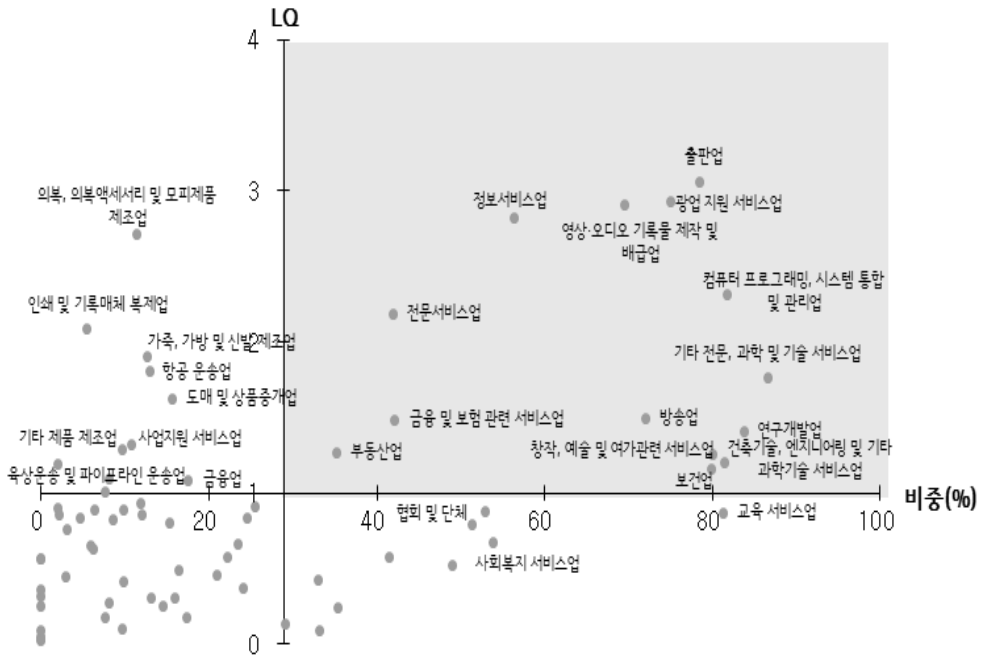
2013년 서울시 전 산업의 창조계층 평균 비중 28.9%와 입지상(LQ) 기준치 1을 사용해 [표 3-34]와 같이 4분면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I사분면은 산업 내 창조계층 비중이 서울 전 산업 평균 이상이고 산업 특화도(LQ)도 1 이상인 산업들로 구성된다. II사분면은 산업 내 창조계층 비중은 낮지만, 산업 특화도는 높은 산업들이다. III사분면은 산업 내 창조계층 비중과 산업 특화도가 모두 낮은 산업들이다. IV사분면은 산업 내 창조계층 비중은 높지만 산업 특화도는 낮은 산업들로 구성된다.

서울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I사분면과 II사분면에 속하는 산업이다. I사분면에 속하는 산업은 서울에 특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창조계층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되어 산업 내에서 창의성 발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II사분면에 속하는 산업은 서울에 특화는 되어 있지만, 창조계층 인력이 많지 않으므로 정책적으로 이들 산업은 창조계층 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표 3-34] 서울형 창조산업 탐색을 위한 유형화

구분	내용
I사분면	산업 내 창조계층 비중과 산업 특화도가 모두 기준치 이상
II사분면	산업 내 창조계층 비중은 기준치 이하, 산업 특화도는 기준치 이상
III사분면	산업 내 창조계층 비중과 산업 특화도가 모두 기준치 이하
IV사분면	산업 내 창조계층 비중은 기준치 이상, 산업 특화도는 기준치 이하

분석 결과, 총 75개 중분류 산업 중 Ⅲ사분면의 산업이 40개로 가장 많고, Ⅰ사분면 14개, Ⅱ사분면 11개, Ⅳ사분면 10개로 나타났다.



[그림 3-42] 창조계층 비중과 산업 특화도에 따른 서울시 산업 분포도

이 중 서울형 창조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Ⅰ사분면의 대표적 산업은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방송업,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sup>34)</sup>

34) 이밖에 광업 지원 서비스업과 부동산업 등이 있는데, 주로 관련 산업의 본사나 기업형 회사들로 판단된다. 이는 광업 지원 서비스업이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구성되고, 이 산업의 창조계층이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51.8%),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48.2%) 등으로 구성된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부동산업도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산업의 창조계층은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이 89.9%를 차지하는 가운데 전문서비스 관리직(7.0%),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1.5%),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0.6%),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0.5%),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0.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창조계층 인력 확대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Ⅱ사분면의 산업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금융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등으로 주로 도심형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35] 창조계층 비중과 산업 특화도에 따른 서울시 산업 유형

구분	해당 산업명
I 유형 산업 (14개)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업
II 유형 산업 (11개)	금융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항공 운송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III 유형 산업 (40개)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통신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종합 건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전기장비 제조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수도사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수상 운송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보험 및 연금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숙박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수리업, 식료품 제조업, 음식점 및 주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금속 광업, 담배 제조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음료 제조업, 임업, 어업,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농업, 가구나 고용활동
IV 유형 산업 (10개)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협회 및 단체,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4\_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 분석

### 1) 변이할당 모형을 이용한 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 분석

창조계층의 고용증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 모형(shift-share model)을 이용했다. 변이할당 모형은 지역<sup>35)</sup>의 경제적 변수 변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법으로 산업, 이주, 기업성장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변수의 변화를 검토하는 데도 활용되지만, 직종분포와 고용증가 변화에도 사용된다. 변이할당 모형은 전통적 모형과 Esteban-Marquillas 모형으로 구분되며, 이 연구에서는 Esteban-Marquillas 모형<sup>36)</sup>을 사용한다.

전통적 변이할당 모형은 일반적으로 지역의 성장 요인이 지역을 구성하는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보고, 산업성장 요인을 국가경제 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 산업구조효과(industry-mix effect), 경쟁효과(competitive effect) 등 3가지로 파악한다. 국가경제 성장효과는 전국의 경제성장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산업구조효과는 산업의 전국적인 성장 특징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경쟁효과는 지역의 생산환경 특징으로 인한 지역성장을 각각 지칭한다.

그러나 전통적 변이할당 모형에서 경쟁효과는 산업구조효과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존재되어 있어 순수한 경쟁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Esteban-Marquillas 모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적 변이할당 모형을 확장한 것이다. 이 모형은 산업 내 경제적 변수의 동조적 수준(homothetic level)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변이할당 모형에 도입했다. 동조적 수준은 특정 지역이 국가와 동일한 산업구조(industrial mix)를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산업 내 변수들의 이론적 값(theoretical value)을 의미한다. 동조적 수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기존의 전통적 변이할당 모형과 달리 산업구조 효과는 경쟁효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고, 기존의 경쟁효과는 수정된 경쟁효과와 할당효과(allocation effect)라는 2개의 요소로 분리된다. GABE(2009)가 Esteban-Marquillas

35) 지역은 소도시(town), 도시(city), 자치주(county), 통계지역(statistical area) 또는 국가의 그 외 지역 모두 가능하다.

36) 이 모형은 Esteban-Marquillas(1972)가 제안한 것으로 전통적 변이할당 모형을 확장한 것이며, Herzog & Olsen(1977) 등의 논의를 거쳐 최근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GABE(2009) 등에서도 창조계층의 고용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활용했다.

모형을 특정 지역 창조계층의 고용변화에 활용하기 위해 적용한 변이할당모형의 식<sup>37)</sup>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sup>38)</sup>

$$\begin{aligned}
 e_i^{t+n} - e_i^t &= NS_i + OM_i + CM_i + AL_i \\
 NS_i &= \left( e^t \times \frac{E_i^t}{E^t} \right) \times \left( \frac{E_i^{t+n}}{E_i^t} - 1 \right) \\
 OM_i &= \left[ e_i^t - \left( e^t \times \frac{E_i^t}{E^t} \right) \right] \times \left( \frac{E_i^{t+n}}{E_i^t} - 1 \right) \\
 CM_i &= \left( e^t \times \frac{E_i^t}{E^t} \right) \times \left( \frac{e_i^{t+n}}{e_i^t} - \frac{E_i^{t+n}}{E_i^t} \right) \\
 AL_i &= \left[ e_i^t - \left( e^t \times \frac{E_i^t}{E^t} \right) \right] \times \left( \frac{e_i^{t+n}}{e_i^t} - \frac{E_i^{t+n}}{E_i^t} \right)
 \end{aligned}$$

$NS_i$  : 특정 지역  $i$  직종의 국가경제 성장효과

$OM_i$  : 특정 지역  $i$  직종의 직종구조효과(occupational mix effect)

$CM_i$  : 특정 지역  $i$  직종의 경쟁효과(competitive effect)

$AL_i$  : 특정 지역  $i$  직종의 할당효과(allocation effect)

$e_i^{t+n}$ ,  $E_i^{t+n}$  :  $t+n$ 년도(비교시점)에서 특정 지역과 전국의  $i$  직종 인력 수

$e_i^t$ ,  $E_i^t$  :  $t$ 년도(기준시점)에서 특정 지역과 전국의  $i$  직종 인력 수

$e$  : 특정 지역의 전체 인력 수 ( $e = \sum_i e_i$ )

$E$  : 전국의 전체 인력 수 ( $E = \sum_i E_i$ )

특정 지역  $i$  직종의 국가경제 성장효과(national growth effect)는 특정 지역  $i$  직종의 고용변화 중 국가 전체의 고용 성장으로 유발된 고용변화이다. 특정 지역  $i$  직종이 전국과

37) 위 식의 상세한 유도과정은 Esteban-Marquillas(1972)에 소개되어 있다.

38) 위 식은 국가경제 성장효과와 직종구조효과를 전통적인 변이할당모형과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으나, Esteban-Marquillas(1972)가 지적하였듯이, 위와 같이 수정된 표현방식이 각 지역의 부문별 고용증가의 다른 요인들을 더 명확한 방식으로 구분하게 한다.

동일한 직종구성(occupational composition)을 가진 가운데 지역 내  $i$  직종의 고용 증가세가 전국과 동일할 때의 고용변화를 가정한다. 즉, 지역성장이 국가경제 성장과 무관하지 않고, 국가경제 성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정 지역  $i$  직종의 직종구조효과(occupational mix effect)는 전국  $i$  직종의 고용증가 그리고 특정 지역과 전국의 직종구성 간 차이에 따른 특정 지역의 고용변화분을 의미한다. 즉, 특정 지역의 고용이 전국 기준으로 빠르게 또는 느리게 성장하는 직종에 집중되었을 때 지역 고용에 대한 영향을 표현한다. 직종구조효과는 특정 지역의 직종별 고용구조를 알려주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고용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의 직종구조효과는 특정 지역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해당 직종에서 초기 잉여(initial surplus), 즉 지리적 전문화를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지역  $i$  직종의 경쟁효과(competitive effect)는 특정 지역과 전국의 직종 증가율 차이에 따른 특정 지역의 고용변화분을 의미한다. 수정된 경쟁효과는 전통적 변이할당모형의 경쟁효과에서 지역의 모든 구조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의 직종구성을 반영한 동조적 수준으로 가중되어 있다.

특정 지역  $i$  직종의 할당효과(allocation effect)는 해당지역 특정 직종의 전문화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비교우위(competitive advantage)가 높은 부문에 지역이 전문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준다. 양의 할당효과는 지역의 성장이 높은 직종에서<sup>39)</sup> 지역이 전문화되어 있거나,<sup>40)</sup> 지역의 비교우위가 없는 직종에서<sup>41)</sup> 전문화되어 있지 않을 때<sup>42)</sup> 발생한다.

---

39)  $(e_i^{t+n}/e_i^t) - (E_i^{t+n}/E_i^t) > 0$

40)  $e_i^t - e^t \times (E_i^t/E^t) > 0$

41)  $(e_i^{t+n}/e_i^t) - (E_i^{t+n}/E_i^t) < 0$

42)  $e_i^t - e^t \times (E_i^t/E^t) < 0$

## 2) 창조계층의 고용변화는 80% 이상이 국가경제 성장효과

2008~2013년 중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변화를 변이할당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창조계층은 16만 557명 증가했는데, 국가경제 성장효과와 직종구조효과에 의해서 각각 13만 5,675명, 47,859명이 증가했고, 경쟁효과와 할당효과는 각각 1만 6,986명, 5,992명이 감소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서울시 창조계층의 지난 5년간 고용변화는 80% 이상이 국가경제 성장효과에 기인한 것이고, 직종구조효과는 29.8%, 경쟁효과는 -10.6%, 할당효과는 -3.7%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난 5년간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중 지역 경쟁력에 의한 고용증가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만 경쟁효과와 할당효과가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을 뿐,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은 모두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창조적 전문가에서 경쟁효과와 할당효과는 각각 -41.3%, -14.3%로 지역 경쟁력에 의한 고용증가가 매우 약한 편이었다. 또한 창조적 전문가와 핵심 창조계층은 국가경제 성장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보헤미안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직종에 집중된 효과를 보여주는 직종구조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36] 변이할당 모형에 의한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고용변화 분석(2008~2013)

(단위 : 명, %)

서울시	고용변화	국가경제 성장효과	직종구조 효과	경쟁효과	할당효과
창조계층	160,557 (100.0)	135,675 (84.5)	47,859 (29.8)	-16,986 (-10.6)	-5,992 (-3.7)
핵심 창조계층	37,733 (100.0)	26,338 (69.8)	6,261 (16.6)	4,148 (11.0)	986 (2.6)
창조적 전문가	71,610 (100.0)	82,754 (115.6)	28,717 (40.1)	-29,592 (-41.3)	-10,269 (-14.3)
보헤미안	51,214 (100.0)	26,583 (51.9)	27,974 (54.6)	-1,629 (-3.2)	-1,714 (-3.3)

# 04

---

## 정책적 시사점

1\_분석결과의 요약

2\_향후 정책방향

## 04 | 정책적 시사점

### 1\_분석결과의 요약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종사자 수는 149만 1,204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전국 창조계층의 27.4%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 입지상(LQ)으로 본 서울의 창조계층 집중도도 1.4로 기준치 1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서울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창조계층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8.9%로 전국 평균을 7.6%p 상회할 뿐 아니라 창조계층 규모가 2위인 경기도와 비교해도 4.7%p 높고, 16위인 전남보다 18.7%p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시 창조계층 규모 및 비중은 54개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36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을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가 각각 44.1%, 40.6%였으며, 보헤미안은 15.2%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의 창조계층이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울의 보헤미안 인력은 전국의 41.6%를 차지한다. 또한 서울의 창조계층은 2008년 133만 647명에서 2013년 149만 1,204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했다. 2008~2013년 중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 취업자 증가율을 1.3%p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서울의 고용증가는 창조계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창조계층 유형별로는 핵심 창조계층(1.2%)이나 창조적 전문가(2.5%)보다 보헤미안(5.2%)의 증가세가 높다.

둘째, 서울시 창조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 본 서울시 창조계층은 58.0%가 남성으로, 전국(56.0%)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특히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 모두 전국 남성 비중보다 높은 반면, 성별 격차가 가장 작은 유형은 보헤미안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여성 창조인력은 남성의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창조계층 인력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30대가 3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은 40대(25.4%), 30대 미만(20.4%), 50대(15.4%), 60대 이상(4.9%)의 순으로 나타난다.

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은 30대가 가장 많고, 창조적 전문가는 40대가 많은 구조이다. 이는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50대와 60대 이상도 상당한 수준인 비창조계층과 대조적이다.

창조계층 인력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은 대졸 이상 인력이 89.8%로 비창조계층(38.8%)의 2배 이상이다. 비창조계층은 고졸이 43.6%로 가장 많고, 중졸도 10.5%에 달한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이 92.7%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창조적 전문가 88.0%, 보헤미안 85.8%로 나타난다.

셋째, 서울시 창조계층의 노동형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임금은 월평균 325.7만 원으로 전국(300만 원)보다 높고, 서울시 비창조계층(201.2만 원)과 비교해서는 1.6배 높은 수준이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창조적 전문가의 월평균 임금이 367.2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핵심 창조계층은 310.9만 원 수준이며, 보헤미안이 253.5만 원으로 가장 작았다. 또한 지난 5년간 임금증가세를 보면, 창조적 전문가가 2.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보헤미안(2.3%), 핵심 창조계층(1.9%) 순으로 나타난다. 전국의 창조계층 및 유형별 임금수준(전국=100)을 기준으로 한 서울시 창조계층의 상대적 임금수준은 108.6으로 전국보다 약 8.6% 높다. 창조적 전문가는 119.6으로 전국보다 19.6% 높고, 보헤미안(110.6)은 10.6%, 핵심 창조계층(102.3)은 2.3% 높은 수준이다.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3년 42.3시간으로 비창조계층(45.9시간)에 비해 3.6시간 짧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창조적 전문가의 근로시간이 44.6시간으로 가장 길고, 보헤미안은 42.4시간, 핵심 창조계층은 가장 짧은 40.1시간이다. 근로시간은 전국과 서울시 유사하고, 모두 점차 단축되는 추세이다. 플로리다 이론과 달리 서울시 창조계층의 근로시간이 비창조계층보다 적은 것은 창조계층과 비창조계층의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노동과 여가의 선호도 차이로 해석된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은 83.1%가 상용직으로 나타났다. 비창조계층의 상용직 비중이 54.5%인 것과 비교하면, 창조계층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창조적 전문가에서 상용직 비중이 90.2%로 매우 높고,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의 상용직 비중은 각각 79.6%,



73.9%로 창조적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2013년 창조계층의 상용직 비중은 2008년 대비 1.5%p 하락해 고용안정성이 소폭 하락했고, 특히 보헤미안에서 임시직 비중이 6.2%p나 확대되었다.

넷째, 서울의 창조계층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총 75개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 전문서비스업 등 4개 산업에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44.9%가 밀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서비스업 21.2%, 보건업 10.0%, 출판업 7.8%, 전문서비스업 5.9% 등의 순으로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가 1% 이상인 산업은 총 75개 산업 중 24개 산업이다. 이 중 10% 이상은 단 2개, 2% 이상인 산업도 16개에 불과할 정도로 창조계층 인력은 소수 산업에 밀집되어 있다. 전국은 서울에 비해 출판업에서 밀집도가 매우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밀집도는 높은 편이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서울의 창조계층 인력은 상위 3~5개 업종에 밀집된 형태이나 업종은 유형별로 상이하다. 핵심 창조계층 인력은 교육 서비스업에만 44.4%가 밀집되어 2위인 출판업(12.2%)과 32.2%p의 밀집도 격차를 보인다. 창조적 전문가 인력은 보건업이 23.8%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10.1%, 전문서비스업 9.9% 등의 순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밀집도는 서울이 전국보다 크게 낮은 반면, 전문서비스업은 서울이 전국 수준을 약 2배 정도 상회한다. 다른 유형과 달리 보헤미안은 소수 특정 산업에 밀집된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보헤미안 인력의 산업 밀집도는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17.3%로 가장 높았으나, 출판업(13.6%),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2.0%) 등도 10% 이상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2008~2013년 중 서울의 중분류 기준 산업 밀집도 순위 변화를 보면,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이 각각 6년 연속 1, 2위를 유지했다. 출판업이 2008년 4위에서 2013년 3위로 상승했고, 전문서비스업도 2008년 6위에서 2013년 4위,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2008년 10위에서 2013년 8위로 상승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08년 14위였으나 2013년 5위로 급상승한 반면, 부동산업은 2008년 3위에서 2013년 9위로 급락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에 창조계층 인력이 많이 몰린 가운데, 전문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

업 등에 창조계층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서울시 전 산업의 창조계층 평균 비중 28.9%와 LQ 기준치 1을 사용해 서울시 75개 산업을 유형화한 결과, 서울형 창조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은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방송업,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조계층 인력 확대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산업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 주로 도심형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난 5년간 창조계층의 고용변화를 변이할당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증가는 80% 이상이 국가경제 성장효과이고, 29.8%가 직종구조효과이며, 해당 직종의 비교우위나 전문화 등을 보여주는 경쟁효과와 할당효과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만 경쟁효과와 할당효과가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을 뿐,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은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창조적 전문가는 경쟁효과와 할당효과가 각각 -41.3%, -14.3%로 지역 경쟁력에 의한 고용증가가 매우 약한 편이었다. 또한 창조적 전문가와 핵심 창조계층은 국가경제 성장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보헤미안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직종에 집중된 효과를 보여주는 직종구조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2\_향후 정책방향

### 1) 창조계층의 양적 확대 필요

서울시 창조계층의 규모는 국내에서는 경기도와 더불어 높은 수준이나(2강(強) 14약(弱) 구조), 창조계층 비중이 40% 이상인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 5년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이 양적으로 늘었지만, 그 요인이 주로 국가경제 성장효과 및 직종구조효과로 나타나 서울 고유의 비교우위 및 전문화 등에 기인한 경쟁력 요인은 미흡한 상태이다.

창조계층 인력의 양적 확대는 직접 확대 전략과 간접 확대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 확대 전략은 인력 프로그램 개발 등 인력 측면의 육성 전략이다. 간접 확대 전략은 2가지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산업육성을 통해 그 산업에서 창조계층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창조계층의 유입 및 육성을 위한 지역 어메니티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

### 2) 비창조계층 인력의 창조계층 인력화

비창조계층 인력을 창조계층 인력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산업 특성을 무시한 단순한 창조인력 양성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산업과 연계한 산업-인력 혼합(mix) 전략의 운용이 바람직하다. 이때, 산업은 우선적으로 서울에 특화되어 있지만, 창조계층 인력 비중이 낮은 부문부터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장에서 서울의 산업 내 창조계층 비중과 산업 특화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 도심형 제조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도심제조업에서 창조계층 인력양성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CT는 창조경제의 기반이다. 도심제조업은 현재 영세업체가 다수로, 열악한 조업환경과 숙련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위기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창조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도심제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대표적

인 사업으로는 서울시 도심제조업의 고도화 및 노하우 전수를 위한 융복합 사업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wearable)<sup>43)</sup>사업화’와 ‘Digital meister e-training’ 등을 들 수 있다. 웨어러블 사업화는 의류·봉제·수제화 등 패션 제품에 웨어러블 디바이스<sup>44)</sup> 아이템을 활용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Digital meister e-training을 통해 젊은 층에게 장인의 기술을 전수하고, 3D Printing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통해 도심제조업에서 창조계층 인력을 배출할 필요가 있다.

### 3) 창조계층 인력의 유입 및 유지

창조계층의 연령별 분석 결과, 서울의 창조계층은 30대 및 40대 위주이고 50대 이상은 미미한 상태이다. 50대 이상의 퇴직 창조계층을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을 통해 창조계층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치료음악, 치료미술, 치료연극 등은 새로운 시장창출 가능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음악, 방송 등의 분야에서 퇴직한 창조계층을 대상으로 융합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그 외에 전문화된 50대 이상 PD와 20~30대 IT 전문가가 결합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개인형 전기 및 추억영상을 제작하는 사업도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

### 4) 창의인력 양성사업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서울시는 2012년 7월부터 창의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을 비롯해 ‘창조아카데미’, ‘캠퍼스 CEO’, ‘모바일 인력양성’,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등을 실시했고, 2015년에도 ‘서울크리에이티브랩’, ‘창조아카데미’, ‘미래형 신직업군 양성’, ‘캠퍼스 CEO’, ‘서울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청소년 생각배움’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취업 855명, 창업 57건, 신규고용 145명 등 총 1만 4천 명의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45)</sup>

43) 현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부응한 세련되면서도 현실적으로 입을 수 있는 패션을 지칭한다.

44)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는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며, 일부 컴퓨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포함하고 있다(심수민, 2014, 「2014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백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중심으로」, kt경제경영연구소).

[표 4-1] 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주요 양성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허브 역할 수행(2013년 7월 개소)</li> <li>- 아이디어 구체화 교육 및 핵심영역의 융합연구 병행</li> <li>- 대외협력 오픈 네트워크 구축</li> </ul>
창조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소재 대학을 통한 산업별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li> <li>- 창조아카데미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li> <li>- 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한 Two-Track 방식 추진</li> </ul>
캠퍼스 C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 예비창업자 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인력양성</li> <li>-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실전위주 창업교육과정 운영</li> </ul>
미래형 신직업군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사회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유망직업 발굴 및 인력양성</li> <li>- 사회서비스, 자원활용-에너지, IT융합 등의 분야 지원</li> </ul>
서울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커뮤니티 현안조사를 통한 도시사회 문제 해결</li> <li>- 창의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li> </ul>
청소년 생각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자원인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 배양</li> <li>- 참여형 워크숍형 교육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li> </ul>
모바일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애로기술 연구</li> <li>- 2015년부터 창조아카데미 사업에 편입</li> </ul>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고용창출 및 인력양성 도모</li> <li>- 초기 스타트업 자회사의 기반구축에 따라 2014년에 종료</li> </ul>

자료 : 서울산업진흥원, 2015. 2., 2015년도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계획 등을 참조해 재작성

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초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첫째,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교육과정 중심이고, 성과도 수료생 위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성과로의 연결이 미흡하다. 둘째, 사업 간 독자적 시행으로 외부협력체계가 다소 부족하다. 셋째, 기존의 프로그램이 교육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 확산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업평

45) 서울산업진흥원, 2015. 2., 2015년도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계획, 서울산업진흥원.

가는 논리모형(Logic Model)에 기반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논리모형은 ‘투입→과정→산출→결과’의 틀로 구성된다. 논리모형에 기반한 사업평가는 평가가 산출에만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이나 프로그램 집행으로 발생하는 결과 및 영향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업평가에 기반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 보완 여부, 신규 사업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기존 교육기관 주도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 창직, 창업, 취업 등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려면 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해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 5) 창조계층의 밀집도가 높은 산업을 산업정책과 연계해 육성

서울의 산업 중 창조계층 밀집도가 높으면서 특화도가 큰 산업을 서울시 산업정책과 연계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 3장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창조계층이 많은 산업, 즉 창조산업은 서울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최첨단 창업 기업이 밀집해 있다. 창조계층이 밀집된 이스라엘의 최첨단 산업은 산업수출의 54%, 총수출의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1,000명 중 9명꼴로 R&D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의 약 2배 수준이다.<sup>46)</sup>

#### 6) 지역 어메니티 개선을 통한 창조계층의 유입 촉진

플로리다(2002)는 창조계층은 전통적인 기업 중심지나 선벨트 지역에서 벗어나 창조적 중심으로 이동한다고 보고 있다. 창조적 중심지는 자연자원이나 교통에 대한 근접성, 또는 세금우대 조치 등과 같은 인센티브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창조계층이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창조계층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

<sup>46)</sup> Martin Prosperity Institute, 2011, Creativity and Prosperity: The 2010 Global Creativity Index.

조계층이 필요로 하는 지역 어메니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창조계층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주거지에서 근린 어메니티와 환경 어메니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은주·김도형(2014)에 따르면, 창조계층은 주거지 선택과 관련해 주택가격, 주택의 질, 좋은 대학의 존재, 범죄로부터의 안전, 교통 편의성 등 근린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기 질, 녹지환경, 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보행 환경 등 환경 어메니티와 관련된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도시 차원의 물리적 인프라 조성방안

구분	내용
근린 및 환경 어메니티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지역 내 치안의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li> <li>- 주거지와 연계된 녹지환경, 공원, 보행공간 등의 확충</li> <li>- 지역 내 선도적 교육기관 육성 지원</li> </ul>
문화융복합지구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 레스토랑 등의 쇼핑공간지구 조성</li> <li>- 지역 내 문화 거리(홍대, 이태원 등) 조성 및 보존 (해당 지구 내 축제, 행사 지원)</li> </ul>
창조체험관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지역주민의 창조아이템 체험 지원을 통한 창조문화 확산</li> </ul>

자료 : 오은주·김도형, 2014,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둘째, 문화 어메니티 중에서 창조계층이 필요로 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쇼핑 공간과 소비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오은주·김도형(2014)에 따르면, 문화 어메니티 중에서도 백화점·대형마트 등 쇼핑공간과 카페, 레스토랑 등 소비공간이 주거지 선택의 중요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는 박물관, 전시관 같은 전통적 문화공간보다 카페, 레스토랑 등 캐주얼한 도시 내 시설들이 창조계층을 모이게 하고 비공식적으로 교류하게 한다는 플로리다의 주장과 일치한다. 플로리다에 의하면, 창조계층은 보다 유기적이고 토착적인 거리(street) 문화에 끌린다. 비싸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일차원적인 문화활동보다 그들이 살고 일하는 지역에서 다른 창조계층과 교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문화활동을 선호한다. 따라서 다문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이를 축제나 행사와 결합하는 방식도 유용한데, 홍대, 이태원 등의 공간은 창조계층을 유인하는 용광로(melting pot)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곳이다.

한편, 독일은 지역수준(local level)에서 공연, 악단,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및 활동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월등한 공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활동 지원이 창조계층의 거주지 결정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극장들은 ‘역사적 편의시설’을 구성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창조계층의 거주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참고> 독일의 창조활동 지원

독일은 극장 공연, 교향악단,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 및 활동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보다 월등한 수준의 공적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연방통계청(Destatis, 2008)에 따르면, 2006년 주와 지방정부에서 1인당 84유로(Euro)의 문화활동 보조금을 지출한 반면, 연방정부 지출은 12유로에 불과했다. 일례로, ‘음악 및 공연’ 항목의 지출금액은 1인당 42유로 중 61%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했다. 또한 독일 극장들은 ‘역사적 편의시설(historic amenities)’을 구성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창조계층의 거주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자료 : Buettner, T. and Janeba, E., 2013, City Competition for the Creative Class,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4417

#### 가) 향후 창조계층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 필요

이 보고서에서는 창조계층의 통계적 산출방법과 인구통계적·노동행태적, 그리고 산업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향후 서울시 창조계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통계로 파악할 수 없는 중요 부문에 대해 세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창조계층의 정주지역, 주거환경의 선호도와 만족도, 공간선호도와 생활양식, 작업방식과 노동문화 등의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계층의 타깃 대상을 정한 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병수, 2009, “창조계급과 창조도시전략 : 대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2호.
- 구문모, 2007, “국내 지방광역시의 창조산업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기본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9권 제2호.
- 구문모·박정수, 2013,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추이 및 서비스직종의 창조인력화 방안」, 산업연구원.
- 구문모·박정수, 2014,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통계적 산출과 지역발전 정책의 함의”, 『지방행정연구』, 제28권 제1호.
- 김대호, 2014, 「창조경제정책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동완, 2008, “규모의 지리 측면에서 바라본 창조적 계급과 도시 창조성 : 도시 창조성의 재구성과 도시 정책적 시사점”, 『공간과 사회』, 통권 제29호.
- 김영수, 2013, “창의계층의 산업별·지역별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3년 11월, 산업연구원.
- 김의준·윤민경·이창근·최명섭, 2009, “창조산업의 도시 고용 효과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2호.
- 김정호, 2013, “창조도시의 도시경쟁력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1호.
- 김필수·오준범·이부영, 2013, “한국의 창조직업 현황과 시사점”, 『VIP 리포트』, 544호, 현대경제연구원.
- 김현호·이소영·오은주·박진경·김도형, 2011,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홍주·박기풍, 2010, “도시의 창조적 계급기술관용의 공간적 집중과 클러스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5권 제1호.
- 리처드 플로리다, 2011, 「신창조계급」, 이갈태 옮김, 북콘서트.
- 리처드 플로리다, 2011, 「제3차 세계 리셋」, 김민주·송희령 옮김, 비즈니스맵.
- 박정수·김홍석·이동화·김희석·박종성·하봉찬, 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과제”, 『ISSUE PAPER 2013-313』, 산업연구원.
- 서울산업진흥원, 2015, 2015년도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계획, 서울산업진흥원.
- 신성희, 2006, “창조계급 및 창조도시들의 분포특성과 창조적 도시조성 방안의 시사점”, 『공간과 사회』, 통권 25호.
- 심수민, 2014, 「2014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백서-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중심으로」, kt경제경영연구소.

- 오은주김도형, 2014, 「창조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환경 조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경선, 2014, 「창조일자리 변화추이 분석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대창, 2013, “창조직업과 지역발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제7권 제1호.
- 이장우, 2013, 「창조경제의 이해와 대응방안」, 창조경제연구원.
- 이장우, 2013, “창조경제에서 융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상생의 경제민주화 실천방안 정책세미나」.
- 이철호, 2011, “창조계급과 창조자본 : 리처드 플로리다 이론의 비판적 이해”,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9집 제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 이훈·오동훈, 2011, “플로리다 창조계급론의 국내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임금구조를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제17집 제3호.
- 차두원유지연, 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분석”, 「ISSUE PAPER 2013-0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최기조, 2010, “창조적 계급과 지역성장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지역연구」, 제26권 제3호.
- 최보연, 2013, “영국 창조인력양성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제28집.
- 황수경, 2014,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 창의고용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Bakhshi, H., Freeman A. and Higgs, P., 2013, “A Dynamic Mapping of The UK's Creative Industries”, NESTA.
- Boschma, R. A. and Fritsch, M., 2009, “Creative class and regional growth : Empirical evidence from seven European countries”, **Economic Geography**, vol.85, no.4.
- Buettner, T., Janeba, E., 2013, **City Competition for the Creative Class**, CESifo Working Paper Series No. 4417.
- Cooke, P. and Delaurentis, C., 2002, “The Index of Knowledge Economies in the European Union : Performance Rankings of Cities and Regions”, **Regional Industrial Research Report 41**, Centre for Advanced Studies, Cardiff University.
- DCMS, 2001, The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2001, London : HMSO.
- Esteban-Marquillas, J. M., 1972, “A reinterpretation of shift-share analysis”,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vol.2, no.3.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 Basic Books.
- Florida, R. 2003,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City & Community**, vol.2, no.1.
- Florida, R., 2004, **Cities and Creative class**, Routledge.

- Florida, R., 2007,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ew York : Basic Books.
- Fritsch, M., and Stuetzer, M., 2012, “The geography of creative people in Germany revisited”, **Jena Economic Research papers**.
- Gabe, T., 2006, “Growth of Creative Occupations in U.S. Metropolitan Areas: A Shift-Share Analysis”, **Growth and Change**, vol.37, no.3.
- Herzog, H. W. and R. J. Olsen, 1977, “Shift-Share Analysis Revisited : The Allocation Effect and The Stability of Regional Structur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17, no.3.
- Higgs, P., Cunningham, S., 2008, “Creative Industries Mapping : Where have we come from and where are we going?”, **Creative Industries Journal**, vol.1, no.1.
- Howkins, John, 2001,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London : Penguin.
- Luigi Fusco Girard, Tüzün Baycan and Peter Nijkamp, 2011, **Sustainable City and Creativity**, Ashgate.
- Marshall, A., 1920, **Industry and Trade**, London : Macmillan.
- Martin Prosperity Institute, 2011, **Creativity and Prosperity : The 2010 Global Creativity Index**.
- Martin Prosperity Institute, 2013, **Creative and Diverse : Ranking Global Cities**.
- McGranahan, D., Wojan, T., 2007, “Recasting the Creative Class to Examine Growth Process in Rural and Urban Counties”, **Regional Studies**, vol.41, no.2.
- UNDP & UNCTAD, 2010,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 WIPO, 2003, **Guide on Survey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Copyright Industries**, Geneva : WIPO.

## 부록

[부록 표 1] 전국 창조계층의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 수(2013)

(단위 : 명)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농업, 임업 및 어업	3,549	1,332	0	4,881	1,748,129	1,753,010
광업	1,823	220	0	2,042	13,407	15,449
제조업	305,606	154,934	49,820	510,360	3,708,064	4,218,4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1,350	4,531	0	25,881	65,989	91,87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702	3,158	0	9,860	68,747	78,607
건설업	137,156	65,498	15,527	218,181	1,585,848	1,804,029
도매 및 소매업	26,996	222,520	25,946	275,463	3,411,891	3,687,354
운수업	24,310	19,225	257	43,792	1,361,953	1,405,745
숙박 및 음식점업	850	30,584	5,254	36,689	1,960,235	1,996,92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73,000	31,025	124,876	428,901	248,870	677,771
금융 및 보험업	14,049	109,652	1,210	124,911	735,930	860,8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4,783	162,629	748	168,160	327,391	495,5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0,775	141,518	120,125	642,418	375,237	1,017,65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152	49,097	9,986	77,236	1,095,456	1,172,69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605	83,007	7,857	121,470	880,611	1,002,080
교육 서비스업	1,263,277	69,185	61,296	1,393,759	375,288	1,769,0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708	996,698	6,172	1,032,578	578,598	1,611,17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681	10,050	104,109	119,840	273,275	393,1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244	174,534	11,717	199,495	1,119,163	1,318,65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529	0	75	604	165,754	166,357
국제 및 외국기관	1,166	312	420	1,898	6,593	8,491
합계	2,563,313	2,329,710	545,395	5,438,419	20,106,427	25,544,845

[부록 표 2] 전국 창조계층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2013)

(단위 : %)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농업, 임업 및 어업	0.1	0.1	0.0	0.1	8.7	6.9
광업	0.1	0.0	0.0	0.0	0.1	0.1
제조업	11.9	6.7	9.1	9.4	18.4	16.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8	0.2	0.0	0.5	0.3	0.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3	0.1	0.0	0.2	0.3	0.3
건설업	5.4	2.8	2.8	4.0	7.9	7.1
도매 및 소매업	1.1	9.6	4.8	5.1	17.0	14.4
운수업	0.9	0.8	0.0	0.8	6.8	5.5
숙박 및 음식점업	0.0	1.3	1.0	0.7	9.7	7.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7	1.3	22.9	7.9	1.2	2.7
금융 및 보험업	0.5	4.7	0.2	2.3	3.7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0.2	7.0	0.1	3.1	1.6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9	6.1	22.0	11.8	1.9	4.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7	2.1	1.8	1.4	5.4	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	3.6	1.4	2.2	4.4	3.9
교육 서비스업	49.3	3.0	11.2	25.6	1.9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	42.8	1.1	19.0	2.9	6.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2	0.4	19.1	2.2	1.4	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5	7.5	2.1	3.7	5.6	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0	0.0	0.0	0.0	0.8	0.7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1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3]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 수(2013)

(단위 : 명)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0	0	6,110	6,110
광업	1,441	0	0	1,441	761	2,202
제조업	34,423	34,526	21,906	90,856	405,556	496,4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4,455	943	0	5,398	11,757	17,15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25	221	0	446	5,185	5,632
건설업	32,144	17,981	5,118	55,243	280,501	335,745
도매 및 소매업	11,691	66,696	15,059	93,446	823,605	917,051
운수업	4,461	5,994	257	10,711	260,936	271,647
숙박 및 음식점업	253	8,875	1,680	10,808	436,167	446,97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1,561	14,123	68,436	214,120	90,369	304,489
금융 및 보험업	8,079	47,682	798	56,560	215,089	271,6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48	43,407	236	44,791	95,611	140,4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7,228	69,594	53,713	230,535	148,782	379,31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757	17,028	3,437	27,223	236,228	263,4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445	22,382	1,134	30,961	158,667	189,628
교육 서비스업	292,060	11,609	11,969	315,638	72,751	388,39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8	205,839	1,252	215,779	94,458	310,2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20	3,014	39,377	44,111	46,338	90,44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73	35,848	2,523	42,444	210,402	252,84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	0	0	0	62,711	62,711
국제 및 외국기관	281	272	141	694	2,323	3,017
합계	658,133	606,034	227,036	1,491,204	3,664,309	5,155,512

[부록 표 4]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대분류별 비중(2013)

(단위 : %)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농업, 임업 및 어업	0.0	0.0	0.0	0.0	0.2	0.1
광업	0.2	0.0	0.0	0.1	0.0	0.0
제조업	5.2	5.7	9.6	6.1	11.1	9.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7	0.2	0.0	0.4	0.3	0.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	0.0	0.0	0.0	0.1	0.1
건설업	4.9	3.0	2.3	3.7	7.7	6.5
도매 및 소매업	1.8	11.0	6.6	6.3	22.5	17.8
운수업	0.7	1.0	0.1	0.7	7.1	5.3
숙박 및 음식점업	0.0	1.5	0.7	0.7	11.9	8.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0.0	2.3	30.1	14.4	2.5	5.9
금융 및 보험업	1.2	7.9	0.4	3.8	5.9	5.3
부동산업 및 임대업	0.2	7.2	0.1	3.0	2.6	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3	11.5	23.7	15.5	4.1	7.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2.8	1.5	1.8	6.4	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3.7	0.5	2.1	4.3	3.7
교육 서비스업	44.4	1.9	5.3	21.2	2.0	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34.0	0.6	14.5	2.6	6.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3	0.5	17.3	3.0	1.3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6	5.9	1.1	2.8	5.7	4.9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0.0	0.0	0.0	0.0	1.7	1.2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1	0.0	0.1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5]** 전국 창조계층의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2008~2013)

(단위 : 명, %)

산업명	종사자 수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08	2013	2008	2013	
농업, 임업 및 어업	3,028	4,881	0.06	0.09	10.0
광업	966	2,042	0.0	0.0	16.1
제조업	497,328	510,360	10.4	9.4	0.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9,542	25,881	0.6	0.5	-2.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698	9,860	0.2	0.2	2.5
건설업	269,489	218,181	5.6	4.0	-4.1
도매 및 소매업	227,308	275,463	4.8	5.1	3.9
운수업	44,117	43,792	0.9	0.8	-0.1
숙박 및 음식점업	31,346	36,689	0.7	0.7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9,447	428,901	6.7	7.9	6.1
금융 및 보험업	111,045	124,911	2.3	2.3	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58,779	168,160	5.4	3.1	-8.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9,435	642,418	9.6	11.8	6.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9,772	77,236	1.3	1.4	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4,931	121,470	2.2	2.2	3.0
교육 서비스업	1,449,796	1,393,759	30.3	25.6	-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46,237	1,032,578	13.5	19.0	9.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2,102	119,840	2.1	2.2	3.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2,907	199,495	3.2	3.7	5.5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02	604	0.0	0.0	-15.5
국제 및 외국기관	1,550	1,898	0.0	0.0	4.1
합계	4,779,226	5,438,419	100.0	100.0	2.6



**[부록 표 6]**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대분류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2008~2013)

(단위 : 명, %)

산업명	종사자 수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08	2013	2008	2013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0.0	0.0	0
광업	516	1,441	0.0	0.1	22.8
제조업	113,055	90,856	8.5	6.1	-4.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641	5,398	0.4	0.4	-0.9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854	446	0.1	0.0	-24.8
건설업	68,543	55,243	5.2	3.7	-4.2
도매 및 소매업	77,040	93,446	5.8	6.3	3.9
운수업	10,939	10,711	0.8	0.7	-0.4
숙박 및 음식점업	11,852	10,808	0.9	0.7	-1.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9,803	214,120	11.3	14.4	7.4
금융 및 보험업	48,464	56,560	3.6	3.8	3.1
부동산업 및 임대업	87,865	44,791	6.6	3.0	-1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7,113	230,535	11.8	15.5	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604	27,223	1.4	1.8	7.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784	30,961	1.6	2.1	7.3
교육 서비스업	346,080	315,638	26.0	21.2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9,001	215,779	10.4	14.5	9.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9,007	44,111	2.9	3.0	2.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751	42,444	2.4	2.8	6.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105	0	0.1	0.0	-100.0
국제 및 외국기관	630	694	0.0	0.0	2.0
합계	1,330,647	1,491,204	100.0	100.0	2.3

[부록 표 7] 전국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2013)

(단위 : 명)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농업	767	610	0	1,377	1,673,690	1,675,067
임업	698	722	0	1,419	12,366	13,786
어업	2,085	0	0	2,085	62,073	64,158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41	0	0	141	3,258	3,399
금속 광업	32	0	0	32	409	441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209	5	0	214	9,261	9,475
광업 지원 서비스업	1,441	215	0	1,655	480	2,135
식품품 제조업	5,360	5,191	0	10,551	321,600	332,151
음료 제조업	988	987	0	1,975	18,305	20,281
담배 제조업	0	0	0	0	3,550	3,55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114	2,682	1,436	6,231	142,373	148,60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798	5,054	21,143	26,995	240,304	267,29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52	985	2,145	3,882	57,387	61,26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62	975	146	1,383	36,727	38,1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5	1,146	415	1,786	67,740	69,5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17	589	5,573	6,479	75,709	82,18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30	910	0	2,140	13,087	15,22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9,818	8,241	615	28,673	131,428	160,10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403	8,664	0	17,066	33,557	50,62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252	7,258	1,309	14,819	225,868	240,68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93	2,560	674	6,927	110,021	116,947
1차 금속 제조업	6,791	4,947	0	11,738	141,010	152,74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4,659	12,793	810	28,263	343,772	372,03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77,404	16,327	1,635	95,366	402,454	497,8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8,636	22,679	304	41,619	72,128	113,747

[부록 표 7 계속] 전국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2013)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전기장비 제조업	30,288	12,020	2,187	44,496	208,223	252,71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5,320	21,125	473	76,919	342,070	418,98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314	12,131	1,780	37,226	367,517	404,74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380	6,697	28	32,105	179,944	212,049
가구 제조업	788	815	1,593	3,196	81,268	84,463
기타 제품 제조업	2,814	158	7,552	10,525	92,024	102,54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8,982	4,362	0	23,344	53,290	76,634
수도사업	2,369	168	0	2,537	12,699	15,23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682	261	0	4,943	13,646	18,589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388	2,777	0	4,165	53,380	57,54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32	120	0	752	1,722	2,474
종합 건설업	102,265	45,970	627	148,861	654,690	803,551
전문직별 공사업	34,891	19,529	14,900	69,320	931,158	1,000,478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55	11,065	0	11,820	149,226	161,0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4,167	148,286	10,147	172,600	1,110,443	1,283,042
소매업; 자동차 제외	12,074	63,169	15,800	91,043	2,152,223	2,243,266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732	10,312	0	15,044	1,091,676	1,106,720
수상 운송업	8,913	1,408	0	10,322	16,684	27,005
항공 운송업	3,955	41	0	3,996	32,573	36,56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710	7,464	257	14,430	221,020	235,450
숙박업	540	5,966	1,300	7,807	130,915	138,721
음식점 및 주점업	310	24,618	3,954	28,882	1,829,320	1,858,202
출판업	166,793	10,880	49,641	227,315	60,359	287,67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49	1,846	28,473	30,967	19,891	50,859
방송업	4,111	2,332	31,273	37,716	20,860	58,576
통신업	14,375	8,196	444	23,016	110,511	133,52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4,974	5,569	10,452	90,994	21,959	112,953
정보서비스업	12,098	2,203	4,593	18,893	15,289	34,182
금융업	6,582	40,820	57	47,460	315,160	362,620

[부록 표 7 계속] 전국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2013)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보험 및 연금업	2,716	26,520	631	29,866	311,256	341,12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751	42,312	522	47,585	109,514	157,099
부동산업	3,887	161,573	554	166,014	266,739	432,752
임대업; 부동산 제외	896	1,056	194	2,146	60,652	62,799
연구개발업	141,304	6,966	3,158	151,427	35,403	186,831
전문서비스업	27,508	115,623	28,265	171,397	266,320	437,71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09,408	9,186	2,825	221,419	52,495	273,91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55	9,742	85,878	98,175	21,018	119,19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794	4,449	322	10,565	185,237	195,802
사업지원 서비스업	12,359	44,648	9,664	66,671	910,218	976,88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0,605	83,007	7,857	121,470	880,611	1,002,080
교육 서비스업	1,263,277	69,185	61,296	1,393,759	375,288	1,769,046
보건업	8,804	624,805	1,034	634,643	211,495	846,138
사회복지 서비스업	20,904	371,893	5,138	397,935	367,103	765,038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38	6,120	61,984	71,341	40,867	112,208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444	3,931	42,125	48,499	232,408	280,908
협회 및 단체	9,398	164,004	9,583	182,985	114,105	297,090
수리업	3,378	4,325	158	7,861	375,109	382,970
기타 개인 서비스업	469	6,205	1,975	8,649	629,948	638,598
가구내 고용활동	529	0	75	604	165,754	166,357
국제 및 외국기관	1,166	312	420	1,898	6,593	8,491
합계	2,563,313	2,329,710	545,395	5,438,419	20,106,427	25,544,845

[부록 표 8] 전국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2013)

(단위 : %)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농업	0.0	0.0	0.0	0.0	8.3	6.6
임업	0.0	0.0	0.0	0.0	0.1	0.1
어업	0.1	0.0	0.0	0.0	0.3	0.3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0	0.0	0.0	0.0	0.0	0.0
금속 광업	0.0	0.0	0.0	0.0	0.0	0.0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	0.0	0.0	0.0	0.0	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0.1	0.0	0.0	0.0	0.0	0.0
식품품 제조업	0.2	0.2	0.0	0.2	1.6	1.3
음료 제조업	0.0	0.0	0.0	0.0	0.1	0.1
담배 제조업	0.0	0.0	0.0	0.0	0.0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1	0.1	0.3	0.1	0.7	0.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	0.2	3.9	0.5	1.2	1.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	0.0	0.4	0.1	0.3	0.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0	0.0	0.0	0.0	0.2	0.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	0.0	0.1	0.0	0.3	0.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	0.0	1.0	0.1	0.4	0.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0	0.0	0.0	0.0	0.1	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8	0.4	0.1	0.5	0.7	0.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3	0.4	0.0	0.3	0.2	0.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2	0.3	0.2	0.3	1.1	0.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1	0.1	0.1	0.1	0.5	0.5
1차 금속 제조업	0.3	0.2	0.0	0.2	0.7	0.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6	0.5	0.1	0.5	1.7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0	0.7	0.3	1.8	2.0	1.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7	1.0	0.1	0.8	0.4	0.4

[부록 표 8 계속] 전국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2013)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전기장비 제조업	1.2	0.5	0.4	0.8	1.0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0.9	0.1	1.4	1.7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9	0.5	0.3	0.7	1.8	1.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	0.3	0.0	0.6	0.9	0.8
가구 제조업	0.0	0.0	0.3	0.1	0.4	0.3
기타 제품 제조업	0.1	0.0	1.4	0.2	0.5	0.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7	0.2	0.0	0.4	0.3	0.3
수도사업	0.1	0.0	0.0	0.0	0.1	0.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2	0.0	0.0	0.1	0.1	0.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0.1	0.1	0.0	0.1	0.3	0.2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0	0.0	0.0	0.0	0.0	0.0
종합 건설업	4.0	2.0	0.1	2.7	3.3	3.1
전문직별 공사업	1.4	0.8	2.7	1.3	4.6	3.9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0	0.5	0.0	0.2	0.7	0.6
도매 및 상품중개업	0.6	6.4	1.9	3.2	5.5	5.0
소매업; 자동차 제외	0.5	2.7	2.9	1.7	10.7	8.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2	0.4	0.0	0.3	5.4	4.3
수상 운송업	0.3	0.1	0.0	0.2	0.1	0.1
항공 운송업	0.2	0.0	0.0	0.1	0.2	0.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3	0.3	0.0	0.3	1.1	0.9
숙박업	0.0	0.3	0.2	0.1	0.7	0.5
음식점 및 주점업	0.0	1.1	0.7	0.5	9.1	7.3
출판업	6.5	0.5	9.1	4.2	0.3	1.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0	0.1	5.2	0.6	0.1	0.2
방송업	0.2	0.1	5.7	0.7	0.1	0.2
통신업	0.6	0.4	0.1	0.4	0.5	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9	0.2	1.9	1.7	0.1	0.4
정보서비스업	0.5	0.1	0.8	0.3	0.1	0.1
금융업	0.3	1.8	0.0	0.9	1.6	1.4

**[부록 표 8 계속]** 전국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2013)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보험 및 연금업	0.1	1.1	0.1	0.5	1.5	1.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2	1.8	0.1	0.9	0.5	0.6
부동산업	0.2	6.9	0.1	3.1	1.3	1.7
임대업; 부동산 제외	0.0	0.0	0.0	0.0	0.3	0.2
연구개발업	5.5	0.3	0.6	2.8	0.2	0.7
전문서비스업	1.1	5.0	5.2	3.2	1.3	1.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2	0.4	0.5	4.1	0.3	1.1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1	0.4	15.7	1.8	0.1	0.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2	0.2	0.1	0.2	0.9	0.8
사업지원 서비스업	0.5	1.9	1.8	1.2	4.5	3.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	3.6	1.4	2.2	4.4	3.9
교육 서비스업	49.3	3.0	11.2	25.6	1.9	6.9
보건업	0.3	26.8	0.2	11.7	1.1	3.3
사회복지 서비스업	0.8	16.0	0.9	7.3	1.8	3.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	0.3	11.4	1.3	0.2	0.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0.1	0.2	7.7	0.9	1.2	1.1
협회 및 단체	0.4	7.0	1.8	3.4	0.6	1.2
수리업	0.1	0.2	0.0	0.1	1.9	1.5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	0.3	0.4	0.2	3.1	2.5
가구내 고용활동	0.0	0.0	0.0	0.0	0.8	0.7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1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9]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2013)

(단위 : 명)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농업	0	0	0	0	6,110	6,110
임업	0	0	0	0	0	0
어업	0	0	0	0	0	0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	0	0	0	0	0
금속 광업	0	0	0	0	0	0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	0	0	0	281	281
광업 지원 서비스업	1,441	0	0	1,441	480	1,920
식료품 제조업	260	443	0	703	23,256	23,959
음료 제조업	0	0	0	0	1,407	1,407
담배 제조업	0	0	0	0	643	64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56	543	729	1,528	17,381	18,90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88	3,854	13,242	17,684	138,789	156,47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	268	1,586	1,854	12,761	14,6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	236	0	236	2,669	2,9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	535	0	535	8,547	9,08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	238	1,293	1,531	26,633	28,16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	467	0	467	1,140	1,60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190	1,649	0	3,839	7,025	10,86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068	4,490	0	5,558	5,792	11,3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20	1,074	483	2,277	11,979	14,25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37	0	0	437	5,357	5,794
1차 금속 제조업	489	262	0	751	4,452	5,20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87	1,212	0	2,099	19,454	21,55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374	4,799	997	21,170	29,962	51,1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69	6,472	0	9,841	8,751	18,593



**[부록 표 9 계속]**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2013)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전기장비 제조업	1,798	2,264	447	4,509	15,872	20,38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06	3,912	242	8,060	25,451	33,5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415	1,641	267	4,323	8,705	13,02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	166	0	166	1,539	1,704
가구 제조업	0	0	982	982	6,548	7,529
기타 제품 제조업	667	0	1,639	2,305	21,442	23,74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160	943	0	5,104	10,360	15,463
수도사업	294	0	0	294	1,397	1,69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25	221	0	446	1,687	2,133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0	0	0	0	2,877	2,877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	0	0	0	621	621
종합 건설업	24,842	13,354	425	38,621	126,471	165,093
전문직별 공사업	7,302	4,627	4,693	16,622	154,030	170,652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54	1,782	0	2,336	25,150	27,486
도매 및 상품중개업	6,043	46,158	5,900	58,102	313,435	371,537
소매업; 자동차 제외	5,094	18,755	9,159	33,009	485,020	518,02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713	2,602	0	4,315	216,550	220,865
수상 운송업	524	335	0	859	4,729	5,588
항공 운송업	1,990	0	0	1,990	13,452	15,44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33	3,057	257	3,547	26,206	29,753
숙박업	0	1,771	246	2,018	30,568	32,586
음식점 및 주점업	253	7,103	1,434	8,790	405,598	414,389
출판업	79,989	5,367	30,883	116,239	31,787	148,02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50	1,409	15,236	16,895	7,400	24,295
방송업	1,630	1,051	17,287	19,968	7,758	27,726
통신업	6,457	2,096	444	8,997	27,551	36,54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7,962	3,457	2,893	44,312	9,894	54,206
정보서비스업	5,272	743	1,692	7,708	5,980	13,688
금융업	3,364	17,491	0	20,855	98,039	118,894

[부록 표 9 계속]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2013)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보험 및 연금업	1,884	9,210	276	11,370	83,627	94,99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2,831	20,982	522	24,335	33,423	57,758
부동산업	892	42,956	236	44,084	81,070	125,154
임대업; 부동산 제외	256	451	0	707	14,542	15,248
연구개발업	34,963	3,107	465	38,535	7,415	45,950
전문서비스업	14,260	60,098	13,039	87,397	120,856	208,253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6,259	3,935	915	61,109	13,837	74,94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46	2,455	39,294	43,494	6,673	50,167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107	851	0	2,958	35,795	38,753
사업지원 서비스업	4,651	16,177	3,437	24,265	200,432	224,69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445	22,382	1,134	30,961	158,667	189,628
교육 서비스업	292,060	11,609	11,969	315,638	72,751	388,390
보건업	4,681	144,410	390	149,480	37,745	187,226
사회복지 서비스업	4,008	61,429	862	66,299	56,712	123,01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3	2,825	27,142	30,870	7,699	38,57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816	189	12,235	13,240	38,639	51,879
협회 및 단체	2,713	33,376	2,268	38,357	36,428	74,784
수리업	1,087	571	0	1,658	52,026	53,684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2	1,902	255	2,429	121,949	124,378
가구내 고용활동	0	0	0	0	62,711	62,711
국제 및 외국기관	281	272	141	694	2,323	3,017
합계	658,133	606,034	227,036	1,491,204	3,664,309	5,155,512

[부록 표 10]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2013)

(단위 : %)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농업	0.0	0.0	0.0	0.0	0.2	0.1
임업	0.0	0.0	0.0	0.0	0.0	0.0
어업	0.0	0.0	0.0	0.0	0.0	0.0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0	0.0	0.0	0.0	0.0	0.0
금속 광업	0.0	0.0	0.0	0.0	0.0	0.0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	0.0	0.0	0.0	0.0	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0.2	0.0	0.0	0.1	0.0	0.0
식품품 제조업	0.0	0.1	0.0	0.0	0.6	0.5
음료 제조업	0.0	0.0	0.0	0.0	0.0	0.0
담배 제조업	0.0	0.0	0.0	0.0	0.0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0	0.1	0.3	0.1	0.5	0.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1	0.6	5.8	1.2	3.8	3.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	0.0	0.7	0.1	0.3	0.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0	0.0	0.0	0.0	0.1	0.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	0.1	0.0	0.0	0.2	0.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	0.0	0.6	0.1	0.7	0.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0	0.1	0.0	0.0	0.0	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3	0.3	0.0	0.3	0.2	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2	0.7	0.0	0.4	0.2	0.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1	0.2	0.2	0.2	0.3	0.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1	0.0	0.0	0.0	0.1	0.1
1차 금속 제조업	0.1	0.0	0.0	0.1	0.1	0.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1	0.2	0.0	0.1	0.5	0.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0.8	0.4	1.4	0.8	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5	1.1	0.0	0.7	0.2	0.4

[부록 표 10 계속]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2013)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전기장비 제조업	0.3	0.4	0.2	0.3	0.4	0.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6	0.6	0.1	0.5	0.7	0.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4	0.3	0.1	0.3	0.2	0.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0	0.0	0.0	0.0	0.0	0.0
가구 제조업	0.0	0.0	0.4	0.1	0.2	0.1
기타 제품 제조업	0.1	0.0	0.7	0.2	0.6	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6	0.2	0.0	0.3	0.3	0.3
수도사업	0.0	0.0	0.0	0.0	0.0	0.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0	0.0	0.0	0.0	0.0	0.0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0.0	0.0	0.0	0.0	0.1	0.1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0	0.0	0.0	0.0	0.0	0.0
종합 건설업	3.8	2.2	0.2	2.6	3.5	3.2
전문직별 공사업	1.1	0.8	2.1	1.1	4.2	3.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1	0.3	0.0	0.2	0.7	0.5
도매 및 상품중개업	0.9	7.6	2.6	3.9	8.6	7.2
소매업; 자동차 제외	0.8	3.1	4.0	2.2	13.2	10.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0.3	0.4	0.0	0.3	5.9	4.3
수상 운송업	0.1	0.1	0.0	0.1	0.1	0.1
항공 운송업	0.3	0.0	0.0	0.1	0.4	0.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0.0	0.5	0.1	0.2	0.7	0.6
숙박업	0.0	0.3	0.1	0.1	0.8	0.6
음식점 및 주점업	0.0	1.2	0.6	0.6	11.1	8.0
출판업	12.2	0.9	13.6	7.8	0.9	2.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0	0.2	6.7	1.1	0.2	0.5
방송업	0.2	0.2	7.6	1.3	0.2	0.5
통신업	1.0	0.3	0.2	0.6	0.8	0.7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8	0.6	1.3	3.0	0.3	1.1
정보서비스업	0.8	0.1	0.7	0.5	0.2	0.3
금융업	0.5	2.9	0.0	1.4	2.7	2.3

[부록 표 10 계속]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비중(2013)

산업명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창조계층	비창조계층	합계
보험 및 연금업	0.3	1.5	0.1	0.8	2.3	1.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0.4	3.5	0.2	1.6	0.9	1.1
부동산업	0.1	7.1	0.1	3.0	2.2	2.4
임대업; 부동산 제외	0.0	0.1	0.0	0.0	0.4	0.3
연구개발업	5.3	0.5	0.2	2.6	0.2	0.9
전문서비스업	2.2	9.9	5.7	5.9	3.3	4.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8.5	0.6	0.4	4.1	0.4	1.5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3	0.4	17.3	2.9	0.2	1.0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3	0.1	0.0	0.2	1.0	0.8
사업지원 서비스업	0.7	2.7	1.5	1.6	5.5	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	3.7	0.5	2.1	4.3	3.7
교육 서비스업	44.4	1.9	5.3	21.2	2.0	7.5
보건업	0.7	23.8	0.2	10.0	1.0	3.6
사회복지 서비스업	0.6	10.1	0.4	4.4	1.5	2.4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1	0.5	12.0	2.1	0.2	0.7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0.1	0.0	5.4	0.9	1.1	1.0
협회 및 단체	0.4	5.5	1.0	2.6	1.0	1.5
수리업	0.2	0.1	0.0	0.1	1.4	1.0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	0.3	0.1	0.2	3.3	2.4
가구내 고용활동	0.0	0.0	0.0	0.0	1.7	1.2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1	0.0	0.1	0.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11] 전국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2008~2013)

(단위 : 명, %)

산업명	종사자 수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08	2013	2008	2013	
농업	1,257	1,377	0.0	0.0	1.8
임업	312	1,419	0.0	0.0	35.4
어업	1,458	2,085	0.0	0.0	7.4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74	141	0.0	0.0	13.6
금속 광업	287	32	0.0	0.0	-35.3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350	214	0.0	0.0	-9.4
광업 지원 서비스업	255	1,655	0.0	0.0	45.4
식료품 제조업	13,482	10,551	0.3	0.2	-4.8
음료 제조업	1,930	1,975	0.0	0.0	0.5
담배 제조업	552	0	0.0	0.0	-10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6,714	6,231	0.1	0.1	-1.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389	26,995	0.5	0.5	2.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602	3,882	0.1	0.1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480	1,383	0.1	0.0	-1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158	1,786	0.1	0.0	-15.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633	6,479	0.1	0.1	-0.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681	2,140	0.1	0.0	-4.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3,351	28,673	0.5	0.5	4.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4,458	17,066	0.5	0.3	-6.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725	14,819	0.3	0.3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742	6,927	0.2	0.1	-6.6
1차 금속 제조업	11,743	11,738	0.2	0.2	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4,108	28,263	0.5	0.5	3.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7,957	95,366	2.5	1.8	-4.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1,313	41,619	0.7	0.8	5.9
전기장비 제조업	31,541	44,496	0.7	0.8	7.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5,114	76,919	1.4	1.4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9,125	37,226	0.8	0.7	-1.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6,464	32,105	0.6	0.6	3.9
가구 제조업	3,446	3,196	0.1	0.1	-1.5
기타 제품 제조업	10,619	10,525	0.2	0.2	-0.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5,976	23,344	0.5	0.4	-2.1
수도사업	3,566	2,537	0.1	0.0	-6.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343	4,943	0.0	0.1	16.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5,235	4,165	0.1	0.1	-4.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120	752	0.0	0.0	-7.7
종합 건설업	185,766	148,861	3.9	2.7	-4.3
전문직별 공사업	83,723	69,320	1.8	1.3	-3.7

[부록 표 11 계속] 전국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2008~2013)

산업명	종사자 수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08	2013	2008	201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1,360	11,820	0.2	0.2	0.8
도매 및 상품중개업	130,598	172,600	2.7	3.2	5.7
소매업; 자동차 제외	85,349	91,043	1.8	1.7	1.3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6,618	15,044	0.3	0.3	-2.0
수상 운송업	9,036	10,322	0.2	0.2	2.7
항공 운송업	7,634	3,996	0.2	0.1	-12.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0,830	14,430	0.2	0.3	5.9
숙박업	6,218	7,807	0.1	0.1	4.7
음식점 및 주점업	25,128	28,882	0.5	0.5	2.8
출판업	142,536	227,315	3.0	4.2	9.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7,910	30,967	0.6	0.6	2.1
방송업	27,711	37,716	0.6	0.7	6.4
통신업	25,732	23,016	0.5	0.4	-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80,831	90,994	1.7	1.7	2.4
정보서비스업	14,727	18,893	0.3	0.3	5.1
금융업	52,940	47,460	1.1	0.9	-2.2
보험 및 연금업	25,784	29,866	0.5	0.5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2,321	47,585	0.7	0.9	8.0
부동산업	256,427	166,014	5.4	3.1	-8.3
임대업; 부동산 제외	2,351	2,146	0.0	0.0	-1.8
연구개발업	74,982	151,427	1.6	2.8	15.1
전문서비스업	96,212	171,397	2.0	3.2	12.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97,739	221,419	4.1	4.1	2.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0,502	98,175	1.9	1.8	1.6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9,787	10,565	0.2	0.2	1.5
사업지원 서비스업	49,985	66,671	1.0	1.2	5.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4,931	121,470	2.2	2.2	3.0
교육 서비스업	1,449,796	1,393,759	30.3	25.6	-0.8
보건업	468,654	634,643	9.8	11.7	6.3
사회복지 서비스업	177,583	397,935	3.7	7.3	17.5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7,316	71,341	1.2	1.3	4.5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44,786	48,499	0.9	0.9	1.6
협회 및 단체	140,537	182,985	2.9	3.4	5.4
수리업	4,916	7,861	0.1	0.1	9.8
기타 개인 서비스업	7,454	8,649	0.2	0.2	3.0
가구내 고용활동	1,402	604	0.0	0.0	-15.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	0	0.0	0.0	-
국제 및 외국기관	1,550	1,898	0.0	0.0	4.1
합계	4,779,226	5,438,419	100.0	100.0	2.6

[부록 표 12]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2008~2013)

(단위 : 명, %)

산업명	종사자 수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08	2013	2008	2013	
농업	0	0	0.0	0.0	-
임업	0	0	0.0	0.0	-
어업	0	0	0.0	0.0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	0	0.0	0.0	-
금속 광업	287	0	0.0	0.0	-100.0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	0	0.0	0.0	-
광업 지원 서비스업	228	1,441	0.0	0.0	44.5
식료품 제조업	3,590	703	0.3	0.2	-27.8
음료 제조업	535	0	0.0	0.0	-100.0
담배 제조업	0	0	0.0	0.0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888	1,528	0.1	0.1	11.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914	17,684	0.5	0.5	3.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56	1,854	0.1	0.1	2.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37	236	0.1	0.0	-0.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78	535	0.1	0.0	-17.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309	1,531	0.1	0.1	-7.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65	467	0.1	0.0	1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127	3,839	0.5	0.5	-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1,305	5,558	0.5	0.3	-13.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13	2,277	0.3	0.3	7.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38	437	0.2	0.1	-28.5
1차 금속 제조업	2,463	751	0.2	0.2	-2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999	2,099	0.5	0.5	-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929	21,170	2.5	1.8	-6.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517	9,841	0.7	0.8	2.9
전기장비 제조업	3,825	4,509	0.7	0.8	3.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207	8,060	1.4	1.4	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240	4,323	0.8	0.7	-7.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283	166	0.6	0.6	-40.8
가구 제조업	432	982	0.1	0.1	17.8
기타 제품 제조업	4,004	2,305	0.2	0.2	-1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397	5,104	0.5	0.4	3.0
수도사업	1,244	294	0.1	0.0	-25.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4	446	0.0	0.1	3.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095	0	0.1	0.1	-10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75	0	0.0	0.0	-100.0
종합 건설업	46,255	38,621	3.9	2.7	-3.5
전문직별 공사업	22,288	16,622	1.8	1.3	-5.7



[부록 표 12 계속] 서울시 창조계층의 산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및 비중 추이(2008~2013)

산업명	종사자 수		비중		연평균 증가율
	2008	2013	2008	201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283	2,336	0.2	0.2	-6.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457	58,102	2.7	3.2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	27,300	33,009	1.8	1.7	3.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833	4,315	0.3	0.3	2.4
수상 운송업	1,210	859	0.2	0.2	-6.6
항공 운송업	3,520	1,990	0.2	0.1	-10.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375	3,547	0.2	0.3	8.3
숙박업	3,113	2,018	0.1	0.1	-8.3
음식점 및 주점업	8,739	8,790	0.5	0.5	0.1
출판업	72,408	116,239	3.0	4.2	9.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6,879	16,895	0.6	0.6	0.0
방송업	13,482	19,968	0.6	0.7	8.2
통신업	7,972	8,997	0.5	0.4	2.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2,905	44,312	1.7	1.7	6.1
정보서비스업	6,158	7,708	0.3	0.3	4.6
금융업	23,038	20,855	1.1	0.9	-2.0
보험 및 연금업	10,192	11,370	0.5	0.5	2.2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5,235	24,335	0.7	0.9	9.8
부동산업	87,242	44,084	5.4	3.1	-12.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22	707	0.0	0.0	2.6
연구개발업	15,865	38,535	1.6	2.8	19.4
전문서비스업	47,860	87,397	2.0	3.2	12.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5,509	61,109	4.1	4.1	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880	43,494	1.9	1.8	2.8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995	2,958	0.2	0.2	-0.3
사업지원 서비스업	15,608	24,265	1.0	1.2	9.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784	30,961	2.2	2.2	7.3
교육 서비스업	346,080	315,638	30.3	25.6	-1.8
보건업	114,562	149,480	9.8	11.7	5.5
사회복지 서비스업	24,439	66,299	3.7	7.3	22.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677	30,870	1.2	1.3	5.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5,330	13,240	0.9	0.9	-2.9
협회 및 단체	30,093	38,357	2.9	3.4	5.0
수리업	0	1,658	0.1	0.1	-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58	2,429	0.2	0.2	7.9
가구내 고용활동	1,105	0	0.0	0.0	-10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	0	0.0	0.0	-
국제 및 외국기관	630	694	0.0	0.0	2.0
합계	1,330,647	1,491,204	100.0	100.0	2.3

## Abstract

---

### Analysis on Employment and its Characteristics of Creative Class in Seoul

Bum-Sik Kim · Mook-Han Kim · Yoon-Hyi Ja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employment status and its characteristics of Seoul's Creative Class by statistically categorizing the Creative Class, and extrac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foresaid analysis.

In this research, Creative Class is categorized into three subgroups: Creative Core, Creative Professionals, and Bohemians, resting mainly on Florida's concept on Creative Class. In statistical categorization of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 mainly based in accordance with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using Fritsch and Stuetzer(2012).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sets, occupation codes are limitedly provided in regional units, and therefore the occupation codes used to categorize Creative Class was sorted according to medium classification levels.

Key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eoul's Creative Class population in 2013 was 1,491,204, ranking in first place among all 16 cities. Also, it has been documented that 27.4% of the total Creative Class population nationwide is concentrated in Seoul alone. When breaking down Seoul's Creative Class in 2013 by category, 44.1% accounted for the Creative Core, 40.6% for Creative Professionals, and 15.2% for Bohemians. Between 2008 and 2013, the annual growth of Seoul's Creative Class recorded average was 2.3%; by category, Bohemians(5.2%) demonstrated much higher increase in growth compared to the other two classes - Creative Core(1.2%) and

Creative Professionals(2.5%).

Second, demographic features of Seoul's Creative Class are as follows. By gender, men accounted for 58.0%, and by age, 40 years and below made up 79.7% of the total Creative Class population; by education, college graduate or beyond occupied 89.8%.

Third, labor-behavioral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The monthly average wage of Creative Classes mounted up to 3,257,000 won, 1.6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non-Creative Class, which brought in 2,012,000 won. By category, Creative Professionals were leading with 3,672,000 won, followed by 3,109,000 won for the Creative Core class and 2,535,000 won for the Bohemians class. Between 2008 and 2013, annual wage growth rate showed an average of 2.3%, with Creative Professionals recording the highest growth.

Meanwhile, weekly working hours of Seoul's Creative Class was 42.3 hours, which is less than that of the non-Creative Class(45.9 hours). By category, Creative Professionals were found to be working relatively more than the other two classes. 83.1% of Seoul's Creative Class engaged in regular, permanent positions, mirroring high job security.

Fourth, when examining Seoul's Creative Class by industry, we found they were concentrated mainly in educational services, human health, and publishing activities. By using a proportion of the Creative Class participating in respective industries and LQ(location quotient) as an industrial specialization degree, our analysis found that 14 industries including publishing, computer programm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udio-visual recordings, information services, professional servic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had more Creative Class participants than Seoul's average, when considering an LQ over 1.

Fifth, by analyzing the structure of employment change through the Shift-Share Model, it was identified that increases in employment of Seoul's Creative Class had an effect of 84.5% national growth and an occupational mix effect of 29.8%, but had little impact on competitive effect, which indicates comparative advantage or specialization, and an allocation effect.

The proportion of Creative Class in Seoul, along with Gyeonggi Province, proves to be high when observed on the domestic-level, but compared to other major cities around the globe the performance is shown to be relatively poor. Thus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policies encouraging its growth within the population. In order to expand its magnitude, the following strategic plans are necessary.

First, we need to absorb non-Creative Class populations into that of Creative Classes. For thi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Creative Workforce Training Strategies' that accords with industrial characteristics.

Second, because the participant level of the over 50 population in the Creative Class is significantly low, we need to develop a new business model that could strengthen the creativity of these certain age groups.

Third, Seoul's current Creative Manpower Training Program should be revised and enhanced once put through a thorough business evaluation.

Fourth, it would be in the best interest to promote industries highly concentrated with Creative Classes in accordance with other industrial policies.

Fifth, sustainable provisions of cultural amenities, which are demanded by and are familiar with the Creative Class, are positively necessary to better attract creative population.

# Contents

---

##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Research
- 2\_Research Methods and Recent Trends

## 02 Concept of the Creative Class and its Statistical Classification

- 1\_Major Preceding Research and Case Analysis
- 2\_Categories of the Creative Class and Statistical Classification

## 03 Analysis on Employment and its Characteristics of the Creative Class in Seoul

- 1\_Analysis on the Level of Employment and its Changes
- 2\_Analysis on Demographic·Labor·Behavioral Characteristics
- 3\_Analysis 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 4\_Analysis on the Employment Change through the Shift-Share Model

## 04 Policy Implications

- 1\_Analysis Summary
- 2\_Future Policy Perspectives

---

서울연 2014-BR-16

서울시 창조계층  
특성과 정책방향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5년 6월 30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073-9 9332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